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제주도 <검질매는소리>의
유형과 분포 연구

송 정 희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2023년 8월

제주도 <검질매는소리>의 유형과 분포 연구

이 논문을 문학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송 정 희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지도 교수 허 남 춘

송정희의 문학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심사위원장	김	현	선	
위	원	현	능	
위	원	장	영	
위	원	시	지	
위	원	허	남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	3
3. 연구방법	4
4. 연구 자료와 한계점	9
II. 자료분석	14
1. 자료	24
1-1. 한국구비문학대계	24
1-2.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	28
1-3. 나요당기증 제주민요 자료집	31
1-4. 현장조사	34
1-5. 濟州의 鄕土民謠	35
1-6. 濟州島部落誌	36
1-7. 제주의 민요	38
1-8. 한국의 민속음악-제주도민요편	40
1-9. 백록어문	41
2. 자료분석	48
2-1. 사데소리 훗소리 분석	48
2-2. 아웨기소리 훗소리 분석	51
2-3.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검질매는소리> 훗소리 분석	52
III. <검질매는소리>의 유형과 실제	55

1. <검질매는소리>의 유형 분류	55
2. <검질매는소리>의 유형별 특징과 실제	64
2-1. 사데류	64
(1) 진사데소리 유형	65
(2) 짝른사데소리 유형	74
(3) 추침사데소리	81
2-2. 아웨기류	87
(1) 진아웨기소리	87
(2) 짝른아웨기소리	88
2-3 발매는흥애기소리	89
2-4. 공유민요	93
(1) 상사소리(상사디야요)	94
(2) 담벌소리	95
(3) 더럼소리	96
(4) 용천검	97
2-5. 기타민요	99
(1) 성주소리	99
(2) 선낙각시	100
3. <검질매는소리>의 사설 유형	104
3-1 실무성 사설	104
3-2 놀이성 사설	106
3-3 표출성 사설	107
IV. <검질매는소리>의 분포 양상	111
1. 제주도 환경과 발농사의 특징	111
1-1. 제주도 환경	111

1-2. 제주도 농사의 특징	116
2. 유형별 <검질매는소리> 분포 양상	119
2-1. 사데류	122
2-2. 아웨기류	128
2-3. 밭매는흥애기소리	129
2-4. 공유민요	130
2-5. 공유민요-상사소리	131
V. <검질매는소리>의 인문지리적 성격	134
1. 자연환경에 따른 동서의 다름	134
2. 제주의 옛 행정구역의 모습	137
3. 무속신앙을 품고 있는 <검질매는소리>	143
4. <검질매는소리>의 개방성	146
VI. 결론	148
참고문헌	153
<Abstract>	159

표 목 차

표 1 한국구비문학대계 9-1 수록곡 목록	24
표 2 한국구비문학대계 9-2 수록곡 목록	24
표 3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수록곡 목록	25
표 4 한국구비문학대계 9-4 수록곡 목록	26
표 5 한국구비문학대계 9-5 수록곡 목록	27
표 6 한국구비문학대계 9-6 수록곡 목록	28
표 7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 수록곡 목록	28
표 8 나요당기증 제주민요 자료집 수록곡	31
표 9 현장조사 수록곡	34
표 10 제주의 향토민요 수록곡	35
표 11 제주도부락지 수록곡	37
표 12 제주의 민요 수록곡	38
표 13 한국의 민속음악-제주도민요편 수록곡	40
표 14 백록어문 수록곡	41
표 15 사데소리 훗소리 양상	49
표 16 아웨기소리 훗소리 양상	52
표 17 흥애기, 더럼소리, 상사디야요, 담불소리, 용천검 훗소리 양상	52
표 18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분류표	60
표 19 흥애기소리 목록	91

그림 목 차

그림 1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유형 도형화	54
그림 2 구좌통	114
그림 3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전체 분포도	121
그림 4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사데류 전체 분포도	122
그림 5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진사데-굽이진사데소리 분포도	123
그림 6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사데-진사데소리 분포도	124
그림 7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사데-짚른사데소리 분포도	125
그림 8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사데류-짚른사데-뒤야로고나 분포도	126
그림 9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사데류-짚른사데-막바지사데소리 분포도	127
그림 10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사데류-추침사데소리 분포도	128
그림 11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아웨기류 분포도	129
그림 12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발매는흥애기소리 분포도	130
그림 13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공유민요 분포도	131
그림 14 전국 논매는상사소리 분포도	132
그림 15 전국 모심는상사소리 분포도	132
그림 16 전국 기타류 상사소리 분포도	132
그림 17 전국 상사소리 분포도	132
그림 18 제주도 토양분포도	136
그림 19 제주도 지석묘 분포도	136
그림 20 고려시대 옛 행정구역	138
그림 21 사데류-진사데-굽이진사데 분포도	138
그림 22 조선시대 옛 행정구역 - 정의현 현청 이동	140
그림 23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전체 분포도 - 정의현 중심	141
그림 24 증위일보 1928.08.12 기사	142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유형과 분포 연구

송 정 희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유형은 사데류, 아웨기류, 발매는흥애기, 공동민요, 기타민요로 분류할 수 있고, <검질매는소리> 분포 양상은 사데류와 아웨기류는 제주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제주도 민요 중 발농사에서 불리는 발매는 소리인 <검질매는소리> 분포, 유형, 변이 연구를 통해 하나의 기능을 가진 민요가 다양한 문화를 품고 있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제주도 <검질매는소리>는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 <검질매는소리>의 유형은 오이코타입과 훗소리로 분류하였다. 유형은 크게 사데류, 아웨기류, 발매는흥애기, 공유민요, 기타민요로 5개로 분류하고 다시 사데류는 소리의 길이와 빠르기에 따라 진사데소리, 짝른사데소리, 추침사데소리로 나뉘었다. 아웨기류는 진아웨기소리, 짝른아웨기로 나누고 발매는흥애기소리는 그 성격이 남달라 별도로 분류하였다. 공유민요는 상사소리, 더럼소리, 담벌소리, 용천검으로 분류하였고, 기타민요는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민요로 성주소리와 선낙각시로 2개의 유형이 존재한다. <검질매는소리> 사설의 특성은 노동요로서의 모습을 매우 잘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의 사설 내용이 노동의 실태를 담고 있고, 그 외에 경제, 애정, 생활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앞명에는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나구나가라', '사데불령 우기명가자' 등이 첫 소절로 나타난다. 이후 노동실태를 계속 노래하거나 세상 사는 이야기, 애정에 관한 이야기, 세상 물정 등이다.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분포 양상은 지역에 따라 존재하는 유형을 분석하여 그 양상을 밝혔다. 사데류는 제주도 서쪽이 우선 지역이고 아웨기류는 제주도 동쪽이 우선 지역이다. 특히 조선시대 정의현 행정구역으로 표선면과 성산읍이 가장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유형의 지역 분포를 지도화하여 양상을 밝혔다. 제주도 <검질매는소리>의 분포 양상을 통한 인문지리적 성격

은 자연환경에 따른 동서의 다름으로 제주도 서쪽 지역의 토양인 비화산토와 동쪽 지역의 토양인 화산회토로 토양의 성질이 서로 달라 농사법 또한 다르며, 그런 다름이 <검질매는소리>의 분포 양상을 만들었다. 역사지리적 성격으로 사데류 중 굽이진사데 소리는 고려시대 행정구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폐쇄성을 가지고 있고, 아웨이기류와 공유민요, 기타민요는 조선시대 행정구역의 모습을 담고 있다. 제주도 내 다른 문화와의 교류로 무속과의 관계 속에서 아웨이소리라는 민요가 탄생하였다. 아웨이소리는 선소리는 사데소리이고 훗소리는 제주 무속 제차 중 석살림에 불리는 서우제소리의 훗소리다. 이러한 결합으로 아웨이소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변이된 모습이 아닌 석살림에서 불리는 담불소리도 <검질매는소리>의 유형이다. 그리고 <검질매는소리>의 개방성으로 타농업노동요 수용, 어업요와의 관계에서 변이 형태, 육지민요 수용, 창민요 수용 등 여러 기능요와의 넘나들이 존재한다. 타농업노동요로는 흥애기소리, 더럼소리가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검질매는소리>로 불리고 있고, 사데류-썩른사데-뒤야로구나는 멜후리는소리 훗소리 앞부분과 썩른사데소리 훗소리 뒷부분이 만나 결합된 형태이다. 그리고 육지민요인 상사소리도 발매는 노동에서 불려지면서 <검질매는소리>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창민요에서는 용천검이 발매는용천검으로 선율, 사실의 변화 없이 불려지고 있다. 기타민요로 아직 그 성격이 밝혀지지 않는 성주소리와 선낙각시가 있다.

이 연구에서 내린 결론을 서술하면 첫째 <검질매는소리>는 제주도의 정체성을 한껏 드러내는데, 아주 적절한 대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검질매는소리>는 소리의 양상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분포권과 함께 지역 유형이라는 각별한 양상을 만들어냈다. 셋째, <검질매는소리>는 제주도의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를 매개하는 적절한 대상이 된다.

주제어 :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발매는소리, 김매는소리, 사데소리, 진사데소리, 썩른사데소리, 막바지사데소리, 추침사데소리, 아웨이소리, 진아웨이소리, 썩른아웨이소리, 상사소리, 흥애기소리, 더럼소리, 담불소리, 용천검, 성주소리, 선낙각시, 발농사, 화산회토, 뜯땅, 뒤땅, 공유민요, 오이코타입, 훗소리

I. 서론

이 논문은 제주도 밭매는 노동에서 불려지는 <검질매는소리>에¹⁾ 관한 것이다. 제주도의 지리적 조건 속에서 나온 <검질매는소리>는 제주도만의 독자적이면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검질매는소리>는 어느 정도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으며, 동시에 음원 자료도 구비되어 있어서 자료의 분포와 특징을 알 수 있는 적절한 대상이 된다. <검질매는소리> 분포와 의의를 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유형과 분포 연구를 시작하게 된 단편적인 문제제기는 제주도 <검질매는소리>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이다.

우리나라 민요 중 그 분포가 가장 많은 것은 노동요이고 그중에도 논농사 관련 민요일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 노동요에서는 논농사와 관련된 민요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논 고루는 소리>,²⁾ <밀레질노래>,³⁾ <쓰레질소리>,⁴⁾ <설매질소리>⁵⁾ 등 채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논농사 관련 노동요의 전반적인 모습을 알기는 힘들다. 그에 비해 잡곡 위주의 밭농사는 매우 발달해 있어 자연히 밭농사와 관련된 민요가 발달하고 노동 기능상의 분화도 잘 이루어져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검질매는소리>는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반면 육지부는 논농사 관련 민요가 매우 발달하여 있고 노동 기능상의 분화도 잘 이루어져 있으며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제주도

1) 검질매는소리에서 검질은 제주어로 잡초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잡초제거를 할 때 부르는 민요이다. 김매는소리, 밭매는소리 등으로 노동의 기능상으로 분류는 되는 민요 중 하나이다.
2)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총서 38 『나요당 기증 제주민요 자료집-음원·악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2018. 218쪽.; 문화방송 라디오국, 『한국민요대전:제주도 민요해설집』, 서울:문화방송 라디오국, 1992, 224쪽.
3) 제주학연구센터, 위의 책, 219쪽.
4) 제주학연구센터, 위의 책, 220쪽.
5) 문화방송 라디오국, 위의 책, 231쪽.

<검질매는소리>는 대체로 10여 종이 있으며, 그러한 유형 분류 준거는 훗소리의⁶⁾ 특징과 여러 가지 훗소리에 의해서 밝힐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두 가지 각도에서 진행된 바 있는데, 하나는 <검질매는소리>를 연구 대상으로 발견하고, 전승과 분포를 논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검질매는소리>를 제주도의 자연 지리적 특징 속에서 논하면서 역사적 성격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 논문은 연구 자료를 대상으로 구체적 유형 분류에 기반하여 몇 가지 새로운 각도에서 논의를 시행하고자 한다. 첫째, <검질매는소리>의 구체적 양상보다 천착하고자 한다. 자료의 개체가 전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검질매는소리> 훗소리와 사설의 긴밀한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둘째, <검질매는소리>의 분포도 작성을 기반으로 그 분포의 실제 양상을 가시화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현재의 행정구역에 근거하여 이를 GPS 시스템에 입힘으로써 가능한 범위의 고찰을 하고자 한다. 가시적인 것의 이면에 입각하여 이 분포의 이면 원리가 있는지 탐색한다. 셋째, <검질매는소리>의 인문지리적 성격을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충실한 현지조사에 입각한 자료 축적을 근간으로 하여 데이터 베이스 전방을 구실삼아 이것을 매개로 새로운 연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현지조사가 부족하여 그 자료를 예증 삼아 전량으로 대상 할 수 없음을 자인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을 총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김헌선은 농사와 관련된 민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고 하고 논농사 민요와 밭농사 민요가 그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논농사와 밭농사가 애초부터 분리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것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은 하지는 않았지만⁷⁾ 논농사요와 밭농사요의 서로 간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일 것이다. 유사하다고 하여 모두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다.

6) 민요의 형식은 독창 혹은 교환창과 선후창에 의해 다를 수 있는데 대체로 선후창을 중심에 놓고 형식을 따질 수 있다. 선후창인 경우 선창자가 부르는 선소리가 있고 후창자가 부르는 훗소리가 있다. 훗소리는 후렴, 받는소리, 받음소리 등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선소리의 대응으로 이 논문에서는 훗소리라고 하겠다.

7) 김헌선, 「논농사 민요의 지역적 분포와 상관관계」, 『민속학연구 제3호』, 국립민속박물관, 1996, 29쪽.

이 연구에서 육지부 논농사요와 밭농사요를 비교 분석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육지부 논농사 김매기소리의 유형과 분포 양상이 매우 다양하여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제주도 <검질매는소리>의 유형과 분포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는 유사한 노동 현장에서 불러지는 민요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2. 선행연구

민요는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된 논문을 모두 열거조차 못 할 정도로 그 양이 방대하다. 그중 제주민요는 김영돈, 강성균, 조영배, 한승훈, 좌혜경, 양영자, 변성구 등에 의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제주도 <검질매는소리>만 연구한 결과물은 그리 많지 않다.

강성균은⁸⁾ 제주도 김매는 노래인 <검질매는소리>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였다. 제주에서의 <검질매는소리> 위상을 밝히고, 전승과 분포를 분석하였다. 창법으로는 선후창, 교(환)창을 하며, 내용은 일상의 정서를 노래한 사설로 한탄, 애정, 자족, 협동 등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명칭으로 ‘사디(사데)소리’라고 하며, 그 종류가 ‘진사디’, ‘썩른사디’ 이렇게 나눠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가 동일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제주 전도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성산읍 난산리에 ‘아웨기소리’, 성산읍 난산리와 표선면 성읍리에 ‘홍애기소리’가 김매는 노래로 분포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일부 지역에서 ‘서우제소리’의 가락이 김매는 노래로 불리고 있다고 하였는데 제주도 김매는 소리의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한승훈은⁹⁾ 제주도 김매는 노래의 전승 양상이 다양한 이유를 화산섬이 갖고 있는 지리적 환경과 토양환경 등을 극복하기 위한 농업기술과 제주도민의 생존전략인 농업생산구조 등이 상호작용하여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을과 마

8) 강성균, 「제주도 김매는 노래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986.

9) 한승훈, 「제주도 김매는 노래의 분포양상과 전승실태」, 『민요론집』 제2호, 민속원, 1993.

을 사이 민요의 교류를 거부하는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가 존재하고 있어 민요의 차별적 전승분포가 가능하였다고 보았다. 김매는 노래의 민요권을 어촌권과 중산촌권, 그리고 기타권으로 나눠 분석하였고, 행정권이 민요의 전승분포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밝혔다. 고려 말엽의 군현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시기에는 제주도 내 인구 상황에 따라 설촌지에서 개척지로 민요가 전파되면서 현치소의 민요적 전통이 거부감없이 수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1600년대에 이르러 행정권이 정착하면서 삼현 사이에 지역의식이 심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의 김매는 노래의 전승 양상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양영자¹⁰⁾ 제주도 <검질매는소리>의 한 장르인 <사데소리>가 제주의 토질, 잦은 바람과 많은 비, 자연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농사법 등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형성되고 전승되고 있다고 하였다. 밭매기가 잦은 마을일수록 <검질매는소리>도 다양하게 분화되며 전승되었고, 그 중 <사데소리>는 농사 관행과 제주사회의 삶의 대응방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사데>는 제주사회의 공동체 생활 양식인 ‘수눌음검질’에서 형성되어 노동의 힘듦과 지루함을 달래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일하도록 집단신명을 불러일으키는 구실을 하고, <추침사데>는 노동과 놀이를 통합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노동공동체와 이웃마을 공동체 등 노동집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노래의 신명성과 대중성을 확보해 온 구술문화라고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제주도 <사데소리>는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노동의 일상성과 효용성을 살리고, 사교적 장치로서의 구실까지 수행한 독특한 미적 양식으로서 소통의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히고 있는데, <검질매는소리>에서 <사데소리>에만 국한하여 연구하였다.

3. 연구방법

민요는 노래이다. 민요의 사설(노랫말)은 민요를 부르는 창자에 의해 끊임없이

10) 양영자, 「제주도 <사데소리>의 존재양상과 의미」, 『한국민요학』 제20호, 한국민요학회, 2007.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각편들이 존재한다. 민요의 다양성을 어떻게 분류하고 정리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김헌선은 민요가 우리 민속문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라고 말하고 있다. 민요의 지역적 공통성은 주로 노동의 전체 과정이나 인생살이가 같기 때문에 민요의 자연발생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¹¹⁾ 그리고 지역별 민요의 변이를 Oicotype(오이코타입)의 개념을 도입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¹²⁾

오이코타입은 1927년 Carl Wilhelm von Sydow에¹³⁾ 의해 제안된 민속학 방법론이다. 이 용어는 식물의 지역적 또는 지역적 형태를 가리키는 식물학에서 차용되었다. 오이코타입은 집 또는 가정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어근 "oikos"에서 파생되었다. 폰 시도프는 식물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기후와 토양 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것처럼 민속도 그러하다고 본 것이다. 인간의 이동에 따라 자신의 지역에서 먼저 습득된 것과 타지역에서 다시 습득된 것들의 서로 충돌하고 선위점을 차지하며 새로운 민속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 지역과 지역간의 이동에 의해 선 지역적 특성이 남고 후 지역의 특성이 결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이코타입은 비교 방법의 논리적 확장으로 볼 수 있다. 다른 곳(나와 다른 민족이 사는 곳)에서 발견되는 동족 민담이나, 민담의 다른 버전과 해당 변이들을 비교하지 않으면 민담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변형이 얼마나 독특한지 알 수 없다. 민속의 항목이 지역 미학, 이데올로기, 가치 등과 일치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 오이코타입의 설정은 성격 또는 성격이 가능한 특정 기능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 개념을 확장하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이야기의 유형이 남성 및 여성 오이코타입이 있을 수 있다고도 제안하였다.¹⁴⁾

11) 김헌선, 위의 논문, 1996, 26쪽.

12) 김헌선, 「한국민요의 문화지도 착상과 예비적 시론 -경기민요 <논매는소리>를 예증으로 삼아-」, 『비교민속학 제46집』, 비교민속학회, 2011, 305쪽.

13) Carl Wilhelm von Sydow은 1878년생으로 스웨덴에서 가장 저명한 민속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교육 및 연구 작업뿐만 아니라 기록 보관자, 편집자 및 토론자로서 민속 기억 연구, 이후 민속학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 1914년에 그는 민속 저널인 Folkminnen och Folktankar를 창간하였다. (<https://sok.riksarkivet.se/sbl/Mobil/Artikel/35041> 검색일 2023.04.12.)

14) 오이코타입의 개념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는 Elena Bradunas, "If You Kill a Snake, the Sun Will Cry-Folktale Type 425M: A Study in Oicotype and Folk Belief," *Lituanus* 21 (1975), 5-39; Lauri Honko, "The Formation of Oicotypes," *Folklore on Two Continents: Essay in Honor of Linda Dégh* (Bloomington: Trickster Press, 1980), 280-285; Linda-May Ballard, "The Formation of the Oicotype: A Case Study," *Fabula* 24 (1983), 233-245; Eli Yassif, "유대인 오이코타입에서 이스라엘 오이코타입까지: '서약을 하지 않은 남자' 이야기," *Fabula* 27 (1986), 216-236; 및 Timothy Cochrane, "The Concept of Ecotypes in American Folklor

오이코타입은 설화인 경우 파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설화를 서사단락 구분을 통해 동일한 모티프를 분석하여 이야기의 기본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모티프가 A에서 Z까지 있다면 어느 특정 지역에서는 A, C, G가 발견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A, R, Z가 발견되는 것을 지역적 환경, 인문적 환경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특성은 발화자가 남성인 경우와 여성인 경우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김헌선은 인류의 역사가 이룩한 과거의 흔적을 선명하게 집약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문화지도라고 하였다. 문화지도는 인류의 소중한 꿈이 간직되어있는 대상이 된다고 한다.¹⁵⁾ 문화의 핵심인 민요를 통해 문화지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문화지도는 일정하게 기초적인 자료의 분포를 보여주는 자료 분포도의 성격을 지닌 지도라고 한다. 문화지도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 유형 오이코타입의 개념을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¹⁶⁾

오이코타입의 개념으로 민요,¹⁷⁾ 신앙,¹⁸⁾ 설화,¹⁹⁾ 등을 연구한 결과물이 있다. 아

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24(1987), 33-55. 동일한 Aarne-Thompson 이야기 유형의 "남성"과 "여성" 오이코 유형의 차이에 대한 훌륭한 설명을 보려면(오이코타입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음) 인류학자 James M. Taggart의 Enchanted Maidens: Gender Relations in 구애와 결혼에 관한 스페인 민화에서 매우 잘 설명하고 있다.(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https://sok.riksarkivet.se/sbl/Mobil/Artikel/35041> 검색일 2023.04.12.)

15) 김헌선, 위의 논문, 2011, 197쪽.

16) 김헌선, 위의 논문, 2011, 305쪽.

17) 강등학은 우리나라 농요를 권역에 따라 하나소리권, 미나리권, 아라리권, 정자소리권, 상사소리권 등 5개 대권역이 존재하고, 하위 소권역들이 존재하는 입체적이며 구조적인 구도로 정리하였다. (강등학, 「<모심는 소리>와 <논매는 소리>의 전국적 관도 및 농요의 권역에 관한 연구」, `한국민속학 제38호, 한국민속학회, 2003.)

18) 서해숙은 터주신앙의 문화요소인 명칭, 쌀 봉안 형태와 명칭의 특성에 따라 전국을 크게 철릉문화권, 터주문화권, 텃고사문화권, 터신제문화권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가정신앙의 모든 영역을 대상화하여 각각의 문화요소 추출과 함께 이를 지도에 표기하고, 이를 디지털라이징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확대해간다면, 수많은 민속문화 현상을 객관화할 수 있을 것이라라고 하였다. (서해숙, 「한국 터주신앙의 쌀 봉안의례와 문화권역」, 『지방사와 지방문화』 12권 2호, 역사문화학회, 2009.)

이기태는 동제의 대상신을 중심으로 문화권역 설정에서 나타나는 복수의 문화권역이 겹칠 수 있는 현상을 살펴보고, 문화권역의 경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문화권역이 문화권, 문화영역이 합쳐진 개념으로 정립하였다. 경계지점에는 두 도의 특성이 함께 나타나는 문화복합현상을 확인하였다. 행정구역의 경계가 문화권역을 구분 짓는 기준이기보다는 경계지역 양쪽의 문화특질을 공유하는 점이지대로써의 새로운 문화권역을 설정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기태, 「道 경계지역 문화요소의 분포와 문화권역-동제의 대상신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3권 1호, 역사문화학회, 2010.)

허용호는 서울·경기 지역 마을곳의 양상을 살피고, 마을곳이 벌어지는 시기와 형식을 기준으로 권역

직 그 수는 많지 않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권역별 분포 양상을 지도화하여 연구한 결과물도 많다.²⁰⁾

현재 이 논문에서 제주도 <검질매는소리>를 통해 제주도 민요 문화지도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 기초가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 발매는 소리의 개체요 유형 분류를 홑소리 분석을 통해 하고자 한다.

민요의 가창방식에는 독창, 합창, 제창, 선후창, 교환창 등이 있다. 크게 보면 독창, 선후창, 교환창으로 나뉘 볼 수 있다. 독창은 혼자 부르는 것을 말한다. 선후창과 교환창은 둘 이상 함께 부르는 것을 말한다. 선후창에는 선소리 독창·홑소리 합창인 경우가 있고, 선소리 제창·홑소리 합창, 선소리 합창·홑소리 합창 등이 있는데 이것은 구연현장의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겠다. 교환창은 공동의 홑소리 없이 선소리 즉 사설이 있는 가사를 둘이서 순연하는

구분과 문화 지형을 추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서울·경기 지역의 마을굿 문화 지형은 동심원 구조로 표현할 수 있고, 서울 지역은 시월 마을굿 권역과 정월 마을굿 권역이 대치 양상을 보이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한강변을 중심으로 무속적 마을굿이 주변과 어떤 관계도 없이 독자적 권역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허용호, 「마을굿의 시기와 형식을 기반으로 한 문화지도 그리기-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13집, 한국무속학회, 2006.)

19) 이해란, 「설화권역 설정 및 오이코타입-212-1 <명당 잡아준 명풍수>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59권, 한국구비문학학회, 2020; 이해란, 「야래자(夜來者)설화의 설화권역 구분 및 특성」, 『어문론총』 84권, 한국문학언어학회, 2020.

20) 장동호·차상인, 「논매기소리의 전자문화지도 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2014.
유재진·장동호, 「충청남도 남동부에서 나타나는 논매기소리의 분포와 전파에 관한 연구」, 2014.
유재진·장동호, 「충청남도 논매기소리의 공간적 분포와 전파에 미친 차령산맥 선구조의 영향: 느린 열카덩어리 류 열카덩어리 잘 넘어간다 류를 중심으로」, 2015.
위눈솔·장동호, 「지형요소를 기반으로 한 전북지역 논매기소리의 공간분포 특성 연구」, 2016.
박현수·장동호, 「지형요소를 활용한 충북 논매기소리의 전파 특성 분석: 짧은방아 및 상사류를 사례로」, 2016.
윤혜연·임은진·박현수, 「경남지방 논매기소리의 공간적 분포와 문화권 구분에 관한 연구」, 2020.
김장수·장동호, 「경남지방 논매기소리의 공간적 분포특성 연구: 상사 류를 중심으로」, 2020.
윤혜연·장동호, 「지형요소를 활용한 전라도 논매기소리의 공간분포와 전파에 관한 연구: 아리시고 류, 산아지 곡, 방개 류를 사례로」, 2021.
이예슬·장동호, 「전남지역 문화권 구분에 따른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공간분포 특성 분석」, 2021.
김장수·장동호, 「전남지방 논매기소리의 공간적 분포특성 및 문화지역: 아리시고나 류, 산아지소리, 절로소리, 세화자(세월이)소리를 중심으로」, 2021.
김장수·장동호, 「경상지방 논매기소리 '상사 류'의 분포와 문화전파」, 2022.
윤혜연·장동호, 「경상남·북도 논매기소리 공간분포와 전파 특성에 관한 연구-지형요소를 중심으로」, 2022.
장동호·임은진, 「경북지역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문화지역 구분에 따른 공간분포 특성 분석」, 2022.

경우, 셋이서 순연하는 경우 등이 있다. 민요의 가창방식이 선후창이 주를 이룬다. 그러한 까닭에 민요는 선소리와 훗소리로 나뉘게 된다.

선소리 명칭은 선소리로 본절, 본 사실, 가사 등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여기서는 ‘본절 사실(辭說)’이라 하고, 그 절수는 1절, 2절 등으로 차례로 지칭한다.

훗소리 명칭은 받느소리, 받음소리, 후소절, 구음, 조율구, 입타령, 구호, 여음, 훗소리 등 다양하다.²¹⁾ 일반적으로 여음, 훗소리 등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선소리의 대응으로 훗소리라고 하겠다.

선소리는 본절 사실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와 훗소리 형태를 먼저 한 번 부르고 본절 사실로 들어가는 경우, 중간에 훗소리 형태를 또 부르는 경우 등으로 훗소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훗소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집단성일 것이다. 민요가 공동의 노동으로 집단적 형태로 불려지기 때문에 훗소리가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공동체의 폐쇄성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

변성구의 연구에 의하면 민요는 구연(口演)을 전제로 하는 구비문학의 대표적 양식이다라고 하였다. 구비가 꼭 집단성을 전제하지 않지만, 민요인 경우 집단성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고, 더욱이 민중의 공동 참여에 의해 형성된 민요는 그 가창에 있어서 훗소리가 따른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훗소리는 사실 못지않게 가창이나 전승면에서 흥을 돋우고, 조율(調律)적 기능뿐만 아니라 민요의 본 가사의 주도적 율격을 이루어 전승에 깊이 관여한다. 심지어 훗소리가 민요의 명칭으로도 쓰인다. 이것은 아리랑, 이야흥, 강강술래, 달구노래, 널늑리야 등처럼 민요의 훗소리 일부가 굳어져 민요의 명칭이 된 것이다. 또 민중들이 민요 유형을 지칭할 때 훗소리를 지적하며 기억해내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²²⁾

훗소리는 관점에 따라 분석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겠지만 민요가 구연(口演)을 전제로 하는 만큼 첫째 훗소리는 어떤 형태로 어떤 위치에서 가창되는가, 즉 훗소리 형태 및 위치상 유형 분석이 가능하겠고, 둘째 가창되는 훗소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즉 구성요소상 유형 분석이 가능하겠다.²³⁾

21) 변성구, 「제주민요의 후렴」, 『민요론집』 제2호, 민요학회, 1993, 267쪽.

22) 변성구, 앞의 논문, 1993, 267쪽.

23) 변성구, 앞의 논문, 1993, 270쪽.

훗소리의 형태와 위치상으로는 선후창에서 주로 나타나는 고정형이 있고, 교환창에서 주로 보이는 준고정형이 있다. 그리고 일정한 형태를 갖춘 훗소리가 없거나 가창되는 위치도 불규칙적이어서 서두, 행 중간, 행의 끝, 결미에 가창되기도 하고, 가창되지 않기도 하는 경우로 비고정형이 있다. 훗소리의 구성을 보면 의미가 있는 말로 구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무의미한 말로 구성되어 있는가로 나뉘 볼 수 있다. 무의미한 말을 성음, 의미있는 말을 어사로 성음후렴, 어사후렴, 성음어사혼성후렴으로 나눌 수 있다.²⁴⁾ 이 논문에서는 무의미한 말을 ‘여음(餘音)’이라고 하고, 의미가 있는 말을 ‘사설(辭說)’이라고 좀더 쉽게 표현하겠다.

제주도 <검질매는소리>에는 훗소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형태가 존재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훗소리 중심으로 오이코타입을 설정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그것을 표로 작성하여 기본 틀을 제시한다. 여기서 조사된 민요의 개수를 모두 제시하지는 않는다.²⁵⁾ 그 지역에 그 유형이 있는가만 제시하기로 한다. 이 표를 QGIS 3.285 프로그램을²⁶⁾ 이용하여 지도화하여 분포 양상을 살필 것이다.

4. 연구 자료와 한계점

연구 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 9-1~9-6』,²⁷⁾ 『학술조사보고서』,²⁸⁾ 『한국의 민속

24) 변성구, 앞의 논문, 1993, 279쪽.

25) 현장조사 시 조사되는 민요의 개수는 조사자의 의지로 혹은 제보자의 의지로 그 양이 달라질 수 있다. 다양한 자료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민요가 조사된다는 것은 단편적으로 그 민요가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 불리는 모든 민요를 조사하고 기록할 수는 없기에 가능한 대표성을 인정하고 연구하였다.

26) 자유 오픈 소스 지리정보 시스템은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다. <https://qgis.org/ko/site/> (2023.05.07. 검색일)

2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한국구비문학대계 9-1』, 서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한국구비문학대계 9-2』, 서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서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허남춘·강정식·강소전·송정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한국구비문학대계 9-4』, 서울:역락, 2014.

허남춘·강정식·강소전·송정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한국구비문학대계 9-5』, 서울:역락, 2017.

허남춘·강정식·강소전·송정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한국구비문학대계 9-6』, 서울:역락, 2017.

28) 제주대학교 국어국문·국어교육과, 『학술조사보고서-안덕면 덕수리·애월읍 고내리-』 제7집, 동양출

음악:제주도민요편』,29) 『백록어문』,30) 『제주도부락지 I~IV』,31) 『한국민요대전-제주도 민요 해설집』,32) 『濟州의 民謠』,33) 『濟州의 鄕土民謠-제주시 편』,34) 『나요당 기증 제주민요 자료집』,35) 그리고 마을지 12편이고,36) 직접 현장조사한 자료가 있

판사, 1982.

제주대학교 국어국문·국어교육과, 『학술조사보고서-애월읍 광지리·애월읍 광명리-』 제8집, 동광인쇄사, 1984.

2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예술연구실, 『한국의 민속음악:제주도민요편』, 城南: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30)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백록어문』 창간호, 경신인쇄주식회사, 1986.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백록어문』 제5집, 경신인쇄사, 1988.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백록어문』 제6집, 경신인쇄사, 1989.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회, 『백록어문』 제7집, 경신인쇄사, 1990.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회, 『백록어문』 제8집, 대영인쇄사, 1991.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회, 『백록어문』 제9집, 경신인쇄사, 1992.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회, 『백록어문』 제10집, 경신인쇄사, 1994.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1집,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5.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2집,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6.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3집,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7.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4집,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8.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5집, 도서출판 세림, 1999.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6집, 도서출판 세림, 2000.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7집, 경신인쇄사, 2001.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8·19집, 도서출판 역락, 2004.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0·21집, 성민출판사, 2005.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3집, 민속원, 2007.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4집, 민속원, 2008.

3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濟州島部落誌 I』,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濟州島部落誌 II』,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濟州島部落誌 III』,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濟州島部落誌 IV』,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1.

32) 문화방송 라디오국, 『한국민요대전:제주도 민요해설집』, 서울:문화방송라디오국, 1992.

33) 김영돈, 『濟州의 民謠』, 도서출판 신아문화사, 1993.

34) 제주시, 『濟州의 鄕土民謠-濟州市 編』, 제주:濟州市, 2000.

35) 이소라,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총서 38 『나요당 기증 제주민요 자료집』, 제주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2018

36) 영락국민학교, 『영락학구 향토지』, 제주: 영락국민학교, 1987.

우도지편찬위원회, 『牛島誌』, 제주: 우도지편찬위원회, 1996.

건입동마을회, 『建入洞誌』, 제주: 건입동마을회, 2001.

건입동마을회, 『建入洞誌』, 제주: 건입동마을회, 2008.

삼양동지 편찬위원회, 『三陽洞誌』, 제주: 삼양동지 편찬위원회, 2008.

아라동편찬위원회, 『我羅洞誌』, 제주: 아라동지편찬위원회, 2008.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東明鄕土誌』, 제주: 동명향토지 편찬위원회, 2009.

유수암리지 편찬위원회, 『流水岩里誌:제주 유수암 마을. 2010』, 제주:애월읍 유수암리, 2010.

제주 동회천향토지 발간위원회, 『새미=Saemi:제주 동회천향토지』, 제주:제주 동회천향토지 발간위원회, 2013.

성읍마을회, 『성읍마을』, 제주: 성읍마을회, 2015.

수망리지 편찬위원회, 『水望里誌』, 제주: 수망리마을회, 2017.

성산읍 수산1·2리 마을회, 『改訂增補版 水山里誌』, 수산초등학교 총동문회 도서편찬위원회, 2021.

다.

『한국구비문학대계』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중앙연구원)에서 간행한 전국 구비문학자료 조사 보고서이다. 1차 조사는 1979년부터 1985년에 걸쳐 조사작업이 이루어졌고, 간행은 1980년~1992년에 이루어졌다. 2차 조사는 2008년에 시작되어 2018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고, 간행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1차, 2차 자료는 디지털화 작업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는 방대한 작업이며, 매우 소중한 문화자산이다. 디지털화 작업이 된 자료들은 사이트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³⁷⁾ 제공하고 있다.

『濟州島部落誌 I~IV』은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에서 시행한 학술 조사 결과물이다. I은 1984년~1988년에 조사한 결과물이고, II는 1978년, 1981년, 1983년에 조사한 결과물이다. III은 1972년~1974년, 1985년에 조사한 것이고, IV는 1975년, 1977년, 1989년에 조사한 결과물이다.

『한국민요대전』은 MBC라디오에서 사라져가는 우리의 구전문요를 찾아 녹음,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1995년까지 <한국민요대전> 사업을 시작했다. 제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충북, 경기도, 강원도 순으로 현지녹음과 출판이 이루어졌다.

『濟州의 郷土民謠』는 조사시기는 2000년으로 되어있지만 수록된 민요 채보시기는 1980년부터 2000년이다. 조사자가 개인적으로 채보한 민요까지 모두 수록되어 있다. 옛 제주시 지역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옛 제주시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자료집은 그리 많지 않다.

『나요당기증 제주민요 자료집』은 1981년부터 2005년까지 조사하였고, 2018년에 1곡을 더 조사하여 225편의 민요를 엮은 자료집이다. 농요를 비롯하여 장례를 치르면서 부르는 ‘상례의식요’, 맷돌을 돌리거나 방아를 찧으며 부르는 ‘제분요’, 바

37) <https://gubi.aks.ac.kr/web/> 검색일 2023.04.14.

땀을 하며 부르는 ‘어업노동요’, ‘임업노동요’, ‘잡업요’, ‘전래동요’, 잡타령 ‘ 흥 민요’ 등 수록되어있다. 악보와 음원도 같이 발간되었다.

연구자료의 조사 시기를 보면 1970년대 말에서 1990년까지 집중적으로 조사된 것이다. 그리고 1990년에서 2000년, 그리고 2008년에서 2018년까지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다. 2008년에서 2018년까지의 조사된 것을 보면 민요 사설 수가 매우 짧고 구연을 길게 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노동현장에서 발매는 노동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더이상 노동 현장에서 민요를 부르는 행위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노동 현장에서 음악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부르고 듣던 행위에서 듣는 행위로 전환되어 그 매체가 라디오, 핸드폰 등으로 대체되었다. 즉 더이상 육성으로 민요를 부르지 않는다.

자료의 한계점은 모든 자료집이 제주 전 지역을 조사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정된 인력으로 제주 전 지역을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각 자료집들을 합치면 제주도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조사 연구자에 따라 한 지역의 동일한 유형의 <검질매는소리>가 10개 조사되어 수록하는 경우도 있고, <검질매는소리> 중 대표적인 것만 수록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조사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조사된 동일한 유형을 모두 표에 제시하는 것은 동일한 조사 상황이 아니므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2장 자료분석에서는 제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필자의 현장조사가 미흡한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현장조사는 1996년~2012년까지 매년 제주 지역 2곳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는 간간히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검질매는소리>에 한정하지 않고 제주민요의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검질매는소리>의 조사량이 매우 미흡점이 문제이다.

현장조사의 문제점은 몇 시간동안 조사한 구술자료에 사실 원하는 민요는 몇 분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사가 기억이 안나 다음에 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장기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한 지역에 열 번, 스물 번 정도는 가야 진정한 제보자를 만날 수 있다. 단기간 조사로 숨은 제보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다고 하지만

현장조사에서의 현장상황을 기록한 내용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실제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 한 시대가 저물며 극변하는 시기에서 마지막 민요 유형과 변이, 분포 양상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I. 자료분석

연구자료의 성격은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사실과 음원이 함께 있는 경우와 사실만 기록된 경우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 『나요당기증 제주민요 자료집』, <현장조사>는 사실과 음원이 함께 기록된 경우이고, 그 외 나머지는 모두 사실만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사실만 기록하는 경우에 훗소리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선소리 사실만으로 이 민요가 어떤 민요인지 알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기록된 민요 명칭, 구연상황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명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음원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민요대전』, 『나요당기증 제주민요 자료집』,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나머지 연구 자료는 보조적 역할로 분석하겠다.

자료 분석에 있어서 같은 종류의 민요를 묶기 위해서는 명칭 부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민요의 명칭에서 가장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현장에서 제보자가 말하는 명칭이다. 제보자 혹은 구연자가 말하는 명칭을 벗어나 새로운 명칭을 부여할 수는 없다. 자료에 제시된 발매는 노동에서 불려지는 명칭은 ‘김매는 노래, 검질 메(매)는 소리, 진 사데, 사데소리, 짝른(짜른) 사데, 아웨기소리, 발매는 흥애기, 김매는 노래(더럼소리), 김매는 노래(아웨기), 발 매는 노래’ 등 매우 다양하다. 명칭이 다양한 것은 그 유형이 다양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크게 보면 ‘김매는노래’, ‘발매는노래(소리)’, ‘검질매는노래(소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모두 민요의 기능적인 부분을 부각시킨 명칭이다. 발에서 노동을 할 때 부르는 민요를 말하는 것이다. 검질매는 노래에서 검질은 제주어로 잡초를 뜻한다. 이 셋은 모두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 이 중에 ‘김매는 노래’인 경우는 제보자 혹은 구연자가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제주도에서 ‘김맨다’는 말을 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로 ‘검질매다’라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조사자 혹은 연구자가 기능 중심으로 부여한 민요 명칭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질매는노래(소리)’인 경우는 제보자가 부여한 명칭으로 보이고, 조사자 혹은 연구자들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이 논문에서는 제주도 발매는 노동

에서 불리는 모든 소리를 <검질매는소리>라고 하겠다.

제주도 <검질매는소리>는 기능요-노동요-발농사요-김매는 소리로 분류된다.³⁸⁾ 노동요에서 남요와 여요, 남여공요으로 나뉘서 볼 수 있는데 제주의 경우 보통 발가는 소리는 남요로 분류되고 김매는 소리는 여요로 분류된다.³⁹⁾ 이는 노동의 성격 때문이다. 밭을 가는 행위는 소나 말을 동반하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여성보다 남성이 노동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 김매는 노동은 제주인 경우 주로 여성이 노동의 주체가 된다.

민요의 사설은 선소리와 훗소리로 나누는데 선소리 사설이든 훗소리 사설이든 사설은 창자의 창작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 민요의 가창방식은 선소리는 독창으로 훗소리는 합창으로 이루어지는 선후창 방식을 예사로 생각한다. 이러한 경우 선소리는 독창으로 하니 창작이 가능해서 본질 사설은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주로 독창으로 불리는 선소리의 사설 내용은 농사 과정, 날씨, 경치 등을 너머 신세한탄에 이르기까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정선아라리> 사설이 조사된 것만 5000절이 넘는다고 한다. 지금도 새로운 사설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다.

민요는 어떤 현장에서 불려지느냐에 따라 사설의 내용이 달라지고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 민요 즉 노래는 놀이에서 파생된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구연 상황에서 민요의 놀이적 성격이 작동되면 노동 현장은 놀이의 공간 즉 축제의 장으로도 전화될 수 있다.

강등학은⁴⁰⁾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놀이성은 가창방식에 의해 더욱 증대될 수 있다고 한다. 훗소리가 있는 민요의 지배적인 가창방식은 선후창이다. 선후창은 선소리를 부르는 선창자가 사설을 메기고 후창자가 이를 받아 부르는 것이 훗소리이다. 선후창은 선소리는 주로 한사람이 말지만 훗소리는 나머지 구성원 모두가 담당하면서 청자와 창자가 구분되지 않고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가창방식이다.

놀이에서 흔한 규칙은 무언가를 주고받기이다. 그것은 무언가를 주고받는 사이에 발생하는 의무로부터의 해방과 새로움에 대한 기대 그리고 다시 의무로 구속되는 순환적 리듬이 즐거움을 저다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후창은 노래를 놀이화시

38) 문화방송 라디오국, 앞의 책, 1992, 9쪽.

39) 김영돈, 「제주도의 노동요」, 『한국문화인류학』 제8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76, 54쪽.

40) 강등학, 「민요 후렴의 현장론적 이해」, 『한국민속학』 26권, 한국민속학회, 1994, 9쪽.

키는 가창방식이라 할 수 있다. 훗소리는 선창자의 흥을 돋구어 주는 역할도 하고, 심리적 지지 등이 선창자를 격려하고 고무시키는 심리적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선창자의 가창에는 보다 흥이 일게 되고, 이러한 흥은 다시 후창자들에게 전달되어 가창의 즐거움은 한층 고조되는 순환이 발생한다. 민요의 훗소리는 구성원들이 서로 일체감을 가지고 호흡을 같이 하여 공동작업의 능률을 높이기도 한다. 구성원들 가운데 일부가 상황에 몰입하지 못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 능률과 흥의 제고를 떠나서 자칫 작업이나 놀이 자체의 흐름마저 깨지기 쉽다.⁴¹⁾

노동 현장에서 민요를 부른다고 육체의 힘듦이 실질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뿐이다. 우린 힘든 상황에 당면할 때 제발 이 시간만 지나가길 바라곤 한다. 이때 민요를 부르면서 모두 다 서로를 바라보며 노동을 한다면 단순히 이 힘든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잊기 위함일 것이다. 힘들고 지루하고 평범한 노동 현장이 즐겁고 흥겨운 비범한 노동 현장으로 전환 시켜주는 것이 민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민요를 부를 때 즐거움도 느끼고 혹은 시간을 잊어버리는 경험도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민요의 가사를 생각하면 현재 삶의 상황을 다시 인지하게 된다. 삶의 현재를 잊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민요는 이중적인 상황을 만들어 나를 위로하고 다시 상대를 위로하는 것이다. 우리 서로 같은 처지인 것을 다시 한번 더 느끼며 노동의 힘듦을 잊으며 가는 것이다.

훗소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놀이성의 강화; 가창의 놀이화, 선창의 흥 제고
- ② 구성원의 집단화; 구연의 주체화, 일체감 형성
- ③ 현장적 정서의 표상화; 정서의 지속과 제고, 정서의 집약과 표출⁴²⁾

훗소리 기능 중 구성원의 집단화가 주는 가장 큰 사회성은 공동체 형성일 것이

41) 강등학, 위의 논문, 9쪽.
42) 강등학, 위의 논문, 11쪽.

다. 이러한 연유로 훗소리의 변화는 그리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 민요는 독창으로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혹은 대중 앞에서 혼자 부르는 민요가 있고, 대중과 함께 부르는 민요가 있는데 대중과 함께 부르는 경우 훗소리만 같이 부르는 경우들이 많기때문에 민요의 본 가사는 모를 수 있지만 훗소리는 대체로 동일하게 부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민요의 곡조는 보수적이라 매우 더디게 변이되는 현상이 있다. 특히 노동 동작에 맞춰 민요를 부르게 되면 그 현상은 더욱 더디게 된다. 이렇게 민요에서 훗소리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선소리는 선창자, 민요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부르는 것이고 주로 의미가 있는 사설로 이루어진 가사 위주의 노래를 한다. 훗소리는 후창자, 선창자를 제외한 나머질 수도 있지만 선창자를 포함한 모두일 수도 있다. 훗소리는 후창자가 선창자 다음으로 노래를 하는 것인데 먼저 훗소리가 없는 경우와 훗소리가 있는 경우로 크게 나누고 훗소리가 있는 경우에서 여음으로만 된 경우, 여음+사설, 사설로만 된 경우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훗소리의 위치에 따라서 고정형, 준고정형, 비고정형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이를 가창방식과 결합하여 보면 독창에서 훗소리가 없는 경우는 서사민요로 사설 위주로 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만약 독창에서 훗소리가 위치상 고정형이든, 준고정형이든, 비고정형이든 있다면 이것은 선후창 혹은 교환창으로 불렀던 흔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교환창에서 훗소리가 없는 경우는 조금 복잡한 구성인데 교환창을 하는 선창자든 후창자가 각자 독창을 하는 모양새인 경우가 있고, 후창자가 선창자의 사설를 이어 받아 노래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다. 교환창에서 각자 독창을 하는 모양새인 경우는 각 창자마다의 각자의 사설 내용을 전개한다. 후창자가 선창자 사설을 이어 받는 경우는 선창자의 사설을 그대로 받아 부르기도 하고 사설를 이어서 내용을 전개하며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과정 속에 훗소리가 준고정형, 비고정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다.

선후창인 경우에는 훗소리가 없는 경우는 선창자의 사설을 후창자가 그대로 받

아 부르는 경우이고, 그 외에는 고정형 훗소리를 부른다.

이 연구에서 훗소리를 분석하는 것은 오이코타입을 축출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훗소리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세 가지 구성으로 된 내용을 예증을 제시하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 (1) 훗소리가 여음으로만 구성된 경우 (여음)
- (2) 훗소리가 여음구과 사설구로 구성된 경우 (여음+사설)
- (3) 훗소리가 사설로만 구성된 경우 (사설)

(1)의 형식은 주로 독창으로 부르는 민요에서 나타나지만, 선후창으로 부르는 민요에도 나타난다. 이 형식은 민요 형식 중 가장 원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주로 동물과 교감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에서 많이 불려지고 있다.

표선면민요②성읍1리 발매는 노래[홍애기]①⁴³⁾

(선) 어야뒤야 에에앵~앵헤에~에헤이~에헤이~이 사디로고나

(후) 음~야~에헤에~에야~흥~

(선) 검질짓고 오호~오흥~으흐으~굴너른밧디

(후) 음~야~에헤에~에야~흥~ (중략)

표선면 성읍1리 <발매는 노래[홍애기]>는 선창자 1인, 후창자 1인으로 선후창으로 불려졌다. <발매는 노래[홍애기]>는 <검질매는소리> 중 매우 느리고 긴 소리에 속한다. 이 소리의 특징은 ‘음~’이라고 비음을 길게 내는 것이다. 구성요소를 보면 선소리는 첫소절을 빼고 본 사설은 사설+여음+사설로 구성되어 있고, 훗소리는 여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훗소리는 정형화되어 있고, 고정형으로 불려졌다.

조천읍민요28 선흘1리 발매는 노래[아웨기 진소리]⁴⁴⁾

43) 김영돈, 『濟州의 民謠』, 도서출판 신아문화사, 1993, 602쪽.

44) 김영돈, 위의 책, 1993, 432쪽.

- (선) 어야~도오야 방애로고나
 (후) 아~아아양~에헤양~어허요
 (선) 노픈산의랑 아자우는새는
 (후) 아~아아양~에헤양~어허요
 (선) 북름이부을까 근심이로구나
 (후) 아~아아양~에헤양~어허요
 (선) 아픈산의 안진새는 비가올까 근심이라
 (후) 아~아아양~에헤양~어허요(중략)

<조천읍 선흥1리 발매는 노래[아웨기 진소리]>는 선창자 1인, 후창자 1인으로 선 후창으로 불러졌다. 선소리는 사설로 구성되어 있고, 후소리는 여음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정형적인 형태이고, 고정형이다.

(2)의 형식은 가장 보편적으로 민요 형식이다. 여음+사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설은 주로 뒤에 있는 경우가 흔하다. 사실 사설+여음으로 된 경우를 보기 쉽지 않다. 사설에 따라 민요의 명칭이 달라지거나 혹은 여러 개의 명칭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조천읍민요30 선흥1리 발매는 노래[썩른사데]⁴⁵⁾

- (선) 이여 이여루 사데로구나
 (후) 어긴여랑 사데야
 (선) 저산골로 흐르는물은
 (후) 어긴여랑 사데야
 (선) 불리섭새 인씩은물가
 (후) 어긴여랑 사데야
 (선) 하늘우로 내리는 물은
 (후) 어긴여랑 사데야
 (선) 궁네시네 발싯은물가

45) 김영돈, 위의 책, 1993, 438쪽.

(후) 어긴여랑 사대야 (중략)

<조천읍 선흥1리 발매는 노래[썩른사데]>는 선창자 1인, 후창자 1인으로 선후창으로 불려졌다. 선소리 첫 소절 ‘이여 이여루 사데로구나’와 훗소리 ‘어긴여랑 사대야’가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여음+사설로 되어있다. 훗소리는 고정형으로 정형적인 모습이다. 사설의 공통된 단어는 ‘사데’이다. 그래서 이 민요의 명칭은 발매는 노래 + 썩른사데가 된 것이다. 이런 경우 보통 현장에서는 ‘사데소리’라고 부른다. 하지만 연구자가 민요의 기능과 명칭을 모두 표현하고자 ‘발매는 노래’로 기능을 말하고 다시 현장에서 불리는 명칭으로 ‘썩른사데’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3)의 형식은 사설 중심의 민요로 가창방식은 독창, 교환창, 선후창이다. 후창자가 선창자와 동일한 위치에서 사설을 풀어가며 노래하기도 하고 후창자가 선창자의 사설을 그대로 따라하기도 한다. 또는 정형화된 사설을 훗소리로 반복하기도 한다.

조천읍 조천리 민요 2 <ㄱ레 ㄱ는 소리(맷돌질 노래)>⁴⁶⁾

A 이연이연	이여동허라
B 이여방애라그네	ㄱ들배지영
A 이연 ㄱ레 골아그넵에	즈낙이나 일찍허저
B 즈낙이나그넵에	붉은제허저
A 조반이사	늦어랜집의
B 놈의첩광 소남잇부름	소린나도랑 살을매웃나
A 즈낙이덜사도	일찍이허리
B 스랑스랑이라그넵에	하늬나불라
A 우리어머니	날무사나근
B 양친부모님으랑	배놓아오게

46) 『대전-제주』, 44쪽~45쪽. 『대전-제주』은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를 편역상 줄인 용어이다. 앞으로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의 민요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대전-제주』이란 표기를 사용하기로 한다. 다른 지역인 경우도 동일하다.

A 가난하고도 서난흔집의	날 시집보내여
B 하닌 내라그녕에	놈으믄을들영
A 흐를밤에도	밀닷말 7난
B 관관새에라그녕에	불붙어가듯
A 추억상회가도	다섯을받앙
B 낭도 좋아랜 낭은	관덕청에랑 대들보걸영
A 씨아바님신디도	둘디려두곡
B 일천선비라그녕에	절마탐서라
A 임과나는	반착이로구나
B 낭도 팔즈라그네	긱어랜 낭근
A 낭도나 늙어지면	고목이웁다
B 질긱집의라그네	디들팡놓앙
A 나도나 늙어지난	흐던일도 허사라
B 일천설비라그녕에	발맞암서라
A 이어이어도	이어도 흐라

<7레 7는 소리>는 주로 여성들이 7레(맷돌)를 돌리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독창으로 부르기도 하고 교환창으로 부르기도 한다. 제시된 민요의 가창방식은 교환창이다. A와 B가 서로 사설을 주고 받으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듯 하지만 사실 A만 놓고 보고, B만 놓고 보는 것이 사설의 흐름이 더욱 잘 이해가 된다. 함께 노래를 하지만 결국 혼자 부르는 것과 동일하게 사설을 꾸려간다. 재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A 이연이연 이어동 흐라	B 이어방애라그네 7들배지영
A 이연 7레 골아그녕에	B 즈낙이나그녕에 붉은제 흐저
	즈낙이나 일찍 흐저
A 조반이사 늙어랜집의	B 놈의첩광 소남잇부름
	소린나도랑 살을매웃나
A 즈낙이덜사도 일찍이 흐리	B 스랑스랑이라그녕에 하닌나불라

A 우리어머니 날무사나근	B 양친부모님으랑 배놓아오게
A 가난하고도 서난흔집의	B 하닌 내라그넝에 놔므믄들엉
날 시집보내여	
A 흘밤에도 밀닷말 7난	B 관관새에라그넝에 불붙어가듯
A 추억상회가도 다섯을받앙	B 낭도 좋아랜 낭은
관덕청에랑 대들보걸엉	
A 씨아바님신디도 둘디려두곡	B 일천선비라그넝에 절마탐서라
A 임과나는 반착이로구나	B 낭도 팔즈라그네 굿어랜 낭근
A 낭도나 늙어지면 고목이웁다	B 질긔집의라그네 디들팡놓앙
A 나도나 늙어지난	B 일천설비라그넝에 발맞암서라
헉던일도 허사라	
A 이어이여도 이어도헉라	

A는 이 맺들을 갈아서 저녁해 먹자라는 노동에 관한 내용에서 시작하여 가난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한탄하기도 한다. 그런 반면 B는 저녁을 날이 밝을 때 하자고 시작하여 애정에 관련 내용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경세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노래들의 성격은 구연자가 몇 명이든 처음은 선후창으로 시작하다가 점차 자신의 사설을 구연하는 교환창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 각자 자신의 사설을 노래하므로 각 편을 시간차를 두고 동시에 구연되는 '따로 또 같이'의 방식인 것이다.⁴⁷⁾

누구와 함께 노래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사설의 내용은 매우 크게 달라진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7레7는소리>를 하는 경우에 며느리가 자신의 남편, 혹은 시댁 식구를 홍보는 내용의 사설은 잘 하지는 않을 것이다.

구좌면 동김녕리 김매는 노래⁴⁸⁾

A 어어향어기야 뒤야로고나	B 어어향어기야 뒤야로고나
----------------	----------------

47) 양영자, 『제주학으로서 제주민요』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총서 31, 민속원, 2017, 278쪽.

48) 『대계 9-1』, 227쪽~231쪽. 『대계』은 『한국구비문학대계』를 편의상 줄인 용어이다. 앞으로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민요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대계』이란 표기를 사용하기로 한다. 『대계 9-1』이 후인 경우도 동일하다.

A 앞મે에야	들어나오라	B 앞મે에야	들어나오라
A 뒷મે에랑	나고나가라	B 뒷મે에랑	나고가라
A 에헿에에야	뒤야로고나	B 어헿어기야	뒤야로고나
A 검질짓고	굴너른밧디	B 검질짓고	굴너른밧디
A 조름도	벗이로고나	B 조름인덜	벗일러라
A 에헿어야	뒤야로고나	B 에헿어기야	뒤야로다
A 어야차소린	닷갱기소리	B 에헿어기야	뒤야로다
A 뒤야차소린	베놓는소리	B 에헿어기야	뒤야로다
A 어기야뒤야	방에로고나	B 어기야뒤야	방에로다 (중략)

<구좌면 동김녕리 김매는 노래>는 선후창으로 불려졌는데 선소리를 훗소리가 그대로 똑같이 따라 부르는 형태이다. 이러한 가창방식은 노래를 처음 배울 때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민요를 부르면서 민요를 배우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는 가창방식이 주는 또 다른 즐거움이 노동의 현장을 놀이의 현장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자료 분석은 훗소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교환창인 경우에 훗소리를 추출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 최다빈도수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훗소리 형태를 뽑았다. 그리고 훗소리의 길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이것은 제주도 노동요의 상당 부분이 장단이 없고 비분절형이며, 창자의 호흡에 맞춰 부르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격차 매우 심하다. 그래서 정형성이 있는가를 따졌다. 가창방식은 선후창을 기본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분석하지 않다.

민요의 본질 사설 내용은 크게 ① 노동관련 내용으로 밭, 도구, 작물, 잡초, 날씨, 풍광, 노동의 순서 등으로 노동의 실태를 이야기하고, ② 노동관련 없는 내용으로 생활고, 자립, 근면, 팔자, 한탄, 사랑과 원한, 시집살이, 처첩갈등, 외로움, 경세(警世), 세상물정, 탄노(嘆老), 신앙, 풍토 등으로 창자의 심정을 이야기한다. 분석표에는 사설의 내용을 다 제시할 수 없어 ①과 ②로 작성하였다.

1. 자료

1-1.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구비문학대계 9-1 조사지역은 구좌면, 애월면, 옛 제주시이다. 구좌면 민요 8곡, 애월면 민요 8곡으로 조사된 민요 수 16곡 중 <검질매는소리>는 동김녕리 1곡이다.

표 1 한국구비문학대계 9-1 수록곡 목록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구좌면 동김녕리	김매는 노래	-허군이(여) -박순덕(여)	어어향어기야 뒤야로고나	① 검질→② 집/애정→①바다→②경세

한국구비문학대계 9-2 조사지역은 옛 제주시 노형동, 용담동, 삼도동, 오라동으로 옛 제주시이다. 노형동은 민요 1곡, 삼도동은 민요 56곡으로 조사된 민요 57곡 중 <검질매는소리>는 4곡이다.

표 2 한국구비문학대계 9-2 수록곡 목록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옛 제주시 삼도동	김매는 노래(1)	-김명선(여)	어어허랑 서아디아	① 검질/작물 등
	김매는 노래(2)	-김태민(여)	어기여라 사대로다	① 검질→② 애정/처첩갈등
	김매는 노래(3)	-이명숙(여) -강순년(여)	어긴녀랑 사디로다	① 검질
	김매는 노래(4)	-이달빈(여)	어야뒤야 산이로다 영허어야 뒤야로다 어야뒤여 사대로다 어기영어기 사디로다	① 검질→② 신세한탄/애정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조사지역은 옛 서귀포시, 표선면, 안덕면,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이다. 옛 서귀포시는 민요 5곡, 표선면 민요 30곡, 안덕면 민요 152곡, 대정읍 민요 41곡, 남원읍 민요 8곡 조사되었다. 조사 된 민요 242곡 중 <검질매는소리>는 22곡이다.

표 3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수록곡 목록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표선면 성읍리	김매는 노래 (홍애기)	-조을선(여) -여럿	음~야~에헤에~에야~흥~	① 검질
	김매는 노래 (아웨기)	-이선옥(여) -여럿	아아~아양 예야에~요	① 검질→② 경세/ 애정→① 배
안덕면 덕수리	김매는 노래(1)	-양경생(여)	여기여랑 사디로고나 어기요랑 사디야	① 검질→② 신앙
	김매는 노래(2)	-윤추월(여) -박춘화(여)	어~긴여랑 사~디야	① 검질
	김매는 노래(3)	-윤추월(여) -박춘화(여)	여기여랑 서아디야 여기여랑 사디로구나	① 검질
	김매는 노래(4)	-송추옥(여)	여기여랑 서와디야	① 검질
	김매는 노래(5)	-홍기화(여) -오원길(여)	어긴 녀~랑 사아~디	선소리 사설없음 훗소리 반복
	김매는 노래(6)	-홍기화(여) -오원길(여)	어긴녀랑 서아디야	① 검질
	김매는 노래(7)	-문윤옥(남) -송평우(남)/ 윤추월(여)	오호~어여~랑~사~	① 검질
	김매는 노래(8)	-문윤옥(남) -송평우(남)/ 윤추월(여)	어긴녀~랑 서화디~야	① 검질
	김매는 노래(9)	-윤추월(여)	여기야~ 산이로고나	① 검질
	김매는 노래(10)	-지정원(여)	어기요랑 서와디야 어기요랑 사디로고나	① 검질
	김매는 노래(11)	-윤추월(여)	어긴녀랑 사디로고나 어긴녀랑 서화디야	① 검질
	김매는 노래(12)	-윤추월(여) -문윤옥(남)	어긴녀랑 사디로고나 어화낭창 방아로다 어긴녀랑 서화디야	① 검질
	김매는 노래(13)	-송평우(남)/ 윤추월(여) -문윤옥(남)/ 김대옥(여)	오호~어여~랑~사~	① 검질 선소리 사설은 1절 만 존재함. 훗소리 반복.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김매는 노래(14)	-송평우(남)/ 윤추월(여) -문운옥(남)/ 김대옥(여)	어긴녀랑 서화디아	① 검질
대정읍 하모리	김매는 노래(1)	-김축생(여)	진사디 어여뒤에랑도 사니로고나 썩른사디 어긴녀랑 사니로고나	① 검질→② 신앙
	김매는 노래(2)	-김옥(여) -여럿	어기요랑 사디로나	① 검질
	김매는 노래(3)	-강은반(여)	어긴녀랑 서아디아	① 검질
	김매는 노래(4)	-현신생(여) -여럿	어긴녀랑 서아디아	① 검질→② 신앙
남원읍 하례1리	김매는 노래 (더럼소리)	-오신옥(여) -현갑봉(여)	어야두리야 더럼마야	① 검질
	서우젓소리 아외기 소리	-현갑봉(여) -여럿	아~아아아에~에에요	① 검질→② 신앙

한국구비문학대계 9-4 조사지역은 제주시 건입동, 삼도2동, 삼양1동, 영평하동, 해안동, 회천동이다. 삼양1동에서 민요 23곡, 영평하동은 민요 10곡, 해안동은 민요 16곡, 회천동은 민요 16곡이 조사되었다. 조사된 민요 65곡 중 <검질매는소리>는 15곡이다.

표 4 한국구비문학대계 9-4 수록곡 목록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제주시 삼양1동	사데소리	-고영순(여)	어기여리나 사데로고나	① 검질
	진 사데소리	-고점유(여)	아~ 어기여랑 사데로당	① 검질→② 신앙
제주시 영평동	진 사데소리	-부경제(여)	어~기여~랑 사~데야	① 검질
	진 사데소리	-유인옥(여)	어기여~랑 스데야	① 검질
	아외기 소리	-유인옥(여) -여럿	아아 아아양 예헤양 어허 요	② 경세/탄노
제주시 해안동	사데소리 (진-썩른-열싸)	-강석진(남)	진사데 허야~허야~ 으~ 아~ 사데~ 로구~나	① 검질
	썩른 사데소리	-강석진(남)	어기영차 사데로고나	② 경세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진 사데소리	-강석진(남)	어--야 어흐어~ 어어흐야~ 어허- 어허야~ 어허어- 어~어어야- 어어허- 어허 야 아아아 어- 야 어기여~ 어러러으~~양 스~데-로~구 나~~	선소리 사설 없음. 훗소리 한 절만 부 름.
	사데소리	-강석진(남)	어기~여랑~ 스~데-로~구나 ~~	① 검질
	쭈른 사데소리 (1)	-이탁준(여)	어여~ 나여~랑 사데로~구 냥~	① 검질
	쭈른 사데소리 (2)	-이탁준(여) -박순애(여) -강석진(여)	어여~ 나여~도 사데로고냥	① 검질
제주시 회천동	아웨이 소리	-김순생(여) -여럿	아아아양 에헤양 어허요	① 검질
	아웨이 소리(1)	-한병양(여) -여럿	아아 아양 에에양 어허요	① 검질
	아웨이 소리(2)	-한병양(여) -여럿	아아양 에헤양 영허요	① 검질
	진 사데소리	-한병양(여)	어~긴 여~랑 사데-로군나	선소리 사설 없음. 훗소리만 반복

한국구비문학대계 9-5 조사지역은 구좌읍 동북리, 조천읍 북촌리, 구좌읍 송당리, 조천읍 신흥리이다. 조천읍 북촌리 민요 22곡, 구좌읍 송당리 민요 39곡으로 조사된 민요 61곡 중 <검질매는소리>는 7곡이다.

표 5 한국구비문학대계 9-5 수록곡 목록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조천읍 북촌리	아웨이 소리	-윤삼례(여) -여럿	어어어양 어허허양 어허허 요	① 검질
구좌읍 송당리	아웨이소리	-고순선(여)	아아아양 아헤헤양 어허허 요	① 검질
	아웨이소리	-김경수(여)	아~아아양 에~양 어허허요	① 검질
	검질 매는 소리	-김경수(여) -여럿	아아아양 에헤헤양 어허허 요	① 검질
	검질 매는 소리	-김영옥(남) -허정봉(남)	아아아양 어허허양 어허허 요	① 검질→② 가족
	검질 매는 소리	-이계선(여)	아아아양 어허허양 어허허 요	② 경세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검질 매는 소리	-최계주(여) -이계선(여)	아아아양 에헤헤양 어허허 요	① 검질

한국구비문학대계 9-6 조사지역은 한경면 고산리, 한림읍 명월리, 애월읍 상가리, 애월읍 수산리, 애월읍 장전리이다. 고산리 민요 39곡, 장전리 민요 14곡으로 조사된 민요 53곡 중 <검질매는소리>는 3곡이다.

표 6 한국구비문학대계 9-6 수록곡 목록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한경면 고산리	사대소리	-강소하(여)	어긴여랑 사대야	① 검질
	사대소리 (검질 매는 소리)	-조숙현(여)	어기여랑 스대야	① 검질
	사대소리	-좌신생(여)	-	① 검질

1-2.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

한국민요대전 제주도 민요편 조천읍 19곡, 구좌읍 18곡, 성산읍 14곡, 표선면 25곡, 남원읍 10곡, 옛 서귀포시 14곡, 안덕면 14곡, 대정읍 7곡, 한경면 8곡, 한림읍 5곡, 애월읍 32곡이 조사되었다. 조사된 민요 166곡 중 <검질매는소리>는 37곡이다.

표 7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 수록곡 목록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조 천 읍 선흘리	진사대 (밭 매는 노래)	-김봉옥(여) -정이복(여)	어야두야 사데로구나	① 검질→② 한탄
	썩른 사대 (밭 매는 노래)	-김봉옥(여) -여럿	아 어일여랑 사대야	② 신앙/경세/외로움
	진 아웨기 (밭 매는 노래)	-김봉옥(여) -여럿	아~아아양~에헤양~어허요	② 경세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썩른 아웨기 (밭 매는 노래)	-김봉옥(여) -여럿	아~아양 에헤양 어허요	② 신앙/경세
구 좌 읍 동김녕리	사대소리 (밭 매는 노래)	-김경성(여) -여럿	영허야 뒤야로구나	① 검질→② 경세→ ① 검질
구 좌 읍 덕천리	진 사대 (밭 매는 노래)	-강인생(여) -정행수(여)	어야뒤야 방애로고나 어양아가야 방애로구나 어야뒤야 산이로구나	① 검질→② 경세
구 좌 읍 송당리	아웨기 (밭 매는 노래)	-고선선(여) -여럿	아~아양 에~양어어요	① 검질
성 산 읍 온평리	썩른 사대 (밭 매는 노래)	-송금철(여) -안봉호(남) -박병림(남)	어기여데여 산이로구나 어기양허기 산이로구나 형~허야 사대로구나 형~허야 디야로구나	① 검질→② 경세→ ① 검질→② 희망/ 경세
	아웨기(밭매는노래)	-안봉호(남) -여럿	아~아아양 에헤양~에헤이 요	① 검질→② 한탄
성 산 읍 삼달리	진 사대(밭 매는 노래)	-강산옥(여) -여럿	아어나여 산이로구나	① 방아→① 검질→ ② 희망/경세
	상사디야요(밭 매는 노래)	-강재흡(남) -여럿	영형 어허요로 상사디야요	② 부모공양/경세 제주도 민요에서 보 기 드문 사설 내용
	썩른 사대(밭 매는 노래)	-강성태(남) -여럿	앵헤야 디야로구나	① 검질→② 경세/ 탄노
	막바지 사대(밭 매는 노래)	-강갑년(여) -여럿	에요랑 사대	① 검질
	담불 소리(밭 매는 노래)	-강재흡(남) -여럿	어히요랑 담불아	① 검질→② 말유희 /불경/애정/한탄
표 선 면 성읍1리	흥애기(밭 매는 노래)	-조을선(여) -여럿	음~야헤~허기야~흥~	① 따비질 관련
	아웨기(밭 매는 노래)	-이선옥(여) -여럿	아~아양 에헤양에헤요	① 검질 * 닷감겨온다.
	밭 매는 소리(상사디야요)	-김경화(여) -여럿	헤엥 헤헝 어허요로 상사 디야요	① 검질→② 애정→ ① 검질→② 애정
표선면 성읍2리	흥애기(밭 매는 노래)	-홍복순(여) -여럿	음-야어~ 어허기야 흥~	① 검질→② 탄노
	용천검(밭 매는 노래)	-정두옥(남) -여럿	에야라데야 에야라데야라 방애방아로다	② 용천검/탄노/애 정
	담벌소리(밭 매는 노래)	-홍복순(여) -여럿	어허어 담벌	② 애정/탄노/경세/ 죽음/
표선면 가시리	진 사대(밭 매는 소리)	-오이생(여)	없음	② 한탄/시집살이→ ① 검질→② 말유희 /한탄
	아웨기(밭 매는 노래)	-김오생(여) -여럿	아~아아양 아헤헤양 어허 요	① 검질
남월읍	흥애기/진 사대	-김만권(남)	흥애기	① 검질→② 부모봉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신흥리	/ 짝른사데(발 매는 노래)	-여럿	음~ 야~ 어~ 어기야 흥~	양
			진 사데	① 검질→② 부모봉양/자식결혼
			아~어기여라 사데 짝른사데 아해요랑 사데	① 검질→② 신흥리 내력→① 검질
남원읍 하례리	더럼 소리(발 매는 노래)	-안시봉(여) -여럿	아영~허 두리아 더럼아	① 검질
안덕면 덕수리	진 사데(발 매는 노래)	-송평우(남) -여럿(남)	아허~ 여어랑사	① 검질
대정읍 신평리	짝른 사데(발 매는 소리)	-양신생(여) -조복선(여)/ 강춘자(여)	어긴여랑 서하대야	① 검질→① 해녀→ ① 검질
한경면 용수리	짝른 사데(발 매는 소리)	-이화규(여) -여럿	어긴여랑 서아대야	① 검질
한림읍 명월리	진 사데(발 매는 노래)	-진화순(여) -고윤화(여)	어긴~여랑 사데~로~다	① 검질
	짝른 사데(발 매는 노래)	-고윤화(여) -진화순(여)	어긴여랑 사데로구나 오긴여랑 사데로구나 어가녕창 방아로구나	① 검질
애월읍 어음리	진 사데(발 매는 노래)	-부병출(여) -안갑출(여)/ 문성표(여)	이야엘~싸~에에 에에~야 여래~야 사데~로다	① 검질
애월읍 장전리	중간 사데(발 매는 노래)	-양춘화(여) -강춘향(여)	어길여랑 성사데 여길여랑 사데로고나 에행에헤야 뒤야로고나 에행에헤야 성사데로다	① 검질
애월읍 금덕리	진 사데(발 매는 노래)	-강옥심(여) -변문숙(여)	어허~야 어~영 어허~허허 어허~허 어허~허어 어야 어~어 얼 두리야 사데로구나	① 날씨 '바람은 간들간들'
애월읍 고성리	진 사데(발 매는 노래)	-김정자(여) -여럿	어허~ 어허~허어어 어허~ 어~어허 어허~ 에헤~랑 사 데~로고냥	① 검질 '추침사데'
	중간 사데(발 매는 노래)	-김정자(여) -여럿	어길여래랑 사데로고나	'물은적고'
	짝른 사데(발 매는 노래)	-김정자(여) -여럿	어기여래랑 사데로구냥	① 검질
애월읍 광령리	진 사데(발 매는 노래)	-정임인(여) -여럿	아허야~어~영 어허~영 어 허~어~영 어~형 어허~영~ 영 일도리랑 사~데로고냥	훗소리 반복 '추침사데'
	짝른 사데(발 매는 노래)	-정임인(여) -여럿	아허가두여랑 사데로고냥	① 검질

1-3. 나요당기증 제주민요 자료집

나요당기증 제주민요 자료집 조사지역은 남원읍 수망리·신흥리, 대정읍 가파리·신평리·하모리, 성산읍 삼달리·수산리·신양리·신평리·오조리, 안덕면 덕수리·창천리·화순리, 표선면 성읍리, 옛 서귀포시, 옛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금성리·상도리·월정리·종달리·평대리, 애월읍 광령리·납읍리·수산리·하귀리, 우도면 상하모동·서광리·오봉리·천진리, 조천읍 신흥리·조천리, 한경면 용수리, 한림읍 명월리, 추자면 묵리·신흥리·영흥리이고 총 조사된 225곡 중 <검질매는소리>는 옛 제주시 1곡, 조천읍 1곡, 구좌읍 1곡, 성산읍 6곡, 우도 1곡, 표선면 2곡, 옛 서귀포시 4곡, 안덕면 6곡, 대정읍 3곡, 한경면 1곡, 한림읍 1곡, 애월읍 11곡으로 총 40곡이다.

표 8 나요당기증 제주민요 자료집 수록곡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조천읍 조천리	한라39 검질매는 소리	- 고수천(여)/ 이안(여) -이달근(여) 외 여럿	아아아양 예~에요어어요	① 검질 ① 어업
구좌읍 동김녕리	한라48 검질매는 소리	-양승옥(여) - 김경생(여)/ 김수녀(여)	영~어허양 뒤야로구나	① 검질
구 좌 읍 월정리	한라47 검질매는 소리	-김주옥(여) -김태매(여)	어기여~랑 사~데로다	① 검질
성산읍 수산리	한라43 아웨기	-백옥생(여) - 부봉순(여)/ 강창부(남)	아~아아양 예혜양에예요	① 검질
	한라44 사대(검질매는노 래)	-백옥생(여) - 강창부(남)/ 부송순(여)	영~어야 뒤야로구나	① 검질
성산읍 신양리	한라51-1, 2, 3 검질매는 소리	-홍신옥(여) - 김봉수(여)/ 홍해성(여)	아~아아양 예혜양어허요 아~아아양 예~행어허요	① 검질
성산읍 삼달리	한라52 검질매는 소리	-강성태(남)	아여~나여~ 방애로구나 아여~나여~로 방애로구나	① 검질
		-강성태(남) -여성 여럿	영~어허야 뒤야로고나	① 검질→② 한탄
성산읍	한라56	선-현순덕(여)	훗소리 없음	① 검질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오조리	검질매는 소리	선-채만순(여) 선-송순남(여) 후-오복남(여)/ 김성윤(여)		중간에 선소리 반복
우도	한라45 검질매는 소리	-김춘산(여)	어야~디아~방애로구나 어야~디아~산이로구나	① 검질
표선면 성읍리	한라41 흥애기	-조을선(여) -이선옥(여)/ 현순옥(여)	야아헤~~에야 흥~	① 검질
	한라42 아웁기	-이선옥(여) -조을선(여)/ 현순옥(여)	아~아아양 에에양에헤요	① 검질
옛 서귀 포시	한라33 긴 사대	-현명석(여) -오월선(여)	아허~도~야 산이로다 아허~도~야 성사대야 아허-허기야 도야 방애로 고나	① 검질→② 탄노
	한라34 짜른사대	-이태인(여) -강월선(여)	어긴여랑 방애로다 허긴여-랑 서화대야 어야대야 산이로다	① 검질
	한라45 검질매는노래	-강임선(여) -한동여(여)	아~아아양 에에잉에헤요	① 검질
	한라50 검질매는 소리	-나덕봉(남)	아어~어기여랑 방아로~다 아~어~여~야 뒤야로고나	① 검질
안덕면 덕수리	한라26-1 긴 사대	-김대옥(남) -여럿	여~ 어어어~ 여~ 어어 랑 사	훗소리 반복
	한라26-2 긴사대	-송평우(남) -강원호(남)	오호-허이 어-허 어이요 랑사	훗소리 반복 * 추침사대
	한라27 짜른사대	-강원호(남) -여럿	어기-어랑 서와대야	① 검질→② 경세
	한라28 진사대(김매기)	-송순녀(여) -문윤옥(남) -윤추월(여)	어- 허 - 어이여 랑사	훗소리 반복
	한라29 검질사대	-송순녀(여) -윤추월(여)	사대 헤이에 -이요 랑사 어어 기 -히 -여허-라 아허- 사대-로호고낭 어야뒤야 산이로고나	① 검질→② 한탄→ ① 검질
	한라30 사대(김매기)	-허승옥(남) -문윤옥(남)/ 윤추월(여)	어기-여랑 서와대야	① 검질
대정읍 신평리	한라31 긴 사대	-현이봉(여) -강월선(여) 외	아허기-이여랑 사~대양 아허-어 요랑사-대로다	① 검질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여럿		
	한라32 검질매는사대	-양신생(여)	어기인여랑 서화대야 어긴여리 사대로다	① 검질→② 경세→ ① 검질→② 경세
대정읍 하모리	한라55 검질매는노래	-김축생(여) -라성인(여)	훗소리없음	① 검질→② 생활→ ① 검질
한경면 용수리	한라53 검질매는 소리	-진유세(여) -이하규(여)	어기여~랑 서화대야	① 검질
한림읍 명월리	한라40 검질매는 사대	-김달천(남)	어긴여~랑 시디로~~구나	① 검질
애월읍 수산리	한라35 진사대	-박승정(여)	아~아~으~어~양~아~허어- 어허어어어허어어여 허아 야어혈여리 이이아 사~~데 야	훗소리 반복
	한라36 짜른사대	-박승정(여)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어기~여~랑 상사데~로구 나~양	① 검질
애월읍 납읍리	한라37 검질매는 소리	-진선자(여) -진공옥(여) 외 여럿	아어이야 아어-영어어-야 아에 헤-앵어어- 아-에야 에-영 어-허어도레랑 -헤- 랑 사~대로---구나	① 검질→② 경세
	한라37 썩른사대		어길 여랑 사대로다	① 검질
	한라46 검질매는 소리	-강월선(여)	아여~나여~ 사데~로구나 어기~여랑~사데로~구나	
애월읍 광령3리	한라38-1 검질매는 소리 1. 긴사대	-박선도(여) -이길자(여)	아어이야 아어~영어어~ 야 아에 헤-앵어어~ 아- 에야 에-영 어-허어도레랑 -헤-랑 사~대로~---구 나	① 검질
	한라38-2 2. 짜른사대	-박선도(여) -이길자(여)	어기 이일 도래~~~에랑 사 대로~~간다 어기 이일 나래~~에랑 놀 래로~~간다	① 검질
애월읍 동귀리	한라54-1 검질매는 소리	-양을춘(여)	어~한소리에~이에~에~ 에~ 두점~반씩~~ 매어나~~ 보세	① 검질
	한라54-3까지 2번째 곡 검질매는 소리	-양을춘(여) -양하옥(여)	훗소리없음	① 검질→② 한탄
	한라54-3까지 3번째 곡 검질매는 소리	-고효생(여)	어길영~사대로다	① 검질
	한라54-4	-고이화(여)	어길요~랑 사대로구나	① 검질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검질매는 소리			

1-4. 현장조사

현장조사 중 <검질매는소리>는 2000년 성산읍 삼달리 2곡, 2001년 애월읍 장전리 2곡, 성산읍 삼달리 1곡, 2009년 구좌읍 송당리 2곡, 애월읍 용흥리 1곡, 애월읍 상가리 1곡, 애월읍 어음2리 2곡, 애월읍 납읍리 3곡, 조천읍 북촌리 1곡, 조천읍 교래리 1곡, 구좌읍 하도리 1곡, 성산읍 삼달리 1곡, 애월읍 장전리 4곡으로 총 22곡이다.

표 9 현장조사 수록곡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성산읍 삼달리	사대소리	-강재흡 -미상	어- 요랑 사대	① 검질
	상사디아요 (상사소리)	-강재흡	어형 어허 요로 상사디아 요	② 부모공양/경세 제주도 민요에서 보 기 드문 사설 내용
	아웨기 소리	-강애자	아-아양 에헤양 에헤요	① 검질
	아웨기소리	-강애자	아아아양 에에양 에헤요	① 검질→② 경세/ 한탄
애월읍 장전리	진사대 소리	-고승열	아아어허허야 어허 어허허 영 어허야 허어 어허허 어 야두리랑	① 검질 '추침사대'
	쭈른사대 소리	-고승열 -이순여 외 여 럿	아하 어긴여랑 상사대	훗소리 반복
	사대소리	-고승열	-	① 검질
	권력사대	-고승열	-	
	쭈진사대	-고승열	어길러랑 상사디 어길 어길러랑 성사디아	① 검질
진사대	-고승열	아~ 어~ 야 어~ 야 어~~~ 도리~랑 사데로구나	① 검질	
애월읍 용흥리	검질매는 소리	-강일화	어~어~야 사데로다	① 검질
애월읍 상가리	검질매는 소리	-김무숙	에~어야 사데로다 에~디아 디야로구나	① 검질→② 한탄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애월읍 어음2리	사대소리	-강두옥	어기여랑 사대로구나	① 검질
	사대소리	-강정곤	어기여랑 사대로구나	① 검질
애월읍 납읍리	진사대소리	-진선자	어~ 어~~ 야 아~~ 에~~ 어 ~ 어~ 도리 이~~ 랑 사~ 데로구나	① 검질
	썩른사대소리	-진선자	어기렐어랑 사데로다	① 검질
	꺄역(꺄력)사대 소리	-진선자	-	
조천읍 북촌리	아웨기소리	-윤삼례	아-아-아아아양 예혜양 어 허요	① 검질→② 한탄
조천읍 교래리	썩른 사대소리	-이홍자	아하~야 어어야	① 검질
구좌읍 하도리	아웨기소리	-고순안	-	① 검질 선소리 반복
구좌읍 송당리	아웨기소리	-최계추	아-아-아아아양 예혜양 어 허요	① 검질
	썩른사대	-최계추	아아 어야 사대로구나	① 검질

1-5. 濟州의 鄕土民謠

제주의 향토민요 조사지역은 옛 제주시이고, 수록된 민요 중 <검질매는소리>는 24곡이지만 사대소리16부터는 다른 자료에 있는 것을 사실만 옮겨 놓은 것이라 15곡까지만 분석하겠다.

표 10 제주의 향토민요 수록곡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제주시 도련2동	사대소리 1	김일생(여) 여럿	어기 여랑 사대로다	① 검질→① 7레→ ① 검질
제주시 삼양1동	사대소리 2	유순보(여)	어긴 여랑 사대로다	① 검질
제주시 이호동	사대소리 3	방내보(여)	어긴 여랑 사대로구나	① 검질→② 경세
제주시 영평하동	사대소리 4	유창우(남) 부경제(여)	어야 두야 방에로구나 어기 여랑 성사대야	① 검질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어긴 여랑 사대야	
제주시 월평동	사대소리 5	유신생(여)	어긴 어랑 사대야	① 검질
제주시 건입동	사대소리 6	김태매(여)	어긴 여랑 사대로다	① 검질→② 한탄
	사대소리 7	박순재(여) 여럿	어긴 여랑 사대로다	① 검질→② 처첩/ 한탄
제주시 노형동	사대소리 8	고태욱(남)	어긴 여랑 사대로다 어긴 여랑 상사대야 어야 디야 디야로구나	① 검질
제주시 이도1동	사대소리 9	신공순(여) 문치윤(여)	-	① 검질
제주시 봉개동	사대소리 10	고용문(남) 여럿	어긴 여랑 서대야	① 검질
제주시 봉개동	사대소리 11 긴 사대소리	박은애(여) 여럿	어야 어어- 어, 에헤 어- 여리랑 서대로다	① 검질
제주시 화북1동	사대소리 12	강계생(여) 여럿	에에 여랑 사대로다	① 검질→② 한탄
제주시 화북1동	사대소리 13	강계생(여) 여럿	에이 요랑 사대로다	① 검질
제주시 이호동	사대소리 14	방내보(여)	어- 야 뒤여-랑 사대로구 나 아여- 나여랑 상사대야	① 검질
제주시 영평하동	사대소리 15	유인옥(여) 부경제(여)	어긴여랑 스대야	① 검질→② 탄노→ ① 검질→② 경세→ ① 방에→② 한탄

1-6. 濟州島部落誌

제주도부락지 I 조사지역은 한림읍 명월리, 성산읍 온평리, 남원읍 하례리이고 수록된 <검질매는소리>는 총 6곡이다.

제주도부락지 II 조사지역은 애월읍 납읍리, 애월읍 곽지리, 안덕면 덕수리이고 수록된 <검질매는소리>는 총 5곡이다.

제주도부락지 III 조사지역은 한경면 용수리, 안덕면 창천리, 성산읍 오조리, 대정읍 가파리, 구좌읍 행월리, 구좌읍 연평리(우도)이고 수록된 <검질매는소리>는 총 6곡이다.

제주도부락지 IV 조사지역은 한림읍 귀덕리, 한경면 고산리, 표선면 성읍리, 중문

면 중문리, 구좌읍 동북리이고, 수록된 <검질매는소리>는 총 10곡이다.

제주도부락지 1에서 4까지 수록된 <검질매는소리>는 총 27곡으로 다음과 같다.

표 11 제주도부락지 수록곡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한림읍 명월리	김매는 노래 1	-김원춘(여)	어허여랑 사대로구나	① 검질
	김매는 노래 2	-홍사규(여)	어어어이허야 뒤야로구나	① 검질→② 경세/ 한탄
	김매는 노래 3	-	어긴여랑 서화디아 어긴녀랑 성화디아	① 검질→② 지명
성산읍 온평리	검질매는노래 1	-양송백(여)	중간 어아디아 방아로고나	① 검질→② 경세/ 한탄
	검질매는노래 2	-송금칠(여) -현희주(여)	어기야도리 방에로고나	① 검질→② 애정/ 경세(교환)
남원읍 하례리	김매는 노래	-안시봉(여) -고태평(여)	어기여랑 사대로다 아고두리여 더럼마	① 검질→② 경세/ 한탄(교환)
안덕면 덕수리	김매는노래	-윤추월(여) -박춘화(여)	여기여랑 서아디아	① 검질→② 경세(교 환)
애월읍 곽지리	김매는 노래 1	-강인한(여)	어긴녀랑 사디로구나	① 검질
	김매는 노래 2	-	허긴녀랑 사대야	① 검질
	김매는 노래 3	-장성일(여)	어긴녀랑 사디로가	① 검질
애월읍 납읍리	김매는 노래	-강월선(여)	여기요랑 사대로구나	① 검질
구좌읍 행원리	김매는 노래 1	-김영열(여)	앵헤야 뒤야로구나	① 검질
	김매는 노래 2	-강신자(여)	앵헤야 뒤야로구나	① 검질
	김매는 노래 3	-강미춘(여)	어기야뒤야 방에로구나	① 검질→① 방에→ ② 경세
	김매는 노래 4	-홍복순(여)	앵헤야 뒤야로구나	① 검질→② 탄노/ 경세
	김매는 노래 5	-한기월(여)	어허어뒤야 어허어뒤야	① 검질→② 경세
	김매는 노래 6	-김영월	이야뒤야 방에로구나	① 검질
구좌읍 동북리	검질매는소리 1	-양영수(여) -김은옥(여)	에헤에야 디야로다	① 검질 ① 어업
	검질매는소리 2	-이자생(여) -김완문(여)	아하아양 에헤양 어허요	① 검질
	검질매는소리 3	-양영수(여) -김은옥(여)/ 김대선(여)	앵헤야 디야로다	① 검질→② 탄노/ 애정/방에
표선면 성읍리	김매는노래 1	-현순자(여)	-	선낙각시 ② 처첩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김매는노래 2	-현유생(여)	-	성주풀이 ② 성주풀이 내용
	김매는노래 3	-현남여(여)	아아아향 예용 예야	① 검질→② 시집살이
한경면	김매는노래 1	-박성이(여)	어기여랑 서화대야	① 검질
고산리	김매는노래 2	-고공백(남)	어기여랑 소리야	① 검질
한림읍	김매는 노래1	-홍춘송(남)	어긴녀랑 사대로구나	① 검질
귀덕리	김매는 노래2	-양정옥(여)	어긴녀랑 사대로구나	① 검질

1-7. 제주의 민요

제주의 민요의 조사지역은 옛 제주시, 옛 서귀포시, 구좌읍, 조천읍,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이고, 수록된 <검질매는소리>는 26곡이다.

표 12 제주의 민요 수록곡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옛 제주시 건입동	밭매는 노래(쯔 른사디)	-김태민(여) -이만연(여)	어기여라 사대로다	① 검질→② 애정
옛 서귀 포시 대포동	밭매는 노래(쯔 른사데)	-원두석(여) -김옥련(여)	어긴녀랑 사대로다	① 검질
옛 서귀 포시 보목동	밭매는 노래(진 사데) 밭매는 노래(아 웨이)	-김순향(여) -한진생(여) -한진생(여) -여럿	- 아아아양 예에야어요	① 검질 ① 검질→② 경세
옛 서귀 포시 변환동	밭매는 노래(쯔 른사데)	-강해봉(여) -강미아(여)/ 강기생(여)	아해요랑 사대로다 어양여랑 사대로다	① 검질→② 애정
구좌읍 동김녕리	밭매는 노래(추 침사데) *	-허군이(여) -박순덕(여)	어어항어기야야 귀야로고 나 에행에에야 뒤야로고나 에행어기야 뒤야로구나	① 검질→② 어업/ 경세→① 검질→② 애정→① 검질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어기야뒤야 방에로고나 어기야뒤야 방에로다	
	밭매는 노래(추 침사대) *	-김경성(여) -여럿	어~어야 뒤야로구나	① 검질→② 경세 / 한탄→① 검질→② 애정
구좌읍 송당리	밭매는 노래(아 웨이)	-고순선(여) -여럿	아~아양 에~양어어요	① 검질
구좌읍 덕천리	밭매는 노래(진 사대)	-강인생(여) -정행수(여)	어야뒤야 방에로고나 어고지고 성훼로구나 어양어기야 방에로구나 어야뒤야 사니로구나	① 검질→② 무속관 련/ 경세→① 검질 →② 애정
구좌읍 행월리	밭매는 노래(썩 른사대)	-강민춘(여)	어기야뒤야 방에로구나 어야어야 산이로구나	① 검질→② 애정
구좌읍 선흘1리	밭매는 노래(아 웨이 진소리)①	-김봉옥(여) -강의순(여)	아~아아양~에헤양~어허요	② 경세/ 한탄
	밭매는 노래(아 웨이 썩른소리) ②	-김봉옥(여) -이경제(여)	아~아양 에헤양 어허요	② 무속관련/ 한탄
	밭매는 노래(썩 른사대)③	-김봉옥(여) -김이복(여)	어긴여랑 사대야	② 무속관련/ 경세/ 무속관련/ 경세
애월읍 납읍리	밭매는 노래(썩 른사대)	-김영옥(여) -진봉연(여)	어긴여랑 사데로고냥	① 검질→② 경세
애월읍 장전리	밭매는 노래(중 간노래)	-양춘하(여) -강춘향(여)	어길러랑 성사대 어길러랑 사데로고나 에헤에헤야 뒤야로구나 에헤에헤야 성사데로다 얼화 우겨라 방아로구나	① 검질
한림읍 명월리	밭매는 노래(썩 른사대)	-김달홍(남) -김달천(남)	어긴여랑 사데로고나 어긴여랑 사디로고나 어긴여랑 사데로고나	① 검질
안덕면 덕수리	밭매는 노래(진 사대)	-문윤옥(남) -송평우(남) -윤추월(여)	오호~어여~랑~사	① 검질
남원읍 하례리	밭매는 노래(더 럼마소리)	-안시봉(여) -여럿	어허두리야 더럼마	① 검질
표선면 성읍1리	밭매는 노래(흥 애기)	-조을선(여) -이선옥(여)	음~야~에헤에~에야~흥~	① 검질→② 경세→ ① 검질
	밭매는 노래(아 웨이)	-이선옥(여) -조을선(여)		① 검질→② 경세/ 애정/ 경세
표선면 성읍2리	밭매는 노래(용 천검)①	-정두옥(남) -여럿	에야라데야 에야라데야 방 애방아로다	② 경세/ 애정
	밭매는 노래(담 벌소리)②	-홍복순(남) -여럿	어허어 담벌	② 무속관련/ 경세/ 한탄/ 경세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표선면 가시리	밭매는 노래(용 천검)①	-오창열(여) -김복순(여)/ 안창석(남)	나형어허야 어허잉어허요 로 나허영허야 노리놉세	② 말유희/ 탄노→ ① 검질→② 경세/ 애정
	밭매는 노래(썩 른사대)②	-오이생(여) -여럿	에헤야 방아로구나 영허야 디야로다 에헤야 디야로구나	② 말유희→① 검질 →② 애정/ 한탄→ ① 어업
성산읍 삼달2리	밭매는 노래(담 불소리)①	-강재흡(남) -여럿	어히요랑 담불아 어히요랑 담불	① 검질→② 경세
	밭매는 노래(상 사디아요)②	-강재흡(남) -여럿	어형 어허요로 상사테야요	② 농부/ 부모공양/ 경세 등

1-8. 한국의 민속음악-제주도민요편

한국의 민속음악-제주도민요편은 한국구비문학대계 음원과 새롭게 현지조사를 한 음원을 악보화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수록된 <검질매는소리>는 20곡이다.

표 13 한국의 민속음악-제주도민요편 수록곡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옛 제주 시 삼도동	검질매는소리(1)	-김명선(여)	어건너랑 서화대야	① 검질
	검질매는소리(2)	-김금련(여)	에에야 사대로다	① 검질
조천면 함덕리	사대소리(1)	-이명숙(여) -강순년(여)	어어라 사대로다	① 검질
	사대소리(2)	-이달빈(여)	어야뒤야 산이로다 에야뒤여 사대로다	① 검질
구좌읍 동김녕리	검질매는소리	-허군이(여) -박순덕(여)	에에야 뒤야로고나 에에야 뒤야로다	① 검질
성산읍 수산리	검질매는소리	-박옥생(여) -홍임춘(여)/ 강중호(남)	뒤기여에야 산이로구나 디여테야 산이로구나	① 검질
표선면 성읍리	검질매는소리(홍 애기소리)	-조을선(여) -이선옥(여)	야라에 에--야 흥	① 검질
	검질매는소리	-조을선(여) -이선옥(여)	아-아하 하-야 에-양에헤 요	① 검질
안덕면	긴사대소리	-윤추월(여)	어허 어어어-어 여허랑사	① 검질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덕수리		- 송평우(남)/ 김대옥(남)/ 문 윤옥(남)/ 흥태 규(남)		
	썩른사대소리	-문윤옥(남) - 송평우(남)/ 김대옥(남)/ 흥 태규(남)/ 윤추 월(여)	어기여랑 서화디아	① 검질
대정읍 하모리	긴 사대소리	-김축생(여)	-	① 검질
	썩른사대	-김축생(여)	어기여라 사대로구나	① 검질
한경면 용수리	검질매는소리(1)	-박순이(여) -이화규(여)	어리녀랑 서화대야	① 검질
한경면 고산1리	검질매는소리(2)	-박성이(여) -강일원(여)	어기여랑 서화디아	① 검질
한경면 고산리	검질매는소리(3)	-강병아(여)	어긴여랑 서하대야	① 검질
한림읍 귀덕리	긴스대소리	-김정희(여)	어기여어랑 사대로구나	① 검질
	썩른사대소리	-김정희(여)	어긴여랑 사대로구나	① 검질
한림읍 협재리	썩른사대소리	-홍정량(여) -장만화(여)	어긴여랑서화대야	① 검질
애월	긴사대소리	-	어기여라양 이--어으러-어 어-어어이----에에-에여리 이--이랑 사---대---불 ---렁 산이로구나--	① 검질
	사대소리	-	어긴여랑 사대로구나	① 검질

1-9. 백록어문

백록어문은 1985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학생들이 매해 마을별 학술조사를 실시해 온 보고서를 수록하였다. 보고서에 수록된 민요 중 <검질매는소리>는 94곡이다.

연구자료에 수록된 <검질매는소리>는 총 333곡이다. 학술조사보고서, 마을지는

표 14 백록어문 수록곡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창간호 안덕면 대평리	김 매는 노래	-박춘화(여)	어기여랑 사디로구나 어기여랑 상사디야	① 검질
	김 매는 노래	-이쥬화(여)	어기여랑 상사디야	① 검질
창간호 한림읍 명월리	김 매는 노래	-김원춘(여)	어어허여랑 사대로구나	① 검질
	김 매는 노래	-홍사규(여)	에에에여랑 사대로구나 어어어허야 디야로구나 어여~허야 디야로구나 이여도허 이여도허랑	① 검질 ② 경세
	김 매는 노래	-	여긴녀랑 서화디야 어긴녀랑 어화디야 어긴녀랑 사대로구나 어긴녀랑 성화디야	① 검질→① 어업
5집 남원읍 하례리	김매는 노래	-안시봉(여) -고태평(여)	어기여랑 사테로다 아고기여랑 밧디로다 아고두리여 더럼마 응흐으두리여 더럼마	① 검질 ② 처첩
6집 구좌읍 김녕리	김매는 노래	-김경성(여) -김춘정(여)	어어향어기야 뒤야로구나 어기야뒤야 방에로구나 어어향어기야 뒤야로고나	① 검질→① 어업
7집 한경면 고산리	김매는 노래	-박성이(여)	어기여랑 서화데야	① 검질
	김매는 노래	-고공백(남)	어기여랑 소리아	① 검질
9집 옛 서귀 포시 보목리	검질매는 소리	-이화자(여)	어랑어랑 방에로구나 어랑어랑 멩에로구나 어랑어랑 사대로구나	① 검질
10집 조천읍 선흘리	느진 아웨기	-김봉옥(여) -김형조(남)/ 김봉옥(여)	아하아양에혜양어허요	① 검질 ② 경세
	즈진 아웨기	-김봉옥(여) -김형조(남)/ 김봉옥(여)	아아하아양에혜양허어허요	① 검질 ② 경세
	사데소리	-김봉옥(여) -김형조(남)	어긴여랑 서아데야 어긴여랑 사테로구나	① 검질 ② 경세
10집 봉개동 회천리	검질 매는 소리 (아웨기)	-김병생(여) -임경출(여) 외	아하하양 에혜양어요	① 검질
	검질 매는 소리 (아웨기)	-양순열(여) -김병생(여) 외	어긴어야 방에로구나 아하하양 에혜양어요 어긴여랑 사테로다	① 검질
	검질 매는 소리 (사데소리)	-임경출(여) -김병생(여) 외	어긴여랑 사테로구나	① 검질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검질 매는 소리 (진사데)	-한병양(여)	어허 어허하 어어어 어야 어하기어랑 사데로구나	① 검질
	검질 매는 소리 (썩른 사데)	-고신봉(여) -한병양(여)	여긴여랑 사데로구나 어기여랑 상사대야 에긴여랑 사데로구나 어-긴여랑 사데로구나	① 검질
	검질 매는 소리	-한병양(여) -고신봉(여) -김순생(여)	아아아향에헤양어요	① 어업→① 검질
	검질 매는 소리	-고신봉(여) -한병양(여)/ 강경생(여)	아헤양 어요	② 경세
11집 구좌읍 한동리	검질 매는 소리	-부임삼(여) -김계월(여)/ 김하선(여)	아이야 에이요 어이야 디여로오라	① 검질
	아웨기	-김광자(여) -부옥희(여)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① 어업 ② 경세 ② 한탄
	아웨기	-안두옥(여) -오태수(남)	아아아양 에헤양 어요	① 검질→① 어업 ② 경세
	사데소리	-김광자(여) -부옥희(여)	어야어흥 어야로구나 어양디양 방아로구나	① 검질
12집 애월읍 금덕리	검질 매는 소리	-강옥심 -변문숙 -이국추 -강노성	어야~어어~도래야 사데로 구나 어~도래야 사데로~구나 어야~어어~도래야 사데로~ 구나 어어야~어~도래야 사데로~ 구나 어~어~야~어~ 어~도~래~ 야 사데로~구나 어	① 검질
	검질 매는 소리	-강노성	오~어~도래야 사데로~구나 으~흥 도래야 사데로~구나 어~도래야 사데로~구나	① 검질
13집 구좌읍 송당리	검질 매는 소리 (아웨기)	-고순선(여) -이계선 / 김 경수	아하아아야 에헤양어허어 요	① 검질
14집 대정읍 일과리	검질 매는 소리	-문산옥(여)	-	① 검질
	검질 매는 소리	-김성월(여)	어기여랑 사데 어기여랑 사대야	① 검질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검질 매는 소리	-정영자(여) -이춘수(여)	-	① 검질
	검질 매는 소리	-정달문(남)	-	① 검질
15집	검질 매는 소리	-이춘옥(여)	어기여롱 사대로구나	① 검질
대정읍 상·하모 리	검질 매는 소리	-정연춘(여)	-	① 검질
	검질 매는 소리	-김복순(여) -김복녀(여)	영 어야 디야로구나 영 허야 디야로다 영~어기야 디야로구나	① 검질
16집	검질 매는 소리	-현옥란(여) -김복녀(여)/ 오병주(여)	아 형 허야 디야로구나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아 형 어기야 디야로구나	① 검질 ② 한탄
구좌읍 종달리	검질 매는 소리	-김도원(여) -현봉여(여)	영~허야 디야로구나	① 검질 ② 한탄
	검질 매는 소리	-강경규(남) -강오백(남)/ 김도원(여)	아~어~야 디야로구나 아 형 헤야 디야로구나	① 검질
	발 매는 노래(검 질 매는 소리· 사데 소리)	-박춘화(여)	어기야차 흥애기로다 어기야차 사데로다	① 검질
17집	발 매는 노래(검 질 매는 소리· 사데 소리)	-문사남(여)	어기여랑 사대로구나 어기여랑 사데로다 어기여랑 사데여	① 검질
제주시 외도동	발 매는 노래(검 질 매는 소리· 사데 소리)	-이애숙(여)	이어 이어랑 이어동 허 사 데 이어 이어랑 사대로구나 이어 이어랑 사데로다	① 검질
	발 매는 노래(검 질 매는 소리· 사데 소리)	-양춘자(여)	사데 사데 사대로구나 이어동 허라 이어 이어 이 어동 허라	
	발 매는 노래(검 질 매는 소리· 사데 소리)	-임숙규(여)	영 허야 사데로다 어기 여롱 사대로다	① 검질
	발 매는 노래(검 질 매는 소리)	-고성환(여)	아~야 예~야 예~요	① 검질 ② 사랑?
18·19집	발 매는 노래(검 질 매는 소리)	-김효열(여)	아~양 아예~양 예~요	① 검질→① 어업
남제주군 토산리	발 매는 노래(검 질 매는 소리)	-김창문(남)	어기야 어~음~야~어~허 어 기야~ 어~ 어기야~어~ 음~야~ 어~ 어 기야~ 어~	① 검질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발 매는 노래(검 질 매는 소리)	-김창문(남)	아~양 아헤~ 양 헤~요	① 검질
	발 매는 노래(검 질 매는 소리)	-정춘효(여)	아~양 아헤~양 에헤~요	① 검질
	발 매는 노래(검 질 매는 소리)	-김효열(여)	아~양 아에헤~양 에~요	① 검질
	발 매는 노래(검 질 매는 소리)	-정춘효(여) -김정순(여)	아~양 아에~양 에~요	① 검질
	발 매는 노래(검 질 매는 소리)	-고성환(여)	아~양 에~양 에~요	① 검질
18·19집 북제주군 장전리	검질매는 소리	-고승렬(여)	아하에헤야~~어허야~~허영 어허야 허어어~어허어허~ 허어어 어이 도래랑 사데로고낭 얼싸	① 검질
	검질매는 소리	-양춘화(여)	어~길 혀~라 어~어라 사데 로구나 어~일~혀~라 성 사데	① 검질
	검질매는 소리	-양춘화(여)	에~헤야 어허어허어~ 어흐 어~ 어흐흐야아~ 에 에헤 이헤이헤~ 어~어흐~허~에 헤~하아 어허어허~허허~ 도래 헤이어 호랑 사데~ 로~넘어간다	① 검질
20·21집 표선면 세화리	발 매는 노래(아 웨이)	-현봉화(여) -고경하(여)/ 오순옥(여)/ 송 오생(여)	아아양 에에양 헤에이요	① 검질
	발 매는 노래(아 웨이)	-강신경(여)	아아양 에야에요	① 검질
	발 매는 노래(아 웨이)	-송자길(여)	아아아양 아헤헤양 허어요	① 검질
	발 매는 노래(사 데 소리(짝 른 사 데))	-현봉화(여)	어야 헤엥허야 사데로구나 어야디아 사데로구나	① 검질
	발 매는 노래(홍 애기 소리)	-김성준(남)	아아양 아흐으 아아양 으 흐어요	① 검질
20·21집 한경면 청수리	발 매는 노래	-박명춘(여)	어긴여랑 스아데야 어긴여랑 사데로구나	① 검질
	발 매는 노래	-양희봉(여)	-	① 검질 ② 경세
	발 매는 노래	-양희봉(여)	이여사나 디여사나	① 검질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이여이여 이여도사나 디여사나 이여사나	
	밭 매는 노래	-김이월(여)	어긴 여랑 사데로구나	① 검질
	밭 매는 노래	-임추월(여) -고정효(여)	어긴 여랑 스아데야	① 검질 ② 경세
	밭 매는 노래(쫓 른 사데)	-송금양(여)	어기 여랑 스아데야	① 검질 ② 자연?
	밭 매는 노래(검 질 매는 소리 · 사데 소리)	-김춘선(여)	에에에에에 에어으에에에 에으으 여어어어어으긴 여어 어어으랑 상스데야 아아아아으어에에에에에 에오오오오오으랑 상스데 야 아아아아허어어어야아아 에헤에에에어어랑 상스데 에야 아아아아아양 에헤어어어 어랑 상스데야	① 검질
	밭 매는 노래(검 질 매는 소리 · 사데 소리)	-김숙이(여)	어긴 여랑도 사데로구나	① 검질
	밭 매는 노래(검 질 매는 소리 · 사데 소리)	-김해인(여)	어기 여랑 사데로구나	① 검질
22집 남원읍 신흥리	밭 매는 노래(흥 애기 소리)	-김만권(남)	야 어으어 어기야 흥	① 검질
	밭 매는 노래(아 웨기 소리)	-김만권(남)	아아아양 어어양어허요	① 검질 ② 경세
	밭 매는 노래(느 린사데)	-김만권(남)	아어 허으랑 사데 아어 허어으랑 사데	① 검질
	밭 매는 노래(자 진사데)	-김만권(남)	어 여랑 사데	① 검질
	밭 매는 노래	-양순이(여)	앙 아야 아헤양 어이요	① 검질
	밭 매는 노래	-송복순(여)	앙 아야 에헤야 어요	① 검질
	밭 매는 노래	-김적중(남)	아양 아헤양 헤에요	① 검질
밭 매는 노래	-김진숙(여) -강여순(여)/ 김인열(여)/ 현 숙보(여)/ 송복 순(여)	아 야야 에야 어이요	① 검질 ② 한탄	
23집 애월읍 봉성리	검질 매는 소리 (밭매는 소리-사 데소리)	-강명옥(여)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① 검질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검질 매는 소리 (밭매는 소리-사 대소리)	-문효선(여)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① 검질
	검질 매는 소리 (밭매는 소리-사 대소리)	-강정호(여)	어기여랑 놀래로구나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① 검질
	검질 매는 소리 (밭매는 소리-사 대소리)	-강정호(여)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어기여랑 상사데로구나 어 -	① 검질
	검질 매는 소리 (밭매는 소리-사 대소리)	-강자숙(여)	어허-기 어려어-영 사데 로구나	① 검질
	검질 매는 소리 (밭매는 소리-사 대소리)	-강정수(여)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① 검질→① 어업
	검질 매는 소리 (밭매는 소리-사 대소리)	-강정수(여)	-	
	검질 매는 소리 (밭매는 소리-사 대소리)	-강계출(여)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① 검질
	검질 매는 소리 (밭매는 소리-사 대소리)	-변원경(여)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① 검질
24집 구좌읍 평대리	검질 매는 소리 -사대소리	-고길순(여)	-	① 검질
	검질 매는 소리 -사대소리	-김흥희(여)	-	① 검질
	검질 매는 소리 -사대소리	-오선숙(여)	아아아-에-사데로다	① 검질
25·26집 옛 서귀 포시 중문동 하원마을	검질 매는 소리 (사대소리)	-강신옥(여)	어긴여라 어 사데로다 아아하야하 해에에에여 아아하야하 해에에에에로	① 검질
	검질 매는 소리 (사대소리)	-양순하(여)	어긴여어랑 사데로다	① 검질
	검질 매는 소리 (사대소리)	-강순실(여)	사데로랑 요 검질 매자 어기여어랑 사데로다 여기여어랑 사아데로다	① 검질
	검질 매는 소리 (사대소리)	-김기연(남)	어긴여랑 사데로구나	① 검질
25·26집 옛 서귀	검질매는 소리	-고계순(여)	아아아아 아아아야 오오오 호야 허어어허요	① 검질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사설내용
포서 위미리	검질매는 소리	-오순녀(여)	아아아아아아아야아 이이 이야 이이요	① 검질
	검질매는 소리	-강기옥(남)	어어어어기 사데로다 어어 어기 사데로다 어어어 사데로다 어어어기 사데로다	① 검질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자료분석

제주도 <검질매는소리>의 기존 자료, 현장조사 자료 등에 수록된 곡은 총 336곡이다. 민요명칭으로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밭매는 노래’, ‘김매는 노래’, ‘사대소리’, ‘검질매는노래’, ‘아웨기’, ‘진사데’, ‘쫓른사데’ 등의 순서로 복잡하고 다양하다. 창자는 대부분 여성이고, 남성은 일부분 조사되었다.

<검질매는소리> 종류의 명칭을 정리하자면 우선 자료의 명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조건이다. 기존 명칭에 ‘사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나, 훗소리에 ‘사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사데소리’라고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정리하면 훗소리가 있는 ‘사데소리’, ‘아웨기소리’, ‘상사소리’, ‘흥애기소리’, ‘담벌소리’, ‘더럼소리’, ‘용천검’로 정리할 수 있고, 훗소리가 없는 ‘선낙각시’, ‘성주소리’로 정리할 수 있다. 훗소리 양상으로 볼 때 사데소리, 아웨기소리, 상사소리, 흥애기소리, 담벌소리, 더럼소리 등 명확히 구분이 된다. 그런데 사데소리는 훗소리가 다양하다.

2-1. 사데소리 훗소리 분석

사데소리의 훗소리는 모두 여음+사설로 되어있고, 길이로 매우 긴 것부터 매우 짧은 것까지 존재한다. 민요가 채록된 자료를 볼 때 조사자 혹은 기록자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기록이 될 수 있다. 소리 발성을 세밀하게 기록하기 위해 다양한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단어를 여러번 반복하여 기록할 수도 있지만 길게 부른 것을 사설 전달에 중점을 두고 짧게 기록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짧게 부른 것을 길게 기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민요 기록자는 가능한 노래의 길이를 글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출현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들을 뽑아 보면 ‘어긴너랑 사데로다’. 혹은 ‘어기여랑 사데로구나’이다. 이것을 길게 부를 것인가, 짧게 부를 것인가에 따라 유형이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출현 빈도수가 높은 것부터 따지면 ‘엉허어야 뒤야로구나’, ‘아어나여 산이로구나’, ‘어기여랑 서하데야’, ‘어야뒤야 방에로구나’ 정도이다.⁴⁹⁾

표 15 사데소리 훗소리 양상

민요명	세분류명	훗소리
진 사데소리	-	어~야 어흐어~ 어어흐야~ 어허- 어허야~ 어허어- 어~어어야- 어어허- 어허야 아아아 어- 야 어기여~ 어러러으~양 스~데- 로~구나~
검질매는 소리	긴사대	아어이야 아어~엉어어~야 아에 헤-앵어어~ 아-에야 예-영 어-허어도레랑 -헤-랑 사~대로~---구나
검질매는 소리	-	아어이야 아어-엉어어-야 아에 헤-앵어어- 아-에야 예-영 어- 허어도레랑 -헤-랑 사-대로---구나
진사대	-	아~아~으~어~양~아~허어-어허어어어허어어 허아아어혈여리 이이야 사~데야
밭 매는 노래	진 사대	어허~야 어~영 어허~허허 어허~허 어허~허어 어야 어~어 열 두리야 사데로구나
밭 매는 노래	진 사대	아허야~어~영 어허~영 어허~어~영 어~형 어허~영~영 일도리랑 사~데로고냥
밭 매는 노래	-	어허~ 어허~허어어 어허~어~어허 어허~ 예헤~랑 사데~로고냥
검질매는 소리	-	어~한소리에~이에~에~에~ 두점~반씩~ 매어나~보세
짜른사대	-	어기~여~랑 사~데~로구~나어기~여~랑 상사데~로구나~양
검질사대	-	어어 기 -히 -여허-라 아허- 사대-로호고냥
밭 매는 노래	진 사대	이야엘~싸~에에 예에~야 여래~야 사데~로다
검질매는 소리	짜른사대	어기 이일 도래~~에랑 사대로~~간다
검질매는 소리	-	어기 이일 도래~~에랑 사대로~~간다 어기 이일 나래~~에랑 놀래로~~간다
사데소리	진사대	허야~허야~ 으~ 아~ 사데~로구나
사데소리	-	어기~여랑~ 스~데-로~구나~

49) 훗소리 출현 빈도수가 하나인 경우, ‘어야뒤야 황하로구나’, ‘어기여랑 소리야’ 같은 경우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쫄른 사데소리	-	어여~ 나여~랑 사데로~구낭~
밭 매는 노래	진 사데	아허~ 여어랑사
긴 사데	-	여~ 어어어~ 여~ 어어 랑사
긴 사데	-	오호-허이 어-허 어이요 랑사
진사데(김매기)	-	어- 허 - 어이여 랑사
검질사데	-	사데 헤이에 -이요 랑사
김매는 노래	-	오호~어여~랑~사~
밭 매는 노래	중간 사데	어길여랑 성사데
김매는 노래	-	어기여라 사데로다
김매는 노래	-	어긴녀랑 사디로다
사데소리	-	어기여리나 사데로고나
진 사데소리	-	아~ 어기여랑 사데로당
진 사데소리	-	어~기여~랑 사~데야
진 사데소리	-	어기여~랑 스데야
사데소리	-	어기여랑 스데야
밭 매는 노래	진사데	어야두야 사데로구나
밭 매는 노래	-	형~허야 사데로구나
밭 매는 노래	진사데	아~어기여라 사데
밭 매는 노래	쫄른 사데	어긴여랑 사데로구나
밭 매는 노래	-	오긴여랑 사데로구나
밭 매는 노래	-	여길여랑 사데로고나
밭 매는 노래	-	에행에헤야 성사데로다
밭 매는 노래	중간 사데	어길여래랑 사데로고나
밭 매는 노래	쫄른 사데	어기여래랑 사데로구낭
밭 매는 노래	쫄른 사데	아허가두여랑 사데로고낭
밭 매는 노래	쫄른사데	아 어일여랑 사데야
밭 매는 노래	쫄른사데	아해요랑 사데
사데소리	-	어- 요랑 사데
밭 매는 노래	막바지 사데	에요랑 사데
김매는 노래	-	어어향어기야 뒤야로고나
밭 매는 노래	사데소리	영허야 뒤야로구나
밭 매는 노래	-	형~허야 디야로구나
밭 매는 노래	쫄른 사데	앵헤야 디야로구나
밭 매는 노래	-	에행에헤야 뒤야로고나
검질매는 소리	-	영~어허양 뒤야로구나
검질매는 노래	사데	영~어야 뒤야로구나
검질매는 소리	-	영~어허야 뒤야로고나
김매는 노래	-	어어어이허야 뒤야로구나
김매는 노래	-	앵헤야 뒤야로구나
검질매는소리	-	에헤에야 디야로다
김매는 노래	-	어야뒤야 산이로다 영허어야 뒤야로다

		어야뒤여 사대로다 어기영어기 사디로다
김매는 노래	-	어여뒤에랑도 사니로고나
김매는 노래	-	어긴녀랑 사니로고나
김매는 노래	-	어기야~ 산이로고나
밭 매는 노래	-	어야뒤야 산이로구나
밭 매는 노래	썩른 사데	어기여데여 산이로구나
밭 매는 노래	-	어기양허기 산이로구나
검질매는 소리	-	어야~디아~산이로구나
밭 매는 노래	진 사데	아어나여 산이로구나
검질사데	-	어야뒤야 산이로고나
김매는 노래	-	어기여랑 서와디아
김매는 노래	-	어긴녀랑 서화디아
김매는 노래	-	어긴녀랑 서화디아
김매는 노래	-	어어허랑 서아디아
밭 매는 노래	썩른 사데	어긴여랑 서하데야
김매는 노래	-	어화낭창 방아로다
밭 매는 노래	진 사데	어야뒤야 방애로고나
밭 매는 노래	-	어양아기야 방애로구나
검질매는 소리	-	아여~나여~ 방애로구나
검질매는 소리	-	아여~나여~로 방애로구나
밭 매는 노래	-	어가녕창 방아로구나
김매는 노래	-	어기야뒤야 방애로구나

여기서 ‘어야뒤야 방애로구나’는 가창방식 중 선후창에서 나타나는 훗소리가 아니다. 독창인 경우에 선소리와 훗소리를 반복하면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선소리 즉 사설만 부르다가 중간 중간에 한번 정도 훗소리를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어야뒤야 방애로구나’는 훗소리로 고정된 경우보다 독창인 경우나 교환창에서 여러 훗소리 중 하나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전체 사설 또는 훗소리 중 출현 빈도수 많지 않고 제한적인 경우이다. 그래서 사데소리의 훗소리 유형을 다시 정리 하면 ‘사데’, ‘뒤야로구나’, ‘산이로구나’, ‘서하데야’로 나뉘 볼 수 있다.⁵⁰⁾

여기서 ‘뒤야로구나’와 ‘산이로구나’는 다른 사데소리와는 조금 다른 음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뒤야로구나’는 ‘멜후리는소리’의 훗소리 앞부분과 ‘사데소리’의 훗소리 뒷부분이 만나 형성된 변이 형태로 보인다.

사데소리는 민요 명칭으로 보면 ‘진(긴) 사데’, ‘썩른(짜른) 사데’, ‘막바지 사데’,

50) 사데소리 훗소리 유형을 편의상 여음+사설 중 사설을 명칭으로 삼겠다.

‘근력(꺾역)사데’, ‘추침사데’로 나타난다.

2-2. 아웨이소리 훗소리 분석

아웨이소리 훗소리는 여음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아아~아양 에헤양어허허요’ 이외에 다른 형태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웨이소리 유형은 훗소리로는 구분할 수 없지만 명칭으로 진아웨이소리, 짝른아웨이소리로 나눌 수 있다.

아웨이소리는 ‘서우제소리’의 훗소리와 ‘사데소리’의 선소리가 만나 만들어진 서우제소리의 변형일 수도 있고, 사데소리의 변형일 수 있다. 민요가 가지고 있는 개방성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민요라고 할 수 있다.

표 16 아웨이소리 훗소리 양상

민요명	세분류명	훗소리
김매는 노래	아웨이	아아~아양 에야에~요
서우젯소리	아외기소리	아~아아야에~에에요
아웨이 소리	-	아아 아아양 에헤양 어허요
아웨이 소리	-	어어어양 어허허양 어허허요
검질 매는 소리	-	아아아양 어허허양 어허허요
밭 매는 노래	진 아웨이	아~아아양~에헤양~어허요
밭 매는 노래	짝른 아웨이	아~아양 에헤양 어허요
검질매는 소리	-	아아아양 에~에요어어요
아웨이	-	아~아아양 에헤양에에요
김매는 노래	-	아하아양 에헤양 어허요
김매는 노래	-	아아아향 에용 에야

2-3.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검질매는소리> 훗소리 분석

민요의 기능은 다양하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검질매는소리> 중 사데소리와 아웨이소리는 그 기능이 발매는 노동요 하나인 것과 다르게 ‘흥애기소리’, ‘더럼소리’, ‘상사소리’, ‘담불소리’, ‘용천검’은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요이다. 이

민요들은 기능이 다르다고 변이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유사한 형태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습이다.

표 17 흥애기, 더럼소리, 상사디야요, 담불소리, 용천검 훗소리 양상

민요명	세분류	훗소리
김매는 노래	흥애기	음~야~에헤에~에야~흥~
밭 매는 노래	흥애기	음~야헤~허으기야~흥~
밭 매는 노래	흥애기	음-야어~ 어허기야 흥~
밭 매는 노래	흥애기	음~ 야~ 어~ 어기야 흥~
흥애기	-	야아헤~~에야 흥~
김매는 노래	더럼소리	어야두리아 더럼마야
밭 매는 노래	더럼소리	아영~허 두리아 더럼아
김매는 노래	-	아고두리여 더럼마
밭 매는 노래	상사디야요	영형 어허요로 상사디야요
밭 매는 노래	상사디야요	헤엥 헤헝 어허요로 상사디야요
밭 매는 노래	담불 소리	어허요랑 담불아
밭 매는 노래	담불소리	어허어 담벌
밭 매는 노래	용천검	에야라테야 에야라테야라 방애방아로다

흥애기소리는 ‘밭매는흥애기’, ‘출비는흥애기’, ‘진토굿소리’, ‘툽질소리’, ‘나무내리는소리’, ‘도깨질소리’, ‘곰베질소리’, ‘방앗돌굴리는소리’ 등 다양한 노동현장에서 불려지고 있다. 흥애기소리는 모두 동일한 소리라는 것은 아니다. 훗소리에 ‘흥’이라고 하는 공통점에서 이 민요들을 ‘흥애기’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⁵¹⁾ 더럼소리는 ‘흑병에부수는소리’, ‘밭매는노래 더럼소리’ 이다. 상사소리는 창민요, 논농사요, 밭농사요 등에서 불려진다. 담불소리는 굿 현장에서 주로 불려지는 민요이다. 용천검은 창민요로 주로 불려지는 민요이다.

제주도 <검질매는소리>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밭매는 노동이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노동의 시간이 매우 길었을 수도 있다. 노동현장이 힘들고 지루하고 지친 곳이 아닌 즐겁고 흥겨운 현장이어야만 했을 수도 있다. 제

51) 양영자, 앞의 책, 2017, 35쪽, 참조.

주도 <검질매는소리>를 도형화하면 다음과 같다.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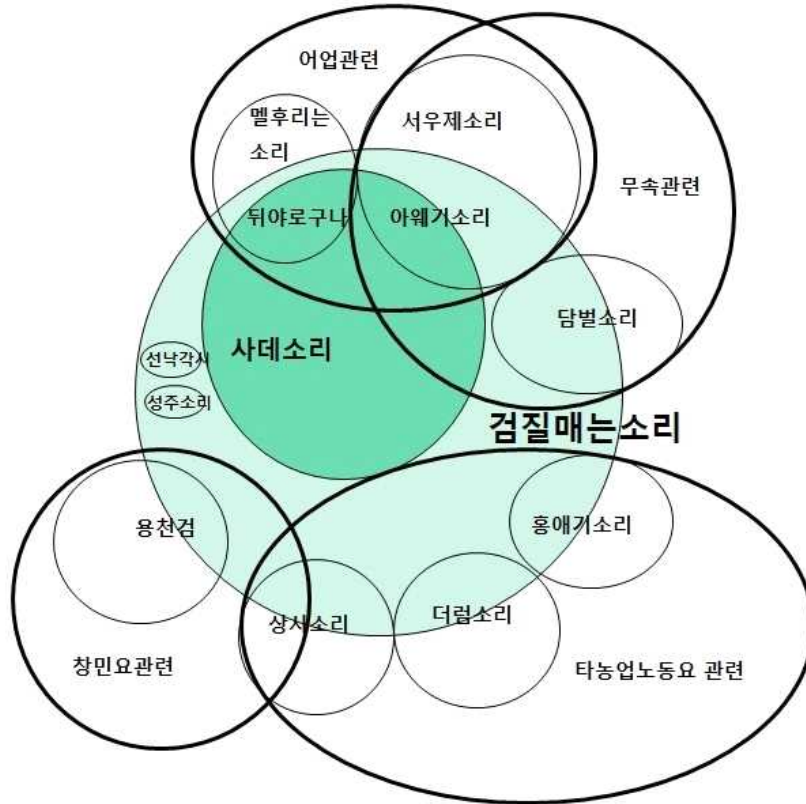


그림 2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유형 도형화

연한 연두색 원은 전체 <검질매는소리>이다. 진한 연두색 원은 사데류로 다른 노동 현장에서 불러지지 않고 오직 발매는 노동 현장에서만 불러진다. 나머지는 교집합을 보여주는 것인데 같은 원 안에 두 개의 민요명이 있는 경우는 연한 연두색 원에 있는 경우와 그 밖에 있는 경우가 서로 명칭과 기능이 다른 경우이다. 같은 원 안에 민요명이 하나인 경우는 동일한 명칭으로 발매는 현장과 그 밖의 현장에서 불러지는 것을 말한다.

52)

Ⅲ. <검질매는소리>의 유형과 실제

1. <검질매는소리>의 유형 분류

제주도 <검질매는소리>의 전승양상을 밝히려면 우선 <검질매는소리>의 유형을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민요의 개체요를 결정짓는 요인은 첫째 제보자가 부여한 명칭으로 결정하는 경우, 이는 민요가 구연되는 현장에서 인식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둘째 조사자가 부여한 명칭으로 결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하다 보면 현장과 기록의 명칭이 달라 많은 부분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웃 마을과 같은 노래인데도 다른 명칭을 불러져 서로 동일한 노래를 다른 노래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다. 이런 경우 조사자가 부제를 달거나 혹은 명칭을 이미(異味)로 정하는 경우이다. 셋째 통상적인 명칭인 경우, 이런 경우는 기능적인 의미가 강하다. 어떤 민요이든 상관없이 김멜 때 부르기 때문에 <검질매는소리> 혹은 <사데소리>라고 하는 경우를 말한다. 민요의 명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민요의 개체요 유형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많은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제주도 <검질매는소리>의 유형 분류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발매는 노래 : 검질매는 소리, 사데, 사디, 흥애기, 아웨기, 상사소리, 더럼소리, 더럼마소리, 담별소리, 담불소리⁵³⁾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유형을 좀 더 자세히 분류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53) 김영돈, 『濟州島民謠研究(下)-理論篇』, 민속원, 2002, 99쪽.

.사대소리(사디소리): 짝른사대

 중간사대

 진사대 - 식굽이사대

 닉굽이사대

 추침사대

 막바지사대

.아웨이 - - - 아웨이 짝른소리(짝른아웨이)

 아웨이진소리(진아웨이)

.흥애기(검질매는흥애기)

.담벌소리(담불소리)

.더럼소리(더럼마소리)

.상사소리(상사디야요)⁵⁴⁾

이렇게 사대소리를 다시 다섯 유형으로 나누고 아웨기는 두 개의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외 흥애기, 담벌소리, 더럼소리, 상사소리 이렇게 총 11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사대소리는 가락의 빠르기에 따라 <짝른사대>, <중간사대>, <진사대>로 나뉘며, <진사대>는 다시 <식굽이진사대>, <닉굽이진사대>로 나뉜다. <식굽이진사대>는 숨을 크게 세 번 내쉴 동안 즉, 세 굽이로 엮어 부르는 소리이고, <닉굽이진사대>는 네 굽이로 엮어 부르는 소리로 가락이 매우 길고 유장하며 장식음이 발달되어 있다. 가락이 기교적이어서 <진사대>는 가창능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다.⁵⁵⁾ <검질매는소리> 유형 분류에서 용천검이 빠져있다.

조금 다른 기준으로 분류한 것은 이소라의 <검질매는소리> 분류이다.

 긴 검질소리, 짧은 사대소리, 아웨이, 흥애기, 방애, 디여로고나, 기타(더럼소리, 상사소리, 담불소리)⁵⁶⁾

54) 양영자, 앞의 논문, 2007, 171쪽.

55) 양영자, 「제주도 <사대소리>의 존재양상과 의미」, 한국민요학회 제20집, 한국민요학회, 2007.

56) 이소라,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총서 38 『나요당 기증 제주민요 자료집-음원·악보-』,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8. 36쪽~47쪽.

이소라는 <검질매는소리> 분류에서는 <긴 검질소리>, <짧은 사대소리>, <아웨이>, <흥애기>, <방애>, <디여로고나>, <기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점은 <방애>, <기타>로 분류된 민요이다. 이소라의 '방애'의 경우는 다양한 훗소리 중 반복되는 훗소리의 소리를 대표로 인식하여 명칭한 것으로 보이나 음원을 확인한 후, 이 경우는 가창자가 혼자서 소리를 하다 보니 훗소리가 없어 선소리 중 반복되는 가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모두 <썩른 사대소리>이다. 그리고 '기타' 역시 훗소리 없이 가창자가 혼자서 소리를 하는 경우인데 선소리에서 반복되는 가사가 없어 민요 명칭이 생략된 것이다. 이 중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한라 57번의 음원인 추자도 발 매는 소리는 훗소리 없이 소리가 진행되며 그 내용은 시집살이와 동일하고 전라남도 함평리 발매는 소리와 유사하다. 여기서 추자도 민요를 제주도 민요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추자도는 제주도라고 할 수가 없다. 단지 1946년에 행정적으로 제주도에 속하게 되었다. 추자도는 조선시대에는 전라도 영암군의 월경지인 이진진(梨津鎭, 현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에 속하였다(대동여지도 참고). 1896년에 전라남도 완도군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에 전라남도 제주군에 편입되었고, 다시 1946년에 제주도와 함께 미군정의 군정법령 제94호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제주도에 속하게 되었다. 이런 관계로 추자도 민요는 논외로 하겠다.

민요의 명칭은 현장에서 불리는 명칭을 기본으로 놓고 첫째 훗소리의 사설, 형태를 중심으로 분류를 하고자 한다. 둘째 음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민요의 음구조가 동일한 지 확인하여 민요를 분류한다. 단 훗소리의 사설이 다른 경우 하위 분류로 둔다.

이런 기준으로 분류한 <검질매는소리> 유형은 다음과 같고, 앞서 설명한 <검질매는소리> 분류에 한 두 가지 추가한 형태가 된다. 여기서 문제점은 사대소리이다. 사대소리가 우선적으로 불려지는 지역에서는 진사대소리의 길이가 워낙 길어 조금만 짧아져도 썩른사대라고 부른다. 하지만 사대소리가 우선적으로 불리지 않는 지역에서의 진사대소리와 썩른사대소리의 길이는 우선지역에 비해 매우 짧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의 <검질매는소리>를 이해하기에 약간의 혼동이 온다.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도 있지만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유형의 보편성이다. 그래서 지역적 특수성보다 통합적 관점에서 보편성을 우선시하여 전반적인 기준에

서 사데소리의 길이에 따라 분류를 하겠다. 아웨기류 역시 길이에 따라 진아웨기와 짝른아웨기로 나눠 분류를 하였다. 공유민요는 둘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민요를 말한다. 민요에는 패쇄성과 개방성 이 두 가지 성격이 공존한다. 민요의 패쇄성은 사데류처럼 다른 노동현장에서 불려지지 않는 것과 같다. 하지만 사데류나 검질매는소리 전체를 볼 때 다른 민요를 받아드리면서 새로운 민요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의 개방성으로 공유민요라 하였다.

▶ 사데류

(1) 진사데소리

- ① 굽이진사데소리 (식굽이, 닉굽이 통합)
- ② 중간진사데소리(중허리사데)
- ③ 진사데소리 - 사데
 - 산이로구나
 - 여어랑사

(2) 짝른사데소리

- ① 짝른사데소리 - 사데
 - 산이로구나
 - 서하데야
- ② 뒤야로고나
- ③ 막바지사데소리

(3) 추침사데소리

▶ 아웨기류

(1) 진아웨기소리

(2) 짝른아웨기소리

▶ 발매는흥애기소리

▶ 공유민요⁵⁷⁾

(1) 상사소리(상사디야요)

57) 공유민요는 2개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요를 뜻하고 이 논문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명칭이다.

- (2) 담별소리
- (3) 더럼소리
- (4) 용천검
- ▶ 기타민요⁵⁸⁾
- (1) 성주소리
- (2) 선낙각시

제주도 <검질매는소리>의 종류는 대분류 사데류, 아웨기류, 발매는흥애기소리, 공유민요, 기타민요 이렇게 5개로 분류하였다.

중분류로 사데류는 진사데소리, 짝른사데소리, 추침사데소리로 나누고 다시 진사데소리는 굽이진사데소리 (식굽이, 닉굽이 통합), 중간진사데소리(중허리사데), 진사데소리로 분류하였다. 짝른사데소리는 짝른사데, 뒤야로구나, 막바지사데소리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추침사데소리는 별도로 분류하였다. 진사데소리는 훗소리 사설에 따라 ‘사데’, ‘산이로구나’, ‘여어랑사’로 3개의 하위분류로 나뉘었다. 짝른사데소리는 훗소리 사설에 따라 ‘사데’, ‘서하데야’, ‘산이로구나’로 3개의 하위분류로 나뉘었다. 아웨기류는 진아웨기소리, 짝른아웨기소리로 2개를 중분류 나뉘었다. 발매는흥애기소리는 별도 분류하였다. 공유민요는 하나의 민요가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로 상사소리, 담별소리, 더럼소리, 용천검 이렇게 총 5개 중분류로 나뉘었다.

기타민요로 김매는노래로 명칭이 부여된 민요이지만 그 성격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성주소리’, ‘선낙각시’이다.

그리고 음원을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장에서의 명칭과 훗소리 모습이 비교적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는 세분류가 되지 않는 사데류, 세분류가 되지 않는 아웨기류로 분류하였다.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검질매는소리>는 사데류이다. 그렇지만 사데류 모든 유형이 한 지역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사데류 다음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아웨기류이다.

제주도 지역별 분포 양상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58) 기타민요는 발매는 노래라고 명칭이 부여 하였지만 극히 일부분 자료에서 나타나는 민요로 이 논문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명칭이다.

표 18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분류표

지역	종류	사데류										아웨기류			발매는홍				기타민요				
		하위분류가 안되는 사데	진사데소리 굽이진사데	중간진사데(중허리사데)	사데	산이로구나	여여량사	쫄른사데소리 사데	산이로구나	서하데야	뒤야로구나	막바지사데	추참사데	하위분류가 안되는 아웨기	진아웨기	쫄른아웨기	발매는홍에기소리	상사소리	담별소리	더림소리	용천검	성주소리	선낙각시
조천읍	신촌리				○			○						○									
	조천리				○▲★									●○									
	선흘리				○			○▲		▼		○		○▲	○▲▼								
	함덕리				★																		
	북촌리													◆◀									
	교래리													◆	◆								
구좌읍	김녕리				◀●												○						
	행원리							○▲◆															
	덕천리				○▲									○									
	송당리													○◆◀	◆								
	하도리				○									○◆		○							
	말정리				○																		
	동복리							◆						◆									
	한동리	▼												▼	▼								
	종달리																						
	팽대리	▼																					
성산읍	온평리				◆			◆	○					○◆									
	삼달리				●○	○		◆○						◆○		○	○◆	○▲					
	성산리													◆									
	수산리				●■			■	★				■	●		★							
	신양리													●									
오소리				●																			
우도면		■		●																			

지역	종류	사태류										아웨이류				공유민요				기타민요	
		하위분류가 안되는 사태	진사태소리			쭈른사태소리				추참사태	하위분류가 안되는 아웨이	진 아웨이	쭈른 아웨이	발매는 흥에 소리	상사소리	담별소리	더럼소리	용찬검	성주소리	선낙각시	
표선면	성읍리								*					◀●○ ▲★■ ◆	◀●○ ○▲ ■★	○■	○▲		◀○▲	◆	◆
	가시리				○					○▲				○	○	○			○▲		
	토산리													▼							
	세화리													▼	▼						
남원읍	신흥리				○▼						○▼		▼	○		○▼					
	하례리	▼			◆									◀○					◀○▲		
	수망리													■							
	위미리									▼				▼							
서귀포시	옛 서귀포시		●		●									●		●					
	보목동	▼								▲				▲							
	여태동																				
	대포동									▲											
	법환동									▲											
	효돈동																				
	하례동				●																
	중문동	■▼								▲				■▼							
	천지동													●							
안덕면	상천리																				
	대평리	▼			○																
	덕수리	☆	◀●○		◀●▲		○★●	◀○		◆★		○									
대정읍	하모리	▼	◀		◀●★					◀★											
	산평리		◀●○		●					◀		○		◀							
	가파리																				
	영락리	■																			
	일과리	▼																			
한경	고산리		○		◀★			○★◆					◆▼								
	용수리				●★			▼					○★								

지역	종류	사태류											아웨이류				발매				공유민요				기타민요	
		하위분류가 안되는 사태	진사태소리			쭈른사태소리					추참사태	하위분류가 안되는 아웨이	진 아웨이	쭈 아웨이	큰 아웨이	상사소리	담별소리	더럼소리	용천검	성주소리	선낙각지					
		굽이진사태	중간진사태(중하리사태)	사태	산이로구나	여야랑사	사태	산이로구나	서 하 데야	뒤야로 고나		막바지사태														
	일평동				■																					
	정실				■																					
	이도동				■																					
	봉개동	■	■		■																					
	용강동													■												
	화북동				■																					
	아라동				■ ■																					
	외도동	▼																								

◀ 한국구비대계 9-1 ~ 9-6 / ○ 한국민요대전 제주도 민요 / ● 나요당기증 제주민요 자료집 / ◆ 현장조사 / ■ 제주의 향토민요(옛 제주시)
 / ◇ 제주도부락지 / ▼ 백록어문 / ▲ 제주의 민요 / ☆ 학술조사보고서 / ★ 한국의 민속음악 / ■ 마을지

2. <검질매는소리>의 유형별 특징과 실제

2-1. 사데류

<검질매는소리> 중 사데류의 분포가 가장 높다. 제주도 <검질매는소리>의 사데류는 진사데소리와 짚사데소리 그리고 추침사데소리로 분류하였다. 진사데소리는 굽이진사데소리, 중간진사데소리, 진사데소리로 다시 분류하고 짚사데소리는 짚사데소리, 뒤야로고나, 막바지사데소리로 다시 분류하였다. 추침사데소리는 제주도 민요에서는 보기 쉽지 않을 정도 독특한 형태이고 유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라 별도로 분류하였다.

민요의 여러 특징 중에 동일한 민요를 빠르기만 다르게 하여 불리는 경우가 많다. 제주도 민요 중 대표적인 민요로 손꼽히는 ‘서우제소리’도 그러하다. 빠르기를 다르게 하여 서우제소리, 짚서우제소리로 나뉜다. 이런 현상은 민요에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노동요인 경우에는 노동의 강도에 따라 혹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민요의 빠르기를 다르게 하여 부르기도 한다.

<검질매는소리>는 작업 시간에 따라 노래의 가락이 달라진다. 아침에는 작업이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진사데소리를 부르고, 오후에는 일을 서둘러 마무리하자는 뜻에서 짚사데소리를 부른다. 느린 박자에는 느린 동작, 잦은 박자에는 빠른 동작에 맞춰 부름으로써 노래가 노동의 완급을 조절한다. 노동의 박자와 노래의 박자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⁵⁹⁾

㉓ 진 사데 (한림읍 명월리 민요)

어긴~여~랑 사데~로~다

검질~짓~고 골넙~는밧딤

㉔ 짚 사데 (한림읍 명월리 민요)

어긴여랑 사데로구나

검질짓고 골넙은밧딤

59) 양영자, 탐라문화학술총서 6집 『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 도서출판민속원, 2007, 349쪽.

㉔ 진 사데(애월읍 고성리 민요)

A 사데불령 검질매자

AB 어허~ 어허~ 허어어 어허~어~어허 어허~에헤~랑 사데~로고낭

A 아아

AB 어~야 어~허~영 어허 에헤~어허~허어~ 어어어 어허~어~영 에~도리랑 사데로고
낭

A 사데로다 놀래로다

AB 어형~영 어허~ 어허~ 허~허~영 어허~어~영 에~도리랑 사데로고낭

[아, 이떡이 웬떡이나, 모시리떡이나, 초시리떡이나 (청취불능) 스대짱 망월이나, 한
국땅 (청취불능)이나 아, 열싸!]

㉕ 중간 사데(애월읍 고성리 민요)

AB 어길여래랑 사데로고나

AB 어가여래랑 사데로고나

㉖ 썩른 사데(애월읍 고성리 민요)

앞명애랑 들어나오라 / 어기여래랑 사데로고낭

뒷명애랑 나고나가라 / 어기여래랑 사데로고낭

이렇게 사설로만 봐서는 민요의 특징을 알 수 없다. 제시한 사데소리의 음원을 확인한 결과 모두 진사데소리이다. 현장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민요의 명칭이 달라 혼동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㉔애월읍 고성리 민요 (굽이)진사데소리는 소리의 유장함을 표현하고자 물결 무늬를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㉕애월읍 고성리 민요 중간 사데, ㉖애월읍 고성리 민요 썩른 사데는 얼핏 보기에 큰 차이점이 보이지 않지만 음원을 들어보면 빠르기의 차이 크다. [] 대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추침사데소리이다. (3) 추침사데소리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1) 진사데소리 유형

① 굽이진사데소리

진사데소리는 민요 전승 주체인 가창자가 쯤른사데소리와 구별하기 위하여 민요의 명칭을 말할 때 진사데소리라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하지만 진사데소리라고 하면 소리의 굽이가 식굽이진사데소리, 닉굽이진사데소리는 되어야 진사데소리라 할만 할 것이다. 그래서 가장 느린 진사데소리를 굽이진사데소리로 분류하였다. 굽이진사데소리는 각 절 또는 훗소리의 길이가 23초~1분13초까지 그 차이가 많이 나지만 진사데소리의 훗소리 길이 9초 미만이고, 중간진사데소리는 12초 쯤이다. 이렇게 보면 각 유형별 훗소리의 길이는 확연히 구분이 된다.

굽이진사데소리는 사데류에서 가장 긴 소리이다. 식굽이, 닉굽이 이런 식으로 다시 나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차이가 명확하지 않아 굽이진사데소리로 통합하여 분류하는 것이 맞다. 보통 굿거리 한 장단을 한 호흡으로 부른다면 식굽이는 3호흡이 있는 것이고 닉굽이는 4호흡이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음구조는 비정형이고 규칙성이 없다. 음을 길게 끌기와 시김새가 화려한 특징이 있다. 가창방식은 독창, 합창, 제창, 교환창 모두 나타난다.

㉞ 제주시 해안동 <진 사데소리>⁶⁰⁾

어--야 어허어~ 어어흐야~ 어허- 어허야- 어허어- 어~어어야~ 어어허- 어허야
아아아 어- 야 어기여~ 어러려오~양 스데-로~구나~

㉞번은 진사데소리라로만 명칭이 되어 있지만 음구조와 소리의 길이를 따져 봤을 때 굽이진사데소리이다. 여음구를 길게 부르다가 마지막에 ‘스데-로~구나~’라고 사설을 하면 훗소리로 넘어가는 형식인데 사실 선소리와 훗소리가 동일한 경우가 많아 선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훗소리 구성은 여음구+사설구로 되어있다.

㉟ 애월읍 금덕리 민요 1 <진 사데(발 때는 노래)>⁶¹⁾

60) 『대계 9-4』, 576쪽~577쪽.

61) 『대전』, 327쪽~328쪽.

바람은 간들간들 어허~영 어허~ 어허~영 어허~허어 어야 어~어~영 어일 두리야 사데로구나

아허~야 어~영 어허~허허 어허~허 어허~허어 어야 어~어 얼 두리야 사데로구나

어허~야 어~어허~어 어허~허어 어허~허어 어~양 얼 두리야 사데로구나

어허~양 어~허 어허~허 어허~허영 어허~어허 어~양 어~형 얼 두리야 사데로구나

어허~어~야 어허~영 어허~ 어허~허어 어허~허어 어양 어~얼 두리야 사데로구나

㉔번은 <진 사데(밭 매는 노래)>로 소개하고 있지만 굽이진사데소리이다. 이 굽이진사데소리는 가창방식이 합창이다. 여음구가 반복되다가 끝부분에 ‘두리야 사데로구나’라고 사설이 있다. 훗소리는 여음구+사설구 이렇게 구성된 모양새이다. 각 절마다 여음구가 매우 미세하게 다르게 전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소리를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소리가 합창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매우 크다. 이렇게 길고 사설이 없는 노래를 합창으로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가창자 모두 시김새를 동일하게 구연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 함께 소리를 해 온 것을 말한다. 보통 굽이진사데소리는 ㉔번과 같은 형태가 대부분인데 간혹 유달히 사설을 많이 붙여 부르는 경우도 있다.

㉔ 한림읍 명월리 민요 2 <진 사데(밭 매는 노래)>⁶²⁾

A 어긴~여~랑 사데~로~다 B 어긴~여랑~ 사데~로고낭

A 검질~짓~고 골넙~는밧디 B 검질~짓고~ 골~는진밧디

A 사데~불~령 요검~질매자 B 고비~총총~ 여의~명매자

A 사데~불~령 요검~질매자 B 어긴~여랑~ 사데~로고낭

A 나인~심이~ 열만~흐면~ B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A 오유~월검질~을 나흔~매라 B 뒷명~에랑 무너~나나라

㉔번 역시 <진 사데(밭 매는 노래)>로 되어있지만 굽이진사데소리이다. 굽이진사데소리 중에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한다. A 가창자가 부른 한 절이 23초~25초 정도이다. 그리고 교환창으로 불렀다. 선소리와 훗소리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A

62) 『대전-제주』, 302쪽.

선소리만 따로 떼어서 보고, B 훗소리만 따로 떼어서 보면 각자의 사설로 노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음구조는 비정형이고 훗소리도 비고정형이다.

굽이진사데소리로 명칭을 부여받은 민요는 사실상 없다. 기록된 구연상황을 종합하여 명칭만으로 민요를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름 제시하였다.

② 중간진사데소리(중허리사데소리)

중간진사데소리는 드문 사례이다. 애월읍에서 나타나는데 굽이진사데소리보다는 빠르고 진사데소리보다는 느린 소리이다. <중간사데(밭 매는 노래)>로 기록이 되어 있다. 단순히 중간사데라고만 하면 진사데소리와 짝른사데소리의 중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중간진사데라고 하는 것이 옳다.

『한국민요대전』 애월읍 고성리 민요2 중간 사데(밭 매는 노래)의 보충 설명란에 보면 ‘굽이사데 지역의 전형적인 중허리사데 즉 중간사데다. 앞소리와 뒷소리가 거듭 어긴여랑 사데로고나를 반복하는데 이것이 중허리 사데의 원형이다.’라고⁶³⁾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어긴여랑 사데로고나’는 중간진사데에서만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 애월읍 고성리 민요 2 <중간 사데(밭 매는 노래)>⁶⁴⁾

AB	어길여래랑	사데로고나
AB	어가여래랑	사데로고나
A	물은적고	사데로고나
AB	어가여래랑	사데로고나
A	어~여래랑	사데로고나
AB	아~어길	여래로고나

㉠번 음원을 확인하여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어길여래랑	사데로고나
---	-------	-------

63) 『대전-제주』, 333쪽.

64) 『대전-제주』, 333쪽.

B	여~랑	사데로고나
AB	어가여래랑	사데로고나
A	물은적고	사데로고나
AB	어가여래랑	사데로고나
A	어~여래랑	상사데로고낭
B	여래랑	상사데로고낭
A	아~어길	여래로고나
B		여래로고나

㉔번의 가창방식이 선후창으로 되어있지만 부분 합창으로 하고 있다. 선소리가 ‘어길’이라고 먼저 시작을 하면 그 뒤를 이어 ‘여~랑’ 혹은 ‘여래랑’부터 훗소리를 함께 한다. 선소리의 사설이 있는 경우는 훗소리가 따라 붙지 않는다. 음원이 길게 녹음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이상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보충난의 설명은 훗소리가 뒤늦게 따라 붙어 불러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지역의 중간진사데소리가 하나 더 있는데 애월읍 장전리 민요로 음구성은 동일하지만 이러한 가창형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다. 교환창으로 진행하고 있다.

㉕ 애월읍 장전리 민요 1 <중간 사데 (밭 매는 노래)>⁶⁵⁾

A 어길여랑 성사데	B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A 검질짓고 골너진밭데	B 뒷명에랑 무너나가라
A 어덜여랑 성사데	B 우리적군 모여나보자
A 뒷명에랑 무너나가라	B 간들간들 강남풍분다
A 어길여랑 사데로고나	B 에헿에헤야 뒤야로고나
A 헿저매영 집에나가게	B 울렁출렁 밥주리새여
A 요검질 저검질 헿저나매게	B 우리낭군 어디를가서
A 요밭데 요검질은 언자면 다매리	B 요검질 매명 톱흘리는 줄 알랴
A 어길여랑 사데로고나	B 에헿에헤야 성사데로다
A 얼화 우겨라 방아로고나	

65) 『대전-제주』, 317쪽.

㉔번 민요 한 곡에 훗소리의 역할을 하는 소리로 ‘어가여래랑 사데로고나’, ‘어~여래랑 상사데로고낭’, ‘아~어길 여래로고나’, ‘어길여랑 상사데’, ‘어길여랑 사데로고나’, ‘에헿에헤야 뒤야로고나’, ‘에헿에헤야 성사데로다’, ‘얼화 우겨라 방아로고나’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③ 진사데소리

진사데소리는 제주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진사데소리는 통상 느린 굿거리 두 장단쯤에서 불러진다. 혹은 느린 세마치 장단도 있다. 물론 장단에 딱 맞게 부르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는 규칙성이 있는 셈이다. 시김새는 굽이진사데와 매우 비슷하다. 진사데소리는 사데, 산이로구나, 여어랑사로 세분류를 하였는데. 사데와 산이로구나는 음구조가 동일하고 여어랑사는 전혀 다르다. 진사데소리는 선후창, 교환창, 독창으로 불러졌다.

③-1 진사데소리 - 사데

㉕ 조천읍 선흘리 민요 1 <진 사데(밭 매는 노래)>⁶⁶⁾

- | | |
|-----------------|---------------|
| A 허여허이여로 사데로구낭 | B 어야 두야 사데로구나 |
| A 검질짓고 골너른बाट디 | B 소리로나 여의멍매자 |
| A 소리로나 날은도샌다 | B 어야 두야 사데로구나 |
| A 전싱곳은 구월에나난 | B 구엿꽃도 나벗이로구나 |
| A 구엿꽃이 나벗이로다 | B 둥은울면 날이나샌다 |
| A 둥은울영 날이나샌다 | B 날랑울어근 어느날새리 |
| A 내사울영 어느날새리 | B 세백둑은 쟁쟁이운다 |
| A 어여 어이여로 사데로구나 | B 어느정예랑 나아니울리 |
| A 어떤남은 곳बाट디드난 | B 어야두야 사데로구나 |
| A 허웨청청 짓어나진다 | B 서울둑은 목소리좋아 |
| A 서울러레 가는이시민 | B 제주강남 소남의앗앙 |
| A 일만국도 제올렘서라 | B 조선국도나 지올려간다 |

66) 『대전-제주』, 54쪽.

A 깊은울영 날이나샌다

㉔번은 교환창으로 불러졌다. 교환창 형식에서 소리꾼이 각자의 사설로 부르는 경우와 선소리의 사설을 이어 엮어가는 경우로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㉔번의 경우는 선소리의 사설을 훗소리가 이어 가다가 이어가지 못 할 경우에 여음구를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 음구조는 정형이고, 훗소리의 위치는 비고정형이다.

③-2 진사데소리 - 산이로구나

성산을 삼달리 민요 1 <진 사데(밭 매는 노래)>⁶⁷⁾

아어나여 방아로구나	아어나여 산이로구나
방앤 보난 굴묵낭 방애	아어나여 산이로구나
절군 보난 가시낭 절구	아어나여 산이로구나
쿵쿵짙는 물방아 소리	아어나여 산이로구나
우리성제 삼성제드난	아어나여 산이로구나
저레 저레 귀맞아온다	아어나여 산이로구나
아어나여 방아로구나	아어나여 산이로구나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아어나여 산이로구나
뒷명에랑 나고만가라	아어나여 산이로구나
검질손은 즈직즈직	아어나여 산이로구나
사데소린 느직느직	아어나여 산이로구나
얼천간장 못친시름	아어나여 산이로구나
사데소리로 풀령가자	아어나여 산이로구나
지쳤고나 다쳤고나	아어나여 산이로구나
보리떡에 쉬미쳤고나	아어나여 산이로구나
요만하민 흘만도 후다	아어나여 산이로구나

성산을 삼달리 민요 1 <진 사데(밭매는 노래)> 부연 설명으로 ‘덕천리에서 불러진 진 사데는 두어 사람이 노래하는 개인요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신 삼달리의

67) 『대전』, 117쪽.

진사데는 요란한 장식음과 멜리스마(한 음을 길게 여러번 소리내어 부르는 것)를 통하여 개인적 가창력을 발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단순한 받는 소리로 후렴을 받음으로서 집단 노동요로 탈바꿈 시켰다'라고⁶⁸⁾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삼달리 진사데소리-산이로구나가 다른 진사데소리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굽이진사데소리보다는 빠르지만 보통 진사데소리보다는 조금 느린 한 음을 길게 부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산이로구나'의 훗소리 사설은 <낭 끈치는 소리(나무 베는 소리)>, <출 비는소리(꿀 베는 소리)>, <흑병에 부수는 소리(흙덩이 부수는 소리)>, <물 7레 소리(연자 맺돌질 노래)>, <보리 훑트는 소리(보리 훑는 노래)> 등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편적인 사설인 것은 확실하나 훗소리로 불려지는 경우는 진사데소리 - 산이로구나에서만 그러하다.

제시한 소리의 음구조는 정형이고 훗소리의 위치는 고정형이다.

③-3 진사데소리 - 여어랑사

㉞ 안덕면 덕수리 민요 2 <진 사데(밭매는 노래)>⁶⁹⁾

오허호~ 여어랑사	아허~ 여어랑사[얼싸]
오호~ 어허~	여어랑사
[얼싸 ! 넘어간다] (선소리와 동시에)	
오호~ 허어어 여어랑사	아허~ 어어~ 여어랑사
*오호~ 어어~ 여어랑사	아허~ 어어 여어랑사
사데불러근 요검질매자	어허어허 여어랑사
[얼싸 넘어간다] (훗소리와 동시에)	
오호~ 어허 여어랑사	아허~ 어허 여어랑사
오호~ 허이허 여어랑사	아아~ 어허 여어랑사
오호~허어어 여어랑사	아아~어허 여어랑사
오호~ 어허 여어랑사	아허~ 어허 여어랑사
오호~ 어허 여어랑사	어허~어허 여어랑사
[얼싸! 넘어간다] (선소리와 동시에)	

68) 『대전-제주』, 118쪽.

69) 『대전-제주』, 252쪽.

㉔번은 선후창으로 불러졌고 소리꾼은 모두 남성이다. 소리꾼이 남성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음구조는 두 개로 나뉘져 있다. * 표시 앞과 뒤가 음구조가 다르다. [] 부분의 소리는 추침사대소리로 보인다. 진사대소리-사대보다는 느리고 굵이진사대 소리보다는 빠르다.

진사대소리-여어랑사는 한국민요대전, 한국의 민속음악, 나요당기증 제주민요 자료집에 기록되어 있다. 지역은 모두 안덕면 덕수리이다. 한국민요대전에서는 덕수, 서광 일대에서만 나타나는 사대소리라고 소개하고 있기는 하다.⁷⁰⁾ 음구조는 정형이고 훗소리 위치는 고정형이다.

‘여어랑사’는 같은 지역인 안덕면 덕수리 <집줄 놓는 소리>의 후렴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소리꾼이 동일하다.

㉕ 안덕면 덕수리 <집줄 놓는 소리>⁷¹⁾

스르릉 스르릉 오호 흐-어허 집줄 놓느-헌 소리이야

여 오호 랑사

오늘 하루 해도 요어 허--허 서산에- 해 걸렸구나

여 오호 랑-사

진줄이라건 오오 허-어헌 정낭 툇 흐고

여 오호 랑사

즈른줄이라건 오- 허--헌 엇돌흔 흐라

여 오호 랑사

진줄이라근 오- 헌- 큰아덜- 비곡

여 오호 랑사

[여싸아]

즈른줄이라근 허--헌 죽은 아덜- 비곡

여 오호 랑사 (중략)

70) 『대전-제주』, 252쪽.

71) 『나요당』, 312쪽~315쪽. 『나요당』은 제주학총서 38 『나요당 기증 제주민요 자료집-음원·악보』를 편의상 줄인 용어이다. 앞으로 제주학총서 38 『나요당 기증 제주민요 자료집-음원·악보』의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나요당』이란 표기를 사용하기로 한다.

㉔번은 선후창으로 불러졌고 소리꾼 모두가 남성이다. 집줄 놓는 노동은 초가 지붕을 단단하게 하기 잇기 위해 집줄을 만드는 노동을 말한다. 이 노동이 주로 남성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소리꾼 대부분이 남성이다.

㉔번과 ㉕번을 비교해보면 선소리의 음구조는 다르고, 훗소리는 유사하나 ㉕번의 훗소리가 빠르다. ㉕번에서도 [여싸아]는 추침사대와 유사한 역할로 추임새가 들어가 있다.

(2) 짝른사대소리 유형

짝른사대소리는 진사대소리와 함께 제주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사대소리라고 하면 보통 짝른사대소리를 말한다. 짝른사대소리는 훗소리 사설에 따라 ‘사대’, ‘서하대야’, ‘산이로구나’, ‘소리야’로 소분류하였다. 훗소리의 길이는 4초~5초 정도이고, 조금 차이는 있다. 선후소리 동일한 길이이다. 짝른사대소리는 음구조는 정형이고 훗소리 위치는 고정형과 비고정형 두 가지로 존재한다.

㉑-1 짝른사대소리 - 사대

구좌읍 월정리 <검질매는 소리>⁷²⁾

검질깃고 골늦인발에	어긴여랑 사대로다
사대로나 우기명가게	어긴여랑 사대로다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어긴여랑 사대로다
뒀명에랑 나고나가라	어긴여랑 사대로다
청동 7튼 풀따시에	어긴여랑 사대로다
쇠굴갱이 들어잡곡	어긴여랑 사대로다
매꼽 7튼 골갱이로	어긴여랑 사대로다
좁은목에 베락치듯	어긴여랑 사대로다
너른목에 번개치듯	어긴여랑 사대로다
어서 훈정 매어나지라	어긴여랑 사대로다

72) 『나요당』, 149쪽~150쪽.

흐소리에 두줌반씩 어긴여랑 사대로다
 매꼽 7 뜯 골갱이로 어긴여랑 사대로다 (중략)

앞에 제시한 <검질매는소리>는 구좌읍 월정리 민요이고, 가장 보편적으로 불려지는 민요 중 하나이다. 굿거리 또는 자진모리 장단 속도로 불려진다. 사설의 내용도 가장 보편적인 김매는 노동에 관한 내용이다.

①-2 짚른사데소리 - 산이로구나

㉞ 성산읍 온평리 민요 3 <짚른 사데(밭 매는 노래)>⁷³⁾

- | | |
|------------------|--------------------|
| A 어기여테여 산이로구나 | B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
| C 뒷명에야 나고나가라 | A 앞발로랑 허우치명 |
| B 좀좀이나 매어나보세 | C 이어연자 요런검질매야 |
| A 뒷발로랑 거두차명 | B 검질짓고 골너른밭데 |
| C 사대로만 우겨나가자 | A 어기양허기 산이로구나 |
| B 산을 넘고 강이나 건나 | C 울고 갈 길 웨 왓느나 |
| A 웨 왓더냐 웨 왓더냐 | B 흔저 매고 집의나 가게 |
| C 내 딸 족은 내 사위야 | A 해 다 지고 저문 날에 |
| B 옥장형도 불엇든가 | C 울고 갈 길 웨 왓더냐 |
| A 웨 왓더냐 웨 왓더냐 | B 흔춤 두춤 매어나보세 |
| C 흔 골개기랑 오른쪽에 심영 | A 인생 흔번 죽어지면 |
| B 앞 명에야 들어나오라 | C 식상만사 허사로다 |
| A 만수장림이 운무로구나 | B 골개기를 심어나 놓고 |
| C 어서 어서 매어나보자 | A 허기영허기 산이로구나 (중략) |

㉞번은 세 명이 교환창으로 불려졌다. 그냥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소리꾼 별로 각각 따로 떼어서 나눠보면 각자의 사설을 각자 나름 엮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환창은 각자 나름 자신만의 사설을 엮어가는 경우가 있고 선소리꾼의 사설을 이어받아 가는 경우가 있다.

73) 『대전-제주』, 109쪽~110쪽.

㉔ 성산읍 수산리 <검질매는 소리>⁷⁴⁾

에-에아데야로다	뒤여데야 산이로구낭
검질짓고 굴너른बाट	뒤여데-- 산이로구나
앞명에 들어나오라	디여에야 산이로구나
뒷명에랑 나구나가라	디여데야 산이로구나
청새명 적군들라	디여데야 산이로구나

㉔번은 선후창으로 불러졌다. 기록으로는 훗소리 사설을 전혀 다르게 동시에 여자와 남자가 부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선소리는 여자가 둘이 부르고 훗소리는 남자 혼자 부른 것으로 추정된다.

①-3 짚른사데소리 - 서하데야

㉕ 대정읍 신평리 민요 2 <짚른 사데(밭 매는 소리)>⁷⁵⁾

어긴여랑 서하데야	어긴여랑 서하데야
사데불령 요검질매자	어긴여랑 서하데야
어긴여랑 서데로구나	어긴여랑 서하데야
산천좋은 요식상에	어긴여랑 서하데야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어긴여랑 서하데야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어긴여랑 서하데야
사데소리랑 물넘어가라	어긴여랑 서하데야 (중략)

㉕번은 짚른사데소리-사데와 동일한 음구조를 가지고 있고 훗소리만 ‘서하데야’로 불려지고 있다. 가창방식은 선후창이다. 훗소리 ‘서하데야’는 안덕면 덕수리의 민요인 <토불미소리>에서도 나타난다.

㉖ 안덕면 덕수리 민요 7 <토불미 소리>⁷⁶⁾

74) 한만영 외, 『한국의 민속음악:제주도 민요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49쪽.

75) 『대전-제주』, 276쪽~277쪽.

76) 『대전-제주』, 260쪽~261쪽.

아 흔놀래 놀아보저	어허~ 서화디아
적군님네 건실도 하다	어허~ 서화디아
요런 적군에 요까짓일 허기	어허~ 서화디아
성인덜 얼만 가실소냐	어허~ 서화디아
저도간 앞으로 느리는 물은	어허~ 서화디아
무췌 녹은 냇물이여	어허~ 서화디아
요내 가슴으로 느리는 물은	어허~ 서화디아
오장육부 젖인 냇물이로다	어허~ 서화디아
아 흔놀래 높디놀자	어허~ 서화디아

② 뒤야로구나

사대류-뒤야로구나는 구좌읍, 성산읍에서 나타난다. 음구조는 정형이고 훗소리 위치도 고정형이다. 성산읍 삼담리 민요 4 짝른사데(밭매는 노래)의 설명을 보면 '아웨기 우세지역에서 나타나는 짝른 사데이다. 진 사데, 진 아웨기, 검질 매는 흥애기 등의 느리고 유장한 노래를 부르다가 하루 일과를 마감하는 시간이 되면 일손을 재촉하기 위해 '상사뒤야요' 나 이런 '짝른 사데'를 부른다.'라고⁷⁷⁾ 되어있다. 밭매는 일을 마칠 때 부르는 민요라는 것이다.

㉑ 구좌읍 동김녕리 민요 1 <사데 소리(밭 매는 노래)>⁷⁸⁾

영허야 뒤야로구나	영 허야 뒤야로구나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영 허야 뒤야로구나
뒷명에야 나고나가라	영 허야 뒤야로구나
검질 짓고 굴너른밭디	영 허야 뒤야로구나
졸음이 벗이로구나	영 허야 뒤야로구나
서울덕은 목소리 좋아	영 허야 뒤야로구나
제비강남 소나의 앗안	영 허야 뒤야로구나
조선국을 다 울리더라	영 허야 뒤야로구나
저싱질은 조반날질가	영 허야 뒤야로구나

77) 『대전-제주』, 122쪽.

78) 『대전-제주』, 66쪽~67쪽.

가민을줄 모르는구나	영 허야 뒤야로구나
설룬어멍 걸어간 질은	영 허야 뒤야로구나
질이조차 저울어진다	영 허야 뒤야로구나 (중략)

㉔번은 선후창으로 불러졌다. 모두 여성이 불렀다. 간혹 훗소리에서 선소리를 그대로 따라 부르는 제창이 보이기도 한다. ㉔번 보충 설명에는 '구좌 일대에서 불려지는 유일한 밭 매는 노래로 짝른사데이다. 이 노래는 지역에 따라 '추침사데', 혹은 '행상소리'로 불려지고 있다. 제주전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오래된 사대로 추정된다.'라고⁷⁹⁾ 행상소리에는 '영 허야 뒤야로구나' 훗소리가 연구자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추침사데라고 명칭이 부여된 것은 『제주의 민요』에서 2곡이 발견되는데⁸⁰⁾ 모두 동김녕리 민요이고 2곡의 구연자가 다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뒤야로구나'가 짝른사데소리와 구분이 된다는 것이다.

㉕ 구좌읍 동김녕리 민요 3 <멜 후리는 소리(멀치후리는소리)>⁸¹⁾

영허야 뒤야	영허야 뒤야
어기여뒤여 방애여	영허야 뒤야
동깨코라근 등굽은여로	영허야 뒤야
서깨코라근 소여콧들로	영허야 뒤야
당선에서 멜발을보고	영허야 뒤야
망선에서 후림을노라	영허야 뒤야
닷배에서 진을재왕	영허야 뒤야
추즈안골 사수안골괘긴	영허야 뒤야
농랭이와당에 다몰려놓고	영허야 뒤야
앞괘기랑 선진을놓고	영허야 뒤야
뒷괘기랑 후진을노라	영허야 뒤야

㉕번의 훗소리 앞부분 '영 허야'는 멜후리는소리 훗소리의 앞부분 두마디를 차용하고 그 뒤는 짝른사데소리-사데의 음구조에 '뒤야로구나'를 붙여 부르고 있

79) 『대전-제주』, 67쪽.
 80) 김영돈, 앞의 책, 1993, 377쪽~382쪽.
 81) 『대전-제주』, 73쪽~75쪽.

다.

㉔ 애월읍 광지리 <멸치 후리는 노래> 16-182)

야 동줄이여 서줄이여 등이라 등이라 아이고 소복길런 요거 멜넘엄져 멜넘엄져
어서덜 요 동줄드리라 서줄드리라

아이고 이거이거 멜도 이거 많이 싸누난 멜버치켜 그물 낚지말앙 훈저 곳딕 개
코만부찌라

야 이거 훈저 개코만 부찌민 허던 먹엇져덜 부지런히 등이라 동줄이여 동줄등
이라 서줄등이라 등이라 등이라 야 이거 막 멜 낚럼져

㉔번 멜후리는소리처럼 ㉔번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음구조는 비정형이고 훗소리는 없다. 썩른사데-‘뒤야로구나’와 관계에서는 구좌음 동김녕리 <멜후리는소리>로 한정적인 현상이다.

③ 막바지사데소리

막바지사데소리 훗소리는 ‘에요랑 사데’, ‘아 어일여랑 사데야’로 되어있고, <검질매는소리>로는 매우 빠른 민요이다. 검질매는 노동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빠른 노래이다. 이는 막바지사데소리의 기능 때문이다. 검질매는 노동이 다 끝나가는 과정에서 아직 덜 매진 곳을 찾아가면 부르는 민요이기 때문에 노래의 빠르기와는 상관없이 동작을 할 수 있어 그런 것이다. 음구조는 정형이고 훗소리 위치도 고정형이다.

㉕ 조천읍 선흘리 민요 2 <썩른사데(발 매는 소리)>⁸³⁾

어여이여루 사데로구나	아 어일여랑 사데야
저산골로 흐르는 물은	아 어일여랑 사데야
불리섭새 인씩은 물가	아 어일여랑 사데야
하늘우로 내리는 물은	아 어일여랑 사데야

82) 제주대학교 국어국문·국어교육과, 『학술조사보고서 -애월읍 광지리·광령리-』 제8집, 동광인쇄사, 1984, 60쪽~61쪽.

83) 『대전』, 55쪽~56쪽.

궁네시네 발씻은 물가	아 어일여랑 사데야
깡변으로 내리는 물은	아 어일여랑 사데야
개도새기 발씻은 물가	아 어일여랑 사데야
거릿개로 흐르는 물은	아 어일여랑 사데야
거리개똥 다싯인 물가	아 어일여랑 사데야
저들속에 계수남은	아 어일여랑 사데야
은돌기로 베여다가	아 어일여랑 사데야
선돌피로 밀어를 놓고	아 어일여랑 사데야
삼근서근 무엇더니	아 어일여랑 사데야
훈근으로 옥네를 주고	아 어일여랑 사데야
훈근으로 선예를 주어	아 어일여랑 사데야
옥네방으로 줌자레 가자	아 어일여랑 사데야 (중략)

㉗번은 <썩른사데>로 기록되어 있지만 곡설명에 “흔히 ‘아일러랑 사데야’로 훗소리를 받기 때문에 ‘아일러랑 사데’라고도 한다. 해지기 직전, 일 마칠 때 부르는 사데라고 해서 ‘막바지 사데’라고도 한다”라고 되어있다.

㉘ 성산읍 삼달리 민요 4 <막바지 사데(밭 매는 노래)>⁸⁴⁾

어이요랑 사데	에요랑 사데
앞명애야 들어나오라	에요랑 사데
뒷명애랑 나고나가라	에요랑 사데
사데불령 요궂적가자	에요랑 사데
먼뒗사름 보거나 좋게	에요랑 사데
헉당말민 늬이나웃나	에요랑 사데
에혜요랑 사데	에요랑 사데 (중략)

㉗번이 ㉘번에 비해 느린소리이다. 다른 검질매는 소리에 비해서는 빠르지만 이 둘을 비교하면 그렇다. ㉘번의 설명을 보면 되어있다. 이 설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막바지사데소리의 기능이다. 앞에 설명했듯이 밭매는 일을 마치질 때 주

84) 『대전-제주』, 123쪽~124쪽.

로 부르면서 발 전체를 정리할 때 불리는 것을 알 수 있다.

(3) 추침사데소리

㉓ 애월읍 장전리 <검질매는 소리>⁸⁵⁾

아하에헤야~~어허야~~ 허영어허야 허어어~ 어허어허~ 허어어 어이 도래랑 사데
로고 열싸

금자동아 옥자동아 모시멩지 비단동아 천지건곤 일월동아 학도뜨고 봉도뜨고 광
주남산 불리는 소리로구나 열싸

아하에헤야~~어허야~~ 허영어허야 허어어~ 어허어허~ 허어어 어이 도래랑 사데
로고 열싸

이나무 저나무 아진배기 진달래꽃 양재묵 서나무타고 이산구경 흥글망글, 흥글
망글 들어오는 소리로구나 열싸

아하에헤야~~어허야~~ 허영어허야 허어어~ 어허어허~ 허어어 어이 도래랑 사데
로고 열싸

주뽕베뽕 배아피는 완방진방 들어오고 비옥간장 썩은물은 골골마다 느리는 소리
로구나 열싸

㉔ 애월읍 장전리 <02 사데소리>⁸⁶⁾

(굽이진사데소리) 아하에헤야 어허어형 어허야하 어허 어허어허이두리랑 사데로
구나 열싸

(추침사데소리)금자동아 옥자동아 모시멩지 비단동아 천지군번 일월동아 옥도뜨
고 공도뜨고 광주남산 줄 불리는 소리로구나

(굽이진사데소리) 아하에헤야 어허형어야 어허어허 어허어허어허어이 두리랑 사
데로구나 열싸

(추침사데소리) 이나무 저나무 아진배기 진달래 꽃 양재묵 서나뭇 허고 이산구
경 흥글망글 들어오는 소리로구나 열싸열싸

추침사데소리는 단독으로 존재하지는 않다. 주로 굽이진사데소리와 동반하는 것

85)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18·19』, 도서출판 역락, 2004, 437쪽~438쪽.

86) 2001년 애월읍 장전리 현지조사를 통해 기록한 내용임. 소리는 고승열 씨가 해주셨고, 고승열 씨는 1919년생으로 애월읍 광령리에서 태어나 애월읍 장전리로 시집을 왔다.

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사데소리에서도⁸⁷⁾ 나타난다.

㉔ 애월읍 금덕리 <검질 매는소리-사데소리>⁸⁸⁾

AB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D 뒷명에랑 물러나가라

AB 검질 짓고 골너른 밧디

D 다들 불러 검질 매자

AB 다음 7지나 모이나 유라

D 칠성 77찌 벌어나 사라

AB 여기여차 소리에 다 매어진다

D 여기여차 소리에 다 매어진다.

(말) 야피파면 물이나고 지피파면 돈이난다 열싸

㉔, ㉕, ㉖번 모두 진한 글씨로 되어있는 부분이 추침사데소리이다.

추침사데소리는 엮음소리의 일종으로 쉽게 생각하며 Rap music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다. 매우 빠르게 부른다. 이러한 엮음소리는 정선아라리에서도 전승되고 있다. 정선아라리에서 긴아라리를 부르다가 엮음아라리를 부르고 사설 마지막 부분에 긴아라리로 다시 부르는 방식으로 전승되고 있다.

CD-7-13 정선 아라리 1⁸⁹⁾

<중략>

나: 한치 뒷산에 곤드레 딱주기 나지미맛만 걸으면

고곳만 뜯어 먹어도 봄 살어나겠네

다: 우리도 살다 아차 한 번 죽어지면 베 한필 돌돌 감아 잣나무 땃가래 전나무
연춧대 스물넷 상두꾼에 너화넘차 발 맞추어 흥대 칠성 깔고 덮고 송백목 울을
삼고 두견새 벼를 삼아 살은 썩어 물이 되고 뼈는 썩어 흙이 되고

살짝 썩을 인생들 남 들기가 싫은 소리는 부디 하지 맙시다

가: 니나 내나 죽어지면 곁매끼 속매끼 이철이 십사 열네매끼 찢끈찢끈 푹푹 뉘

87) 여기서 사데소리란 세분류를 할 수 없는 사데소리를 말한다.

88)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12』,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6, 230쪽.

89) 『대전-강원』, 344쪽.

어 노가지나무 연꽃대에 초롱꾼아 불 밝히려 상두꾼아 발 맞춰라 어화넘차 떠돌리
미고 북망산천에 가

폭삭 썩을 인생들 남 들기가 싫은 소리는 부디 하지 맙시다.

다 : 영감은 할멈 치고 할멈은 아 치고 아는 개 치고 개는 꼬리 치고 꼬리는 마
당 치고 마당웃전에 수영버들은

바람을 휘몰아 치는데 우리집에 서방님은 낮잠만 자네

가 : 산진매나 수진매나 휘휘칭칭 보래매나 절간밑에 풍경 달고 풍경밑에 방울
달아 앞남산 불까투리 한 마리 툇 차가지구 저 공중에 높이 떠서 빙글빙글 도는
데

우리집에 저 멧덩구리는 날 안구 돌 줄 몰러

제시된 정선아라리에서 밑줄 친 부분이 엮음소리이다. 엮음소리는 독립적으로 존
재하기도 하고 이렇게 긴아라리와 함께 존재하기도 한다. 매우 빠른 속도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실상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지를 모를 정도이다. 구연자 세 명이 교환
창으로 구연하였고 훗소리는 없다. 경우에 따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날 넘겨~주소-’라고 훗소리를 한다.

추침사데소리는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존재한다. 추침사데는 지역에 따
라서 <권력소리>, <근력소리>, <후림소리>, <추스림소리>, <곶역소리> 등으로 나
타난다.⁹⁰⁾ ‘추침사데’라고 명칭이 부여된 곡이 있지만 ‘뒤야로구나’에 말하는 것으
로 보이고 여기서는 『한국민요대전-제주도 민요 해설집』에 있는 명칭으로 보겠다.

그 중 추침소리라는 명칭에 대해 「한국민요대전-제주도 민요 해설집」에서 “이런
종류의 진사데는 사설이 단조로운 대신에 중간에 ‘추침소리’라 하여 한사람이 벌떡
일어나 갖가지 사설을 외침으로써 변화를 꾀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⁹¹⁾ 설명하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김현선은 현지조사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않아 막연하게 ‘추침
소리’나 ‘추임새소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⁹²⁾
곶역사데라는 명칭은 ‘곶역’이라는⁹³⁾ 명칭을 김현선은 ‘곶역시’에서 온 명칭이라고

90) 양영자, 앞의 책, 2007, 350쪽.

91) 제주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 민요 해설집』, 문화방송, 1992, 17쪽, 332쪽.

92) 김현선, 「제주민요 『곶역사데』의 기능과 의의」, 미발표 프린트물, 1쪽

93) 2009년 현장조사를 했을 때 애일을 진선자는 곶역사데의 뜻을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도 하였다. 이는 잘못 와전된 것을 판단된다.

하였다. ‘꺠역시’는 빠진 대가로 맡겨진 몫의 뜻이고⁹⁴⁾ ‘꺠역시사데’라고 명칭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다.⁹⁵⁾ 양영자는 추스림소리는 판소리의 추임새와도 같은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판소리 고수가 ‘얼쑤!’, ‘좋다!’, ‘잘한다!’ 등을 하면서 소리판의 흥을 돋우듯이 추스림소리도 노동판의 신명을 돋우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하였다.⁹⁶⁾ 추침소리는 노동과 놀이를 통합하면서 노동의 신명을 부추기는 독특한 양식이라고 하였다.⁹⁷⁾

추침사데는 사람을 추켜세워 소리를 한다고 하여 추침사데라고 부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리의 흥을 돋기 위해 추임새 역할을 하는 것과 노동의 동작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위로 보는 것이 맞다.

소리꾼이 추침사데소리를 하면 발매는 작업 중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기 때문에 사람을 추켜세운다는 의미에서 추침사데인 것이고, 혼자 자리를 이탈하여 노동을 하지 않으니 꺠역사데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추침사데라고 하겠다.

추침사데소리의 사설은 다른 <검질매는소리>의 사설과 전혀 관계가 없다. 사설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말을 엮어서 하며 노동의 지루함을 잊기도 하고 발매는 노동의 효율성도 도모한다.

애월읍 장전리 발은 매우 크다고 한다. 한 발에 20여 명이 들어가 발매기를 하는데 아침에 시작하여 저녁이 다 되어서 나올 수가 있었다. 사람 20여 명이 한꺼번에 노동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발에서 노동의 시작점에서 같이 시작하여 다음 시작점으로 이동하려면 누군가는 신호를 줘야 한다. 이런 신호를 추침사데가 하는 것이다. 굽이진사데소리를 하는 중에 앞명에 즉 시작점의 반대편이 다가오면 추침사데소리를 불러 일어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추침사데소리의 사설의 우스꽝스러운 것은 일어나 자리를 재정리하는 동안 웃으라는 것이다. 웃으면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 이 민요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니 추침사데소리는 사설을 가장 우스꽝스럽게 할수록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⁹⁸⁾

94) 제주특별자치도, 『개정 증보 제주어사전』, 일신옵셋인쇄사, 2009, 101쪽.

95) 김현선, 위 논문 3쪽.

96) 양영자, 앞의 책, 2007, 352쪽.

97) 양영자, 위의 책, 2007, 352쪽.

98) 2001년 애월읍 장전리 현지조사에서 기록한 내용임.

사대소리는 제주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 양주시 민요에서⁹⁹⁾ 이와 유사한 것을 찾을 수 있었다. 논매는 소리로 ‘사두여’, ‘사두소리’가 있는데 ‘사대’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 지는 확실하지는 않다. ‘사두여’, ‘사두소리’는 받는 소리에서 “어 허이에 헤에 어리이 사두여”, “에히어라 사~도” 등을 부르는 것으로 유사한 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강원 영동 지역의 논매는 소리 중 ‘싸대소리’가 있다. 논매기에서 하루의 작업 또는 논 한배미의 작업을 마무리할 때, 새참이나 식사를 하기 위해 논에서 나올 때 주로 부른다. 논매기에서 제일 처음 진행하는 초벌김은 ‘애벌김’, ‘아시짐’이라고도 하고, 두벌매기는 ‘이듬 맨다’, ‘한불맨다’라고도 하며, 보통 마지막 김매기에 해당하는 세벌매기는 ‘만드레’라고도 한다. ‘싸대소리’를 부르는 논매기의 마지막 작업인 싹 싸기는 초벌, 두벌, 세벌김매기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¹⁰⁰⁾

‘싸대소리’는 “에에야 에이요 위 요 싸대리/ 에이 에이요 위 여 싸대리/ 에이 에이여 싸 싸대!”와 같이 부른다. ‘싸대소리’는 하루 세 번 부르는데 ‘주름’이라고도 부른다. “‘큰노래’ 주름싼다”고 하면 이 소리는 시계가 없던 옛날에 농가 부인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소리이다. 큰노래 주름싸는 소리가 들리면 ‘아침 참을 준비하라’, 한참 지나 ‘싸대소리’가 들리면 ‘점심 먹으러 가겠다’, 저녁무렵에 ‘싸대소리’는 ‘이제 일 다 마치고 돌아가겠다’는 소리로 일년 살림을 준비하는 소중한 하루 일을 다 마친 농군 가부장들이 아내에게 보내는 당당한 시계이자 신호이다.¹⁰¹⁾

예천 논매는 소리 <사대소리>¹⁰²⁾

후오 사호 헤 사호뒤요

후오 사호 헤 사호뒤요

후여라 동해동창 돋은 해는

서산 너머로 다 넘어갈라고 하네 오호

99) 2007년 문화관광부 전통예술 복원 및 시연 사업 『경기도 양주시 토박이 소리꾼의 소리』, 양주들 노래보존회, 2007.

100)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863> (2023.05.07 검색일)

101) 지역N문화 <https://ncms.nculture.org/song/story/4800> (2023.05.07 검색일)

102) 『한국민요대전-경상북도민요해설집』

후오 사호 헤 사호뒤요
후여라 바다겔은 논자리에
일등군장 다 모였네 요러구나 어헤 오호
후오 사호 헤 사호뒤요

예천 논매는 소리 <진사대 소리>¹⁰³⁾
(다같이) 에헤헤 아하 아오후 우워잇
우워우엇 에이 에이에라보자 아우
아워후 오호우워 에헤이 아워허 아해이
어와 우리 농부들아 이 내 말을 들어보소
누구누구 모였는고 등 넘어 이도령 글 건너 박도령
일등군장이 다 모였네
에헤이요
에헤헤 아하 아오후 우워잇
우워우엇 에이 에이에라보자 아우
아워후 오호우워 에헤이 아워허 어해이
서울이라 삼각산은 한강이 둘러있고
경상도라 태백산은 낙동강 칠백리가 구비구비 흘러를 가는구나
에헤이요
에헤헤 아하 아오후 우워잇
우워우엇 에이 에이에라보자 아우

경상북도 예천군 민요에는 <사대소리>, <진사대소리>가 민요의 명칭이 사대소리라고 되어 있고 <진사대소리> 훗소리에는 사대라는 사설은 없다. 선후창 형식의 모심는 소리이다. ‘공처농요’는 예천군 풍양면 공덕2리 공처마을 주민들이 지난 80년 농요 발굴단을 조직, 85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공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93년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논매는 소리는 전통적인 민요의 짜임새 즉 진사대, 짜른사대, 어루사대, 핵소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 농요의 뒷소리는 모음 아, 어, 오, 우, 으, 이, 애 등이 고루 사용되고 최대

103) 『대전-경상』, 518쪽.

구개음에 최소 구개음으로 순차적 전개를 보이며 여음이 긴 것을 특징으로 한다. 현재의 논매는 소리는 두벌논매기와 세벌논매기 소리만 남아 있다. 논매는 소리의 사설이 달구소리나 지신뵈기소리의 사설에서 보이는 지세풀이와 관련되어 있다. 아마도 사설을 많이 손질해서 가다듬은 흔적이 짙다. 이 마을의 논매는 소리만 진사대소리-짜른사대소리-어루사대소리-헛소리(옹헤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사대소리만 수록했다.

2-2. 아웨이류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중 사데류 다음으로 많은 분포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웨이류이다. 아웨이소리는 <검질매는소리>-사데류-사데의 선소리와 서우제소리 훗소리가 결합한 형태이다. 아웨이소리는 교환창으로 가창되는 경우는 드물고 선후창이 보편적 모습이다.

(1) 진아웨이소리

㉠ 구좌읍 송당리 <검질 매는 소리(아웨이)>¹⁰⁴⁾

- | | |
|---------------------|-----------------------|
| A: 어야~아~아도게 멩에로구나 | B: 아하아아야 예헤양어허어요 |
| A: 어여차~음~소리에 해 넘어간들 | B: 아하아아야 예헤양어허어요. |
| A: 검질~ 짓고 골 너른 밧딕 | B: 아하아아야 예헤양어허어요 |
| A: 어여차~음~소리에 다 넘어간다 | B: 아하아아야 예헤양어허어요 |
| A: 일광~님~도 재~보~러 가고 | B: 아하아아야 예헤양어허어요 |
| A: 우리~적군도 집으로 간~들 | B: 아하아아야 예헤양어허어요 |
| A: 선~소리~랑 조직조직 | B: 아하아아야 예헤양어허어요 |
| A: 훗~소리~랑 드~랑드~랑 | B: 아하아아야 예헤양어허어요 |
| A: 먼데~사~람 듣기나 좋게 | B: 아하아아야 예헤양어허어요 (중략) |

㉡ 구좌읍 한동리 <아웨이>¹⁰⁵⁾

104)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13』,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7, 176쪽.

105)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11』,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5, 219쪽~220쪽.

어양어양 어야로다 어양어양 어야로다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이삼사월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마라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중략)	
오늘오늘 오늘이로다 날도좋고 오늘이로구나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매일장삼 오늘이면 성도나얼만 가실손가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중략)	
뒷발로랑 허우치멍 서렘서렘 빌려도줍써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성복고동 조은여로 용왕님아 득달을헛서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중략)	

㉓번의 사설은 발매기에 관한 내용으로 검질매는 소리라고 할만 하지만 ㉔번인 경우는 검질매는 소리인지 서우제소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설의 내용에 발매기에 관한 내용은 없다. 장단은 굿거리 장단이다. 가창방식은 선후창으로 되어있다.

(2) 짝큰아웨기소리

㉕ 조천읍 선흘리 민요 4 <짝큰 아웨기 (발 매는 노래)>¹⁰⁶⁾

어야두야 방애로구나	아~아양 에혜양 어허요
어귀낭청 방애고루나	아~아양 에혜양 어허요
저 산골로다 흐르는 물은 [아싸, 아싸 좋다-]	아~아양 에혜양 어허요
할리아 섭새는 인씩은 물이다 [좋다. 크르르릭]	아~아양 에혜양 어허요
하늘우흐로 느리는 물은	아~아양 에혜양 어허요
궁네야 시네덜 발싯인 물이라	아~아양 에혜양 어허요
갱변으로 내리는 물은	아~아양 에혜양 어허요
개도새기 발싯은 물이라	아~아양 에혜양 어허요

㉕번의 가창방식 선후창으로 불러졌고, 사설은 발매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단은 자진모리 장단에 맞게 불렀다.

106) 『대전-제주』, 59쪽~60쪽

2-3 발매는흥애기소리

‘흥애기소리’는 ‘이야 흥’ 혹은 ‘흥애기로구나’, ‘흥아기로구나’, ‘어가흥아’, ‘어야도흥’ 등 이렇게 소리를 한다고 하여 명칭이 붙여진 것이다.

㉞ 남원읍 신흥리 민요2 흥애기/진 사데/쯔른사데(발 매는 노래)¹⁰⁷⁾

흥애기

아~ 어~ 어기야 흥~

음~ 야~ 어~ 어기야 흥~

건들건들 어어~어 동남풍이다~ 어~ 어기야 불어를 오는구나 야

음~ 야~ 어~ 어기야 흥~

검질짓고어~ 골너븐 밧다다 어기야 고분쇄로 여의명가자

음~ 야~ 어~ 어기야 흥~

앞명에라근 아~ 어~ 들어나오구요 아~ 어기야 뒷명에랑 나가나가라 야

음~ 야~ 어~ 어기야 흥~

<중략>

진 사데

아~어~ 어기여랑 사데 아~ 어기여랑 사데

아~ 어 어기여랑 사데 아~ 어기여랑 사데

사데불령 검질매자 아~ 어기여랑 사데

한소리를 늦이나놀자 아~ 어기여랑 사데

아 어기요랑 사데 아~ 어기여랑 사데

에~ 요농스를 지어다가 아~ 어기여랑 사데

국가충성 흥여보자 아~ 어기여랑 사데

<중략>

쯔른 사데

즈진사데로 넘어간다 아해요랑 사데

107) 『대전-제주』, 186쪽~187쪽.

아해요랑 사데	아기요랑 사데
에~ 이부락을 설촌하니	아기요랑 사데
온천리가 불렀었다	아기요랑 사데
한해두해 살단보난	아기요랑 사데
온갖선인 모여들어	아기요랑 사데
신흥리로 개명했다	아기요랑 사데
모든역군 낙심말고	아기요랑 사데
선후없이 맞춰보자	아기요랑 사데
앞명애랑 들어오고	아기요랑 사데
뒷명애랑 나아가라	아기요랑 사데

<중략>

㉔번은 흥애기-진사데-쯔른사데 순서로 불려졌다. 노동현장에서 이런 순서로 불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구연자가 남성이고 훗소리는 여럿이 불렀다. 흥애기소리는 유장하고 긴 소리이고 진사데소리는 앞 흥애기소리와 같은 빠르기이지만 소리의 길이가 짧은 것이다. 쯔른사데소리는 막바지사데소리로 자진모리장단에 맞춰 불렀다. 흥애기소리 첫 본절 사설을 보면 ‘건들건들 어어~ 어 동남풍이다……’ 이 부분은 출비는 흥애기소리에 주로 나타나는 사설이다.

㉕ 표선면 성읍1리 민요 2 <흥애기(발 때는 노래)>¹⁰⁸⁾

허야디아 행~ 헤이에~ 에이에~ 어어어~ 에 산이로구낭~
 음~ 야헤~ 허으기야~ 흥~
 요소리는 헤영~ 헤이에~ 어드레~ 들어가는 소링~
 음~ 야헤~ 허으기야~ 흥~
 산전밭딕 헤~ 헤이에~ 에이에~ 남따비 들어가는 소링~
 음~ 야헤~ 허으기야~ 흥~
 저병에야 허영~ 어어어~ 어어어~ 일어나나랑~
 음~ 야헤~ 허으기야~ 흥~
 방석만썩 허영~ 어어어~ 어어어~ 잘도 일어나는구낭~
 음~ 야헤~ 허으기야~ 흥~

108) 『대전-제주』, 133쪽~134쪽.

떡빚 7찌 헤엥~ 헤이에~ 오골오골~ 잘도 일어나는구냥~
 음~ 야헤~ 허으기야~ 흥~
 서말지기 헤엥~ 헤이에~ 논두렁~ 반들만큼 남아간당~
 음~ 야헤~ 허으기야~ 흥~
 우리 접군 호웅~ 호으오~ 올로요래 모다다듬성~
 음~야헤~ 허으기야~ 흥~
 칠성 7찌 헤엥~ 헤이에~ 에이에~ 벌어진 우리 접군~
 음~ 야헤~ 허으기야~ 흥~
 다물가찌 헤엥~ 헤이에~에이에~ 다 모되집서
 음~ 야헤~ 허으어야~ 흥~
 일락서산 허으어~ 은 해는지고~ 호으오~ 월출동경 달숫아온당~
 음~ 야헤~ 허으기야~ 흥~
 해는지고 호웅~ 호으오~ 호으오~ 저문날에~ 에이에~ 웬수인 비가 온다
 음~ 야헤~ 허으기야~ 흥~

㉔번의 가창방식은 선후창이다. 선창자는 여성이고 후창자는 여럿으로 되어있다. 사설은 따비질소리의 사설이 전반 부분에 나타나고 후반 부분은 제주도 노동요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발매기에 관한 내용은 없다. 사설 내용을 보면 마치 따비질을 하면서 부르는 모습이 연상된다. 다양한 노동현장에서 불리다보니 흥애기소리의 실상을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매는 흥애기소리는 매우 유장하고 긴 소리이다. 사데류에서 굽이진사데소리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흥애기소리는 밧가는소리, 진토긋 파는 소리, 꿀베는노래, 흙덩이 바수는 노래, 나무 켜는 노래, 톱질 소리, 도깨질소리 등 다양한 노동현장에서 불려지고, 발매 때도 부른다고 하여 <검질매는소리>에 포함된 경우이다.

표 19 흥애기소리 목록

도서명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한국구비문학	애 월 면	흙덩이 바수는	-양경준(남)	서궁야기 더럼마

도서명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대계 9-1	광령3리	노래	-김경구(남) 외 8명.	흥에로다 호응에
		진토굿소리	-진팔흥(남) -여럿	어허~ 흥에로고나 어~ 술기로고나
		꿀베는노래	-진팔흥(남) -이향수(여)	흥아기로고나
한국구비문학 대계 9-2	옛 제주 시 삼도동	꿀베는 노래	-한기월(여)	흥애기라는 단어 있음.
한국구비문학 대계 9-2	안 덕 면 덕수리	밭 가는 노래(1)	-송평우(남)	오늘날도 오어어어 흥애기여
		꿀 베는 노래(2)	-김태옥(남)	더럼마 더리럼마이로고나 어어어~ 어 어어~어어~ 흥애로고나
	대 정 읍 하모리	나무 켜는 노래 (1)	-강신생(남)	어허어흥아 이톱저톱 산범?찌 돌려 들라 흥애로고나
		꿀 베는 노래(1)	-강신생(남)	오호~흥애로고나
		진토굿 소리(1)	-강은반(여) -여럿	어야흥~ 호~ 흥애기로구나 호~ 에야~ 흥~
		진토굿 소리(2)	-강군석(남) -여럿	에야 호오~ 흥
한국구비문학 대계 9-5	조 천 읍 북촌리	출 비는 소리(흥 애기소리)	-현덕선(여)	흥애기~소리
한국구비문학 대계 9-6	애 월 읍 장전리	출 흥아기 소리	-김여옥(여)	에헤헤-- 흥아방아로 놀고간다 짝-
제주의 향토민 요	제주시 건입동	꿀 베는 소리 2	-김태매(여)	어허~~ 어어어 어허허~ 흥애기로구나
	제주시 정실	꿀 베는 소리 3	-고태옥(남)	이여~도 흥애기로구나
	제주시 봉개동	꿀 베는 소리 4	-고흥원(남) -고응문(남) -강흥추(남)	본사설 후 이어서 (어으- 허- 흥아기 로구나) 붙여 부름
	제주시 봉개동	꿀 베는 소리 5	-김용빈(남) -여럿	본사설 후 이어서 (어- 어- 어야 어 흥아기로구나) 붙여 부름 훗소리 야아흥
	제주시 봉개동	툽질 소리 1	-고흥원(여) -오타(남)	어 하아 흥애기로구나 하
	제주시 봉개동	툽질 소리 2	-고응문(남) -여럿	본사설 후 이어서 (에에 에-흥아기로 구나) 붙여 부름 훗소리 야아 아 흥

도서명	지역	민요명	창자 -선소리 -훗소리	훗소리
	제주시 이호동	나무 내리는 소 리 1	-고성옥(여) -이정자(여)	야아훗
	제주시 봉개동	진토긋 소리 1	- 고 흥 원 (남)/ 고 응 문(남) -여럿	야아- 흥
한국민요대전- 제주도민요편	구좌읍 동 김 녕 리	마당질소리	-김경성(여) -여럿	어기야훗(아), 어요하야, 어야훗아
	표선면 성읍2리	마당질소리	-홍복순(여) -여럿	어야 흥, 어야 하야

표 19는 연구자료의 모든 흥애기소리 목록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제시하였다.

양영자는 <흥애기>는 다양한 노동현장에서 불렀던 노래로 ‘흥을 돋우는 여신’을 부르며 힘든 노동현장의 신명을 부추기는 노래라고 하였다. ‘흥’은 ‘흥’의 변이형으로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심성이자 정서라고 하였다. 흥애기의 ‘애기’은 ‘아기’와도 통용되어 ‘흥아기’라고도 하는데 이는 제주무속신화의 여성신 신명(神名)에서 ‘감은 장아기’, ‘쭈지뎡왕아기씨’ 등 여신의 의미로 보았다. 2005년 애월지역 조사 당시 “옛날에는 <사데소리>든 <흥애기>든 집안에서 못 부르게 했다.”는 조사내용으로 이 민요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하였다.¹⁰⁹⁾

오히려 ‘흥’이라는 소리의 뜻을 크다, 넓다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크고 넓은 곳에서 부른다는 의미로 노래의 끝에 ‘흥’을 붙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2-4. 공유민요

공유민요는 하나의 민요가 여러 기능을 포괄한 경우를 함께 묶었다. **상사소리, 담벌소리, 더럼소리, 용천검** 이렇게 총 4개 중간분류로 나뉘었다. 공유민요에서 주로 표선면, 성산읍 지역에 분포한다.

109) 양영자, 위의 책, 2017, 35쪽 요약.

(1) 상사소리(상사디야요)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중 상사소리가 나타나는 지역은 매우 협소하다. 성산읍과 표선면, 옛 서귀포시에서만 나타난다. 하지만 ‘상사소리’는 전국에 노동요로 분포되어 있다.

㉓ 성산읍 삼달리 민요 2 <상사디야요 (밭 매는 노래)>¹¹⁰⁾

영형 어허요로 상사디야요	영형 어허요로 상사디야요
농부로다 농부로다 천하지대본이 농부로다	영형 어허요로 상사디야요
요 농사를 지어다가 어느야 부모를 살릴소냐	영형 어허요로 상사디야요
잠대 들러 밭 잘 갈면 농부한이다 노념이요	영형 어허요로 상사디야요
붓대 들러 글 잘 쓰면 선비 한이다 노념이요	영형 어허요로 상사디야요
장귀 매여 장귀 잘 치면 한량 한이다 노념이다	영형 어허요로 상사디야요
만귀청산 늙은 범이 살찐 암개를 물어다 놓고	영형 어허요로 상사디야요
진시황자 아방국에 미참하여 남아잇던	영형 어허요로 상사디야요
영형 어허요로 상사디야요	영형 어허요로 상사디야요
천년송도 아니웨다 만년폭도 아니웨다	영형 어허요로 상사디야요
한무제 승노반에 미참하여 남아잇던	영형 어허요로 상사디야요
만년폭도 아니웨다 천년송도 아니웨다	영형 어허요로 상사디야요

㉓번은 가창방식이 선후창으로 불렀고, 선소리는 남성이다. 장단은 빠른 굿거리이다. 진사데소리보다는 많이 빠른 편이다. 사설 내용은 다른 <검질매는소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다. 훗소리에 ‘상사디야요’라고 하여 ‘상사소리’, ‘상사디야요’라고도 한다.

㉔ 충북 청원군 남이면 석실리 산너머 모심는 소리 2 “...상상사뒤야”¹¹¹⁾

에헤야헤 헤이야루 상상사뒤요	에헤야헤 헤헤야루 상상사뒤야
-----------------	-----------------

110) 『대전-제주』, 119쪽~120쪽.

111) 『대전-충북』, 296쪽.

이 논배미 모를 심어 장잎이 훑훑 영화로다	에헤야헤 헤헤야루 상상사뒤야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터백이 노던 달아	에헤야헤 헤헤야루 상상사뒤야
저기저기 저 달속에 계수나무가 서있으니	에헤야헤 헤헤야루 상상사뒤야
은도끼로 비어다가 옥도끼로 다듬어서	에헤야헤 헤헤야루 상상사뒤야
복역에 주추 세우고 상대로 기둥 세워	에헤야헤 헤헤야루 상상사뒤야
상제로 기둥 세우고 삼팔목은 도리 엮고	에헤야헤 헤헤야루 상상사뒤야

<중략>

㉔번은 충청북도 청원군 모심는 소리로 훗소리가 형태가 여음+사설로 제주도 상사소리와 유사하지만 가락은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모든 상사소리가 이런 형태는 아니다.

(2) 담벌소리

담벌소리는 원래 ‘서우제소리’처럼 석살림에서 쓰여지는 소리이다. 무속의례가 치러질 때 제의 절차 사이에 맞아들인 신을 환대하는 ‘석살림’을 치를 때 불리는 노래로서 조상신이 신앙과 관련된 직업이었을 때에는 ‘담벌소리’를 부르고 그밖에는 ‘서우제소리’를 불렀다. ‘담벌소리’는 행상소리나 심방의 굿하는 소리에 전용된 것으로 훗소리에서 ‘담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 이는 ‘나무아미타불’에서 ‘타불’이 ‘담벌’로 변화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굿에서 불려지는 담벌소리는 빠르기가 두 가지로 존재한다. (굽이)진사데소리의 빠르기와 유사한 담벌소리가 있고 짝른사데소리의 빠르기와 유사한 담벌소리가 있다. <검질매는소리>에서 불려지는 ‘담벌소리’는 짝른사데소리와 유사한 빠르기 소리이다.¹¹²⁾

㉕ <밭매는 노래(담벌소리)>¹¹³⁾

나무아미 담벌아	어히요랑 담벌아
담벌불령 저머리가자	어히요랑 담벌
선소리랑 굿이나망정	어히요랑 담벌

112) 송정희, 「제주도 굿 제차 중 석살림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65쪽.

113) 삼양동지 편찬위원회, 『三陽洞誌』, 제주: 삼양동지 편찬위원회, 2008, 593쪽~595쪽.

훗소리랑 스랑스랑	어히요랑 담불아
먼딛사람 듣기나 좋게	어히요랑 담불아
즈꿏디사람 구경 좋게	어히요랑 담불아
헛당말면 놈이나 웃나	어히요랑 담불아
담불불령 세역을가자	어히요랑 담불아 (중략)

㉞번의 음원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삼양동지에서 가락은 무속의례 때와 동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3) 더럼소리

‘더럼소리’는 훗소리가 ‘더럼 더럼 더럼이여, 어허야 더럼이여’라고 되어있고 이 소리는 ‘흑병에 부수는 소리’, ‘따비질 소리’ 등 흠을 부수거나 흠을 파거나 하는 농사를 짓기 전에 흠을 정비하는 소리에 많이 나타난다.

㉞ 남원읍 민요2 <김매는 노래(더럼 소리)>¹¹⁴⁾

[현갑봉]:어야두리야 더럼마아	
[오신옥]:검질짓고야 골넘는밭디	[현갑봉]:어야두리야 더럼마아
[이 때, 경운기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노래가 잠시 중단됨.]	
[오신옥]:어야두리야 더럼마아	[현갑봉]:어야두리야 더럼마아
[오신옥]:검질짓고야 골넘는밭디	[현갑봉]:어야두리야 더럼마아
[오신옥]:고분쇠로 여이명가자	[현갑봉]:어야두리야 더럼마아
[오신옥]:어허두리야 더럼마아	[현갑봉]:앞명에랑 들어나오라
[오신옥]:어허두리야 더럼마아	[현갑봉]:뒷명에랑 물러나가라.
[오신옥]:어가여랑도 산이로다	[현갑봉]:어야두리야 더럼마아
[오신옥]:아적소리는 느직느직	[현갑봉]:어야두리야 더럼마아
[오신옥]:굴게손으랑 느직느직	[현갑봉]:어야두리야 더럼마아
[오신옥]:저믄날에 사데소리	[현갑봉]:어야두리야 더럼마아
[오신옥]:즈직즈직 그는다	[현갑봉]:어야두리야 더럼마아 (중략)

114) 『대계 9-3』, 1131쪽~1136쪽.

㉔번의 가창방식은 선후창이라고 봐야 하지만 선창자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 페이지가 무려 5페이지에 다다르도록 사설이 이어진다. 매우 풍부한 사설을 가지고 있다.

(4) 용천검

‘용천검’이 <검질매는소리>에서 사용되는 것은 매우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포 지역도 표선면 성읍리와 가시리로 한정적이다. 용천검은 가사의 변이 없이 <검질매는소리>에서 용천검 가사 그대로 부르고 있는 것도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용천검은 본절 첫 사설에 “찾던 칼을 썩 빼고 보니 난데없는 용천검이라”에서 붙여진 명칭이다.¹¹⁵⁾ 용천검은 진도 등지에서도 발견되고, 조선후기 전국을 떠돌던 사당패들이 부르고 다니던 노래로 추측하고 있다.¹¹⁶⁾

㉔ 표선면 성읍1리 민요 9 <용천검>¹¹⁷⁾

찾던칼을 썩빼고보니 난디엇는 용천의검이라
에야라데야 에야라데야라 방애 방아로다
옥황상저는 구름을타고 대국천즈는 코끼릴탄다
에야라데야 에야라데야라 방애 방아로다
삼정승육판서 쌍교를타고 과거수령은 영마를 탄다
에야라데야 에야라데야라 방애 방아로다
너도총각 나도총각 후양머리 마주잡고 암맞추는 총각
에야라데야 에야라데야라 방애 방아로다
오라고한덴 밤에나가고 동네에 술집의 해낮의 간다
에야라데야 에야라데야라 방애 방아로다
정든임 사다준 수갑스맹기 곤때도 아니 묻고 시집만 간다
에야라데야 에야라데야라 방애 방아로다

115) 양영자, 앞의 책, 2017, 351쪽.

116) 『대전-제주』, 146쪽

117) 『대전-제주』, 145쪽~146쪽.

돌아오는 반들처럼 도리주머닐 주워나 놓고
 에야라데야 에야라데야라 방애 방아로다
 만수무강 글썽을 사겨 수명장석 끈이나 돌아
 에야라데야 에야라데야라 방애 방아로다

용천검은 경기도 양주시 민요에도 채록되어 있다. 다음은 경기도 양주시 용천검이다.

㉠ <용천검>¹¹⁸⁾

훗소리: 앵헤라 데야 앵헤라 땡헤라 상사어허로구나

- ① 찾던 칼을 썩 빼고 보난 난데없는 용천의 검은 검이라.
- ②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 잎진다 설워를 말야.
- ③ 맹연이철 춘삼월 나면 다시나 피면은 꽃이로구나.
- ④ 천하일색 양귀비라도 늙어지면은 허사로오다.
- ⑤ 이불우에 옷 덮고고 배고프카 염려하연.
- ⑥ 즈근 두언 밥먹이고 그럭저럭 이십세 나난.
- ⑦ 부미쳐각시 작별허고 일문전에 하직하고.
- ⑧ 저 마당에 수리두고 저 올레에 막음두고.
- ⑨ 혼솔두솔 어릴적에 추위오카 염려허멍.

㉠번은 경서도 여러 지역 민요라는 제목 아래 채록되어 있다. 『한국민요대전-강원도민요해설집』에는 한국민요대전 민요분류표에 서도민요에 분류되어있다.¹¹⁹⁾ 강원도민요해설집에 채록되어 있지는 않아 그 실체는 알 수 없으나 분류에는 존재한다. 그럼 용천검은 서도민요로 존재하다가 경기도 지역으로 전파되어 경서도 소리로 존재하다가 제주도로 전파되었다고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데 ㉠번의 사설이 제주도 사투리 느낌이 많이 묻어난다. 용천검 자체가 많이 채록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상을 알 수는 없지만 ㉠번의 사설 중 ‘저 마당에 수리두고 저 올레에 막음 두고’ 을 보면 제주어로 보인다. 이런 관계로 언뜻 봤을 때는 제주도 민요라고 해

118) 양주들노래보존회, 2007년 문화관광부 전통예술 복원 및 시연 사업 『경기도 양주시 토박이 소리꾼의 소리』, 양주들노래보존회, 2007, 203쪽~204쪽.

119) (주)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강원도민요해설집』, 삼보문화사, 1996, 29쪽.

도 과언은 아니다.

2-5. 기타민요

(1) 성주소리

‘성주소리’는 『제주도부락지Ⅳ』 민요부분 중 노동요에서 발매는 노래에 수록되어 있다. 별도의 다른 명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2-2

성주로다 성주로다 / 요집의 성조가 어디러나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님의 / 다 늙은 손을 용고산이라
점쳤더니
밤은 드난 촌 이슬 맞고 / 낮은 드난 해 너미 발란
청장목이 뒤엇구나 / 황장목이 뒤엇구나
요재목을 내려 흐니 / 서른 세 명 역군님이
강태공의 서목시 들앙 / 대산의 올라 대목 베고
소산의 올라 소목 베영 / 온건 산천에 집을 거덩
☞ 재목에 궁을 지영 / 영고청천 흐르는 물
어디고 등당 디와 보자 / 이물에랑 이사공아
고물에랑 고사공아 / 허리때밋디 화장아야
물때 점점 늦어간다 / 손대바당의 배 띄와 놓고
함경도 원산 닷감개 소리 / 마산포 큰애기 고집만 세영
☞ 집 짓영 삼년만의 / 아들을 나난 효조 나고
뜯은 나난 열네로다 / 쉼는 나난 황췌나고
개는 나난 사농개여 <현유생, 여, 65세>¹²⁰⁾

‘성주소리’는 『제주의 향토민요』에도 ‘성주소리’로 기록되어 있어 그 명칭을 수용

12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濟州島部落誌Ⅳ』,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1, 182쪽~183쪽.

하였다.

한라199 복제주군 추자면 목리, 영흥리 성주푸리¹²¹⁾

성주로다 성주로다 성주 고향이 어딘고하니
정(경)상도 완도(안동)땅에 지(제)비연에 받은솔씨
해(소)평대평 던졌더니 밤으로는 이슬받고
낮으로는 양지쪽에 그솔이점점자라나서
황장뭍이디였느냐 도리지둥이되였느냐
금도치로 찍어낸게 은도치로 다듬어서
생강초를(초가삼간) 짓(지)어갓고
한간에는 시녀주고 한간에는 옥녀주고
옥녀시네 잠재놓고 본처방으로 잠자러가자

추자도에서도 비슷한 성주소리가 조사되었다. 성주소리는 무가인 성주풀이¹²²⁾에서 파생된 <성주풀이> 민요에서 다시 변이된 형태가 아닐까 생각한다.

(2) 선낙각시

‘선낙각시’는 『제주도부락지Ⅳ』 민요부분 중 노동요에서 김 매는 노래에 수록되어 있다. 별도의 다른 명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2. 김 매는 노래

2-1 선낙각시 씨앗이 굶언
 씨앗이엔 뜰으레 가난

121) 『나요당』, 433쪽~434쪽.

122) <성주풀이>는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된 무가巫歌인 <성주풀이>에서 파생된 민요이다. 무가 <성주풀이>는 집터를 관장하는 성주신의 근본을 풀이한 무가이다. 무가 <성주풀이>가 언제부터 민요로 불리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무가 <성주풀이>가 남도 지역 창우 집단의 고사광대 걸립패가 부르는 고사소리였던 것이 조선 말기에 도시 시민의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민요<성주풀이>가 되었다고 한다. 다른 견해로는 성주신에 대한 본풀이로 부르던 <성주풀이>가 오신娛神무가가 되고, 이것이 고사광대소리로 확장되는 과정을 거쳐 남도 음악인들이 부르는 민요가 되었다고 한다. 민요 <성주풀이>는 일제강점기에 남도 소리꾼들이 음반에 취입하고 방송에서 노래하면서 남도를 대표하는 통속민요 또는 남도잡가가 되었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6274> 검색일 2023.0716)

가른밭디	매마꽃꺾찌
희연번뜩	나앉아시니
나의 눈에	요만이 고을 적
임의 눈에	얼마나 조리

<표선면 성읍리 현순자, 여, 40세>¹²³⁾

사설 내용은 발매는 노동에 관한 내용은 없고 처첩갈등으로 신세한탄 내용이다. 선낙각시가 첩을 지칭하는 것인지 본인인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낙각시라는 첩이 미워 싸우러 찾아갔는데 발에 핀 꽃처럼 나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 내 눈에도 예쁘데 서방님 눈에는 얼마나 예쁠까라고 하는 처첩갈등에서 신세한탄으로 가는 내용의 민요이다. 이 민요가 <검질매는소리>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발매는 노동현장에서 불렸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남국의 민요』에도 비슷한 민요가 1. 자탄가에서 2. 씨앗노래로 분류하여 수록되어 있다.

<7>

씨앗이엔 트드레 가난
 같은 밭디 메메꽃굴이
 휘번듯이 나앉아서라
 내 눈에도 저만 흔 년이
 님의 눈에 더 훔 말 시라

<1959. 10. 표선면 하천리 송춘길님(여, 96세)>¹²⁴⁾

두 민요의 사설 내용이 동일하다고 할 정도로 내용이 매우 흡사하다. 『남국의 민요』에 수록된 것은 어떤 노동에서 불리었는 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진성기는 민요가 남요(男謠)와 여요(女謠)가 있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12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위의 책, 1991, 182쪽.

124) 진성기, 『南國의 民謠-濟州島民謠集-』, 제주민속연구소, 예원인쇄, 1991, 50쪽~51쪽.

부르는 남녀공요(男女共謠)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민요 여요인 것은 확실하나 어떤 노동을 하면서 불렀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남편이 첩을 얻어 미혹되자, 본처가 첩을 처단하기 위해서 굳은 결심을 하고 갔으나 첩은 갖은 교태를 보이면서 본처를 달랜다. 자신의 눈에 너무도 맵시있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하물며 남자의 눈에는 어떻겠느냐고 처단하겠다는 생각을 체념하면서 돌아온다는 유기적 서사구조를 갖춘 것이다.¹²⁵⁾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민요해설집에서 경상북도 민요의 사설적 특징을 설명하며 나오는 내용이다.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체를 보지는 못해 어떤 상황에서 불리는 민요의 사설인지는 알 수 없다.

제주도 <검질매는소리>의 유형 중 사데류 특징은 사데류- 굽이진사데소리인 경우 음구조는 비정형이고, 장단이 없으며, 훗소리를 기준으로 23초~1분10여 초 정도로 매우 긴 소리이다. 훗소리의 위치 상으로도 비고정형이다. 하지만 교환창으로 가창 되었을 경우 고정형으로 볼 수도 있다. 중간진사데소리인 경우 많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는 않지만 매우 기중한 소리이다. 소리의 음구조는 비정형이고, 장단이 없으며, 훗소리의 위치 상 비고정형이다. 진사데소리인 경우는 음구조는 정형이고, 명확한 장단은 없으나 늦은 세마치처럼 3박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훗소리 위치는 고정형과 비고정형이 모두 존재한다. 짝른사데소리는 음구조는 정형이고, 역시 명확한 장단은 없으나 3박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침사데소리는 음구조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랩 형식의 엮음소리이다. 매우 빠르며 사설의 내용은 매우 우스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 진사데소리의 중간에 불려진다.

사데류-뒤야로고나는 음구조는 정형이고, 훗소리 위치는 고정형이다. 장단은 비교적 명확하며 굿거리 장단에 속한다. 사데류-막바지사데소리는 음구조는 정형이

125) 『대전-경북』, 45쪽.

고, 훗소리 위치는 고정형이다. 장단은 비교적 명확하며 자진모리 장단에 속한다.

사대류에서 뒤야로고나와 막바지사대소리가 매우 성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아웨기류 특징은 모두 음구조가 정형이고, 훗소리 위치도 고정형이다. 장단도 정확한 편이다. 진아웨기소리인 경우 굿거리 장단에 속하고 짝른아웨기소리인 경우는 자진모리 장단에 속한다.

밭매는흥애기소리는 굽이진사대소리와 유사하고 다양한 노동현장에서 불려진다. 흥애기소리는 진토굿소리, 출비는소리, 꼴베는소리, 툇질소리, 나무내리는소리, 나무켜는노래, 흙덩이바수는노래 등 다양한 노동현장에서 불려졌다. 더럼소리 역시 흑병에부수는소리, 따비질소리 등 흙과 관련 있는 노동현장에 불려졌다. 이 두 민요는 흙덩이바수는노래, 흑병에부수는소리와 같이 같은 노동 현장을 공유하고 있으며, 사설면에서도 그런 공유의 모습이 보인다.

공유민요 특징은 하나의 민요가 2개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유민요 중 상사소리는 ‘상사디야요’라고도 불리는데 음구조는 정형이고, 훗소리 위치는 고정형이고, 장단은 굿거리장단이다. 상사소리는 우리나라 전도에 걸쳐 분포된 소리이다. 논매기 상사소리, 모심기 상사소리, 기타류 상사소리로 나눌 수 있다. 기타류는 경기도에서부터 보면 회달이소리, 전라남도 모찌는소리, 나무등짐소리, 집터다지는소리, 그리고 제주도 검질매는소리까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담벌소리는 제주도 무속 의례 석살림에서 불려지는 소리 중 하나이다. 아웨기소리와 서우제소리가 연관이 있듯이 담벌소리 역시 무가 담벌소리와 연관이 있다. 용천검은 창민요로 관덕정앞, 질군악, 사랑가, 오돌또기 등과 함께 옛 제주시, 성읍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민요이다. 용천검이 <검질매는소리>로 나타나는 지역은 표선면 가시리·성읍리이다. 옛 제주시에서는 <검질매는소리>로는 채록되어 있지 않다. 음구조는 정형이고, 훗소리 위치도 고정형이다. 장단은 세마치 장단이다. 사설의 내용은 밭매는 노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타민요 성주소리와 선낙각시는 음원을 확이할 수 없고 문헌 기록만 되어 있는 것이다. 성주소리와 선낙각시는 훗소리 기록되어 있지 않다. 성주소리는 육지 성주풀이와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선낙각시는 다른 지방에서도 비슷한 유형을 찾지 못하였다.

3. <검질매는소리>의 사설 유형

노동요의 사설 내용은 노동과 관련된 내용과 노동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노동요의 사설을 노동 관련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만 나눠 설명하기보다는 노동현장 상황과 구연자의 심리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설의 내용을 (1) 실무성 사설, (2) 놀이성 사설, (3) 표출성 사설로 나눠 설명한 것이¹²⁶⁾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검질매는소리>의 사설을 이 기준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3-1 실무성 사설

실무성 사설이라고 하면 노동현장에서 작업실태, 환경, 날씨, 도구관련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검질매는소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실무성 사설은 ㉗번과 같다.

㉗

검질짓곡 굴너른밭딕

사대로나 우경메게

앞명에랑 들어오곡

뒷명에랑 물러가라

사데불령 검질메게 (翰歸)¹²⁷⁾

㉗번은 잡초가 많고 넓은 밭에서 사데라고 힘쓰며 매자, 앞명에는 들어오고 뒷명에는 물러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 마치 밭이 움직여 가는 듯하다. 어느새 돌아보니 뒷명애가 멀어져 있는 모습에 더 힘을 내서 검질을 매자는 의미이다.

126) 변성구, 탐라문화학술총서 5집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도서출판민속원, 2007, 110쪽~115쪽.

127)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 - 상권 자료편』, 서울:민속원, 2002, 268쪽.

㉞

검질짓곡 굴너른밭디

조라움이 내 벗이로고나 (翰歸)¹²⁸⁾

㉞번은 6월부터 밭농사가 시작이 되면 일손이 부족하여 가족 누구든 밭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밭을 하나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니 매일같이 밭을 해야 한다. 검질때는 시기를 놓치면 농사를 망치게 된다고 한다. 해가 뜨기도 전에 밭으로 가서 일을 시작하니 졸음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졸음 쫓기 위해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한다고 한다. “저의 어머니는 노래보다 이야기를 그렇게 잘했어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걸 듣고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간 줄도 모르고 졸음도 잊어 붙고 일이 힘든 줄도 몰랐어요.”¹²⁹⁾ 밭매는 노동은 일의 힘겨움도 있지만 시간과의 싸움이라 졸음과도 전쟁이었을 것이다.

㉟

다물 7찌 모다들영

좁은 목에 도새기 물 듯

검질 메영 살아 보게

너른 목에 편깨치듯

좁은 목에 벼락치듯

화닥화닥 메여 보게 (翰月)¹³⁰⁾

㉟번의 ‘다물’은 별자리의 하나로 자그만한 별들이 뻑뻑하게 모여 반짝이는 별자리로 여름이면 자정 쯤에 동쪽으로 떠오른다. 제주 농가에서는 이 별자리를 보고 시간을 짐작한다고 한다.¹³¹⁾ 밭매는 노동현장의 모습이 상상이 된다. 사람들이 뻑뻑히 줄 지어 앉아서 밭을 매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번개, 벼락 등으로 빠르고 힘있게 일을 하자는 의미이며 ‘화닥화닥’도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말한다.

128) 김영돈, 앞의 책, 268쪽.

129) 현장조사 내용이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하귀2리에서 농사법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2023년 4월, 제보자 이경성.

130) 김영돈, 앞의 책, 270쪽.

131) 김영돈, 앞의 책, 54쪽 주석210번 참조.

㉔

드문 디랑 스꾸지 말곡
쫓인 디랑 스꾸와 가명
저 햇님이 지기 전의
흔저흔저 손을 놀령
이 아이덜아 졸지 말앙
소리헝명 메어나 보라 (翰歸)¹³²⁾

㉔번은 드문 곳은 속지 말고 잦은 곳은 속아 가면서 해가 지기 전에 어서어서
받을 매자. 졸지 말고 소리하면서 매어보자라는 일의 방법을 알려주고 일을 독려하
는 내용이다. ‘드문 곳은 속지 말고 잦은 곳은 속아 가며’는 조씨를 뿌리고 받을
때 째 보면 조씨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이 구분이 된다. 그런 조모종이 많은 곳
에서 적은 곳으로 옮겨 심거나, 속아내라는 뜻이다. 사설에 일의 방법을 엮어 부르
니 따로 일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 수고로움을 덜게 된다.

<검질매는소리>의 실무성 사설에 나타나는 내용은 일을 독려하고, 일의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들이다.

3-2 놀이성 사설

놀이성 사설은 재미삼아, 오락적 태도로 즐기기 위한 노랫말이라고 할 수 있
다.¹³³⁾ 말유희가 대표적인 것이고 이성관계물, 감상물 등을 들 수 있다.

㉕

산엔 가민 설장귀 소리
고진 가민 우김새 소리
저 드르헝 푸습새 소리
밭딘 들민 골강쇄 소리

132) 김영돈, 앞의 책, 271쪽.

133) 변성구, 위의 책, 2007, 119쪽.

질인 들민 정 7레 소리
베엔 가민 벧방귀 소리
물엔 들민 솜비질 소리 (翰歸)¹³⁴⁾

㉓번의 사설은 말유희이다. 조음을 맞춰 노래를 하고 있다. 산-설장구소리, 수풀-새소리, 들-역새소리, 밭-호미소리, 길-맷돌소리, 배-뱃고동소리, 바다-솜비소리로 장소에 따라 들려오는 소리들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놀이성 사설로 단연 으뜸은 추침사데소리 사설일 것이다.

㉔
얼싸 이나무 저나무 앓인베기 진달레꽃 양제목 서나무타고 이산구경 흥글망글
들어오는 소리로구나 얼싸 (애월읍 장전리)¹³⁵⁾

천지건곤 일월동아 흑도쓰고 봉도쓰고 광주 남산 줄을 부르는 소리로구나 얼싸
얼싸 (애월읍 납읍리)¹³⁶⁾

㉔번 역시 말유희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내용이 이어진다고 보기는 힘들다. 구연상황은 매우 빠르게 소리 지르면서 노래를 하기 때문에 노래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추침사데소리를 하고 나면 대부분 크게 한바탕 웃는다. 작업 현장의 환기를 시키는 역할도 하고 노동에서 휴식의 역할도 한다. 물론 유희적 놀이의 역할이 가장 크다. 추침사데소리를 할 때 옆에서 입으로 호로라기 소리도 내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웃고 떠들면서 잠시나마 힘겨움을 잊는다.

3-3 표출성 사설

표출성 사설은 구연자가 자신, 또는 자신이 포함된 계층의 경험과 인식, 감정 등을 노래로 드러내는 사설이다.¹³⁷⁾ 처첩간의 갈등, 애정, 가족애 등의 애정류가 있

134) 김영돈, 앞의 책, 272쪽.

135) 현장조사 내용이다. 2009년 5월 애월읍 장전리 제보자 고승열(여)

136) 현장조사 내용이다. 2009년 5월 애월읍 납읍리 제보자 진선자(여)

137) 변성구, 위의 책, 2007, 124쪽.

고, 늙음의 한탄, 신세한탄 등의 한탄류가 있다. 그리고 세상물정, 세상일치 등 교술적인 의미가 담긴 사설류가 있고 꿈, 희망, 소망 등 소망류가 있다. 신앙과 풍토의 내용들도 있다.

㉓

2-3 (각 行이 끝날 때마다 ‘아아아양 에용 에야’하는 후렴이 따른다.)¹³⁸⁾

앞명에야 들어나 오라 / 뒷명에야 넘어나 가라
 오늘 흐를 여기서 놀면 / 내일은 어디를 가나
 노세 놀아 젊어서 놀아 / 늙어 병들면 못노리다
 시집살이 굿언디 조은디 / 우럭 닳은 씨할아바님에
 열레기 닳은 씨할머님에 / 살저 하니 고생이 뉘고
 죽젠 하니 청춘이로다 / 장독 닳은 씨아바님에
 암전복 닳은 씨어머님에 / 코생이 닳은 씨누이에
 물구력 닳은 서방님에 / 살쟁 험난 고생이라라
 씨할아바님은 나를 보민 / 어력궂찌 성긷고
 씨할바님은 나를 보민 / 열레기궂찌 성씩고
 씨어머님은 나를 보민 / 암전복궂찌 오드득고
 씨누이는 나를 보민 / 코생이궂찌 조르륵고
 서방님은 나를 보민 / 물꾸력궂찌 영주아 안나
 살저 하니 고생이고 / 죽저 하니 청춘이로다 (현남여(여))

㉔번은 훗소리 형태를 보면 아웨기소리로 추정된다. 본질 첫 사설이 없다면 <김질매는소리>라는 것을 전혀 모를 정도로 발매는 사설은 없다. 늙음의 한탄으로 더 늙기 전에 놀자고 한다. 그 이후 시집살이 이야기이다. 온통 시대식구들을 홍보고 있다. 자신의 처지가 편하지 않다고 살자니 고생이고 죽자니 청춘이라고 한탄을 하고 있다.

㉕

애월읍 납읍리 <김매는 노래>¹³⁹⁾

13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위의 책, 1991, 183쪽~184쪽.

139) 제주대학교 국어국문·국어교육과, 『학술조사보고서 -안덕면 덕수리·애월읍 납읍리-』 제7집, 동

사대불령 훈멍에가게	여기요랑 사대로구나
검질짓곡 골늦인빚디	훈꺼번에 열내멍메자
어화낭천 사대로구나	총각차라 물에나들게
양석싸라 섬의나가게	앞멍에랑 들어나오라
뒷멍에랑 물러나나라	어는제랑 앞멍에가코
사대불르멍 앞멍에가게	일천제미 재미도아니여
요검질랑 질긴냥말라	버석버석 메어나가게
사대불령 앞멍에가자	검절손에 나가는곡석
마누라손에 나가는아기	흘수엇다 어찌나허리
어화낭천 상화로구나	독은울민 날이나샌다
내사운덜 어느날새리	

㉔번은 발매는 노동 현장을 노래하면서도 닭이 울면 날이 새고 내가 운다고 어느날이 새겠느냐고 신세한탄을 하고 있다.

㉕

구좌읍 한동리 <아웨기>¹⁴⁰⁾

어양어양 어야로다 어양어양 어야로다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이삼사월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마라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중략>
오늘오늘 오늘이로다 날도좋고 오늘이로구나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매일장삼 오늘이면 성도나얼만 가실손가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중략>
뒷밭로랑 허우치멍 서렘서렘 빌려도줍써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성복고동 조은여로 용왕님아 득달을헛서	아아아양 어양 에에요 <중략>

㉕번은 아웨기소리이다. 사설의 내용이 덕담소리에서 나타나는 사설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웨기소리가 무속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날이 좋아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이런 사설로 대신했을 수도 있다.

㉖

양산업사, 1982, 191쪽~192쪽.
140)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11』,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5. 219쪽~220쪽.

<검질 때는 소리>¹⁴¹⁾

A: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B: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A: 앞뒷명에 다 나고나 간다	B: 아 형 허야 디야로구나 <중략>
A: 아 저 산천에 흐르는 물은	B: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A: 아 오만 남쌌 다 썩은 물	B: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A: 아 요내야 눈으로 내리는 눈물	B: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A: 아 눈에 눈물 피가 난다	B: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A: 아 해다 지고 날 정근이 날에	B: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A: 아 골목골목 연기만 난다	B: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A: 아형 어기야 디야로구나	B: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A: 아 너와 나와 만날적에	B: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A: 아 백년 살라고 만났는데	B: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A: 아 너와 나와 영 이별홀 제	B: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A: 아 경찰서가 웬 말이더냐	B: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A: 아형 어기야 디야로구나	B: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A: 아 산에 가난에 살장기 소리	B: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㉞번은 발매는 사설에 이어 산에서 흐르는 물을 자신의 눈물에 비유하고 그 눈물이 피눈물이라고 한탄을 한다. 이어서 해가 지고 골목골목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는 일산의 모습을 노래한다. 그리고 연인과 백년을 살자고 만났는데 어찌 이별을 하는가로 이어지면서 한탄을 한다는 내용이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엮어 붙렸다.

141)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16』, 도서출판 세림, 2000, 302쪽.

IV. <검질매는소리>의 분포 양상

1. 제주도 환경과 밭농사의 특징

1-1. 제주도 환경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특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림 같은 산과 들과 오름과 바다가 공존하는 진정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화산섬이라 그 땅은 메마르고 물이 고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논이 드물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식량인 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식수가 모자라 제주민의 삶은 언제나 부족함에 연속이었다. 바람이 거세고, 태풍이 많아 번번이 물난리를 겪어야 했다. 이렇듯 자연환경만으로도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데 수백 년 동안 왜구의 침략을 받으며 크고 작은 약탈을 당해야만 했다. 몽골의 침략도 제주민의 삶을 황폐화 시키는데 많은 일조를 했다.

탐라국으로 존재해 오다 고려시대에 고려로 복속되면서 중앙정부에 많은 진상품을 올려야 했다. 조선시대로 오면서 그 정도는 더욱 심해졌다. 수많은 제주민이 지독한 가뭄과 태풍 피해로 굶주려 죽고, 어업을 하다 바다에서 죽고 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다. 제주 섬 바깥으로 제주민들이 살 길을 찾아 떠나면서 섬의 인구가 점점 줄게 되자 17세기 초에 약 2백 년 동안 정부는 출륙금지령을 내려 제주민의 발목을 붙잡는다. 이런 사회 역사적 배경이 제주민의 억척스러운 자립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삶이 제주민요에 그대로 녹아 있다.

제주도는 한반도의 서남쪽에 위치 해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다. 면적은 1,850.28km²이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거제도보다 5배 정도 큰 섬이다. 평면도의 형태는 장축이 단축보다 2.4배 긴 타원에 가까운 형태로 되어있다. 장축이 북동방향에서 남서방향으로 위도가 약 15도 정도 기울어진 모습이다. 제주도 본섬의 주변 부속 섬은 동쪽으로 우도, 북쪽에 추자도, 비양도, 차귀도, 남서쪽에 가파도, 마라도, 남쪽에 범섬, 문섬, 새섬, 섯섬 등이 있다. 여기서 사람이 사는 섬은 우도,

추자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등이다. 이 중 마라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섬이다. 제주에서 목포와의 거리는 약 195km로 배로 약 4시간 정도 소요되고, 부산이나 대마도와의 거리는 약 330km로 배로 약 10시간 정도 소요된다.

제주도는 그 자체가 1,950m의 높이를 자랑하는 한라산이라 하여도 과연 아니다. 제주도 전체가 한라산이라는 단일한 순상 화산체라는 설이 정설이다. 한라산 정상에서 바닷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오름(기생화산) 360여 개가 넘게 존재하는데 모두 분화구를 가지고 있다. 해발고도 200m 이하 지역은 제주도 전체면적의 55.3%로 해안지대이다. 고도 200~500m의 중산간 지대는 27.9%, 고도 500~1,000m는 12.3%, 고도 1,000m 이상의 고산지대는 4.5%이다. 해발 200m 근처만 가도 험한 산지가 나타나는 한반도의 자연 경관과는 사뭇 다른 해발 500m 이상의 높은 고도에서도 완만하고 평평한 고원지형이 나타난다.

한라산은 아직 화산폭발이 가능한 휴화산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세종실록』 「지리지」(1454), 『고려사』 「오행지」(1451),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등의 역사서에는 “고려 목종 5년(1002년) 6월, 탐라의 산에 4개의 구멍이 열려 붉은 물이 솟아 나오더니 5일이 지나서야 그쳤다. 그 물은 모두 와석이 되었다”, “목종 10년(1007년), 탐라에 서산(瑞山)이 바다 가운데서 솟아났다”는 제주에서의 화산활동이 직접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록에 근거하여 제주도 내 비양도, 군산, 우도, 가파도 등 여러 지역이 역사서에 기록된 지역일 것이라고 추정되어 왔다. 또한 제주도는 이 기록에 근거하여 『세계화산백과사전(Encyclopedia of volcano)』에 활화산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역사서에 기록된 화산의 실체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¹⁴²⁾

제주도는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섬인 관계로 토양도 매우 독특하다. 제주도 지표의 주요 구성암석은 감람석현무암, 조면암, 조면질안산암, 응회암, 화성쇄설층(송

142) 고문헌에 기록된 화산 지역을 송악산, 비양도, 일출봉 등을 토양 조사를 통해 연대 측정된 결과 송악산은 4,300년~6,700년 사이에 수성화산활동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비양도는 3,900년~4,500년 사이에 형성되었고, 일출봉은 5,000년~7,800년 사이에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에 아무리 젊은 화산(오름, 산 등)이라고 하여도 그 생성시기가 1,000년 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고문헌의 재해석을 제언하였다.(안웅산, 「고문헌에 기록된 제주도 최후기 화산활동에 관한 연구」, 『암석학회지』 제25권 제1호, 한국암석학회, 2016, 71~81쪽.)

이) 및 사구로 형성되어 있어 한반도 내륙과는 차이가 있다. 감람석현무암은 화산에서 분출되는 용암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암석이다. 용암에서 빠져나온 가스 때문에 슬래그모양의 많은 기공이 형성되어 다공질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다. 현무암은 흔히 감람석을 함유하는데 그 양이 많은 경우 감람석현무암이라고 한다. 조면암은 유문암보다는 이산화규소가 적고 알칼리가 많은 알칼리계열에 속하는 화산암, 표면이 까칠까칠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으로 색깔은 담회색, 녹색을 띤 회색, 분홍색 등을 띤다. 조면조직은 장석의 작은 결정이 거의 평행으로 배열된 석기로 되어 있다. 응회암은 화산 분화 시 화구에서 분화한 직경 2mm 이하의 화산재로 만들어진 암석이다. 화산 분화에서 방출되는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의 3가지 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화산 가스는 주로 증기, 이산화탄소 및 황 화합물(온도에 따라 이상화황 또는 황화수소)로 만들어진 혼합물이며, 둘째, 용암은 마그마가 지표면 위로 흘러넘칠 때의 이름이며, 셋째, 테프라는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튀어나오는 모든 모양(각지거나 또는 둥근)과 모든 크기의 고체 물질 덩어리를 말한다. 특히 테프라는 화산 내부의 마그마가 뜨거운 화산 가스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해 날아갈 때 주로 만들어진다. 마그마는 일반적으로 지표면에 흘러나올 때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용액에 녹아있는 가스가 탈출하면서 폭발한다. 이러한 격렬한 폭발로 인해 화산에서 날아갈 수 있는 단단한 물질이 생성된다. 화산학(화성암석학)에서는 지름 2mm보다 작은 덩어리(모래 크기 이하)를 화산재라고 부른다. 화산재는 분출되고 퇴적된 후 고화작용이라고 불리는 단단한 암석으로 다져지는 작용을 거친다. 응회암은 화산재가 쌓여서 고화되는 고정을 중시하면 퇴적암으로 분류하며, 화산재가 생성된 성인 즉 마그마로부터 만들어진 것을 강조하면 화성암으로 분류한다. 제주도 지표가 이러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물을 투과하는 성격을 띤다. 제주도 내 천은 건천으로 비가 많이 올 때만 내천이 흐른다.¹⁴³⁾ 이런 계곡은 한라산 중간 부분에서부터 시작한 Y계곡이 마치 혈관처럼 제주 전역에 이어져 있다.

우리나라 토양 조사는 1936년도에 농경지에 대한 토성 조사사업이 시작되었다. 토양분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토양분류단위이며 표토를 제외한 심토의 특성이 유사한 페돈(Pedon)을 모아 하나의 토양통으로 구성한다. 토양통은¹⁴⁴⁾ 제주도의

143) 문경환·임한철·현해남, 「기후요인에 의한 제주도 토양분포」, 『한국토양비료학회지』 제42권 5호, 한국토양비료학회, 2009, 348쪽.

농경지 토양은 3개의 토양통, 18개의 토양구로 분류되었으며 화학적 특성은 일본에 의해 어느 정도 밝혀졌으나 각 토양의 분포상태를 표시한 토양도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밀토양조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밀토양조사에 앞서 196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전국 토양의 개략 조사사업을 착수하여 정밀조사의 기초자료 제공에 목적으로 1963년에 대표 개간지 조사를 통해 4개 토양통을 분류하고 1:20,000 토양도를 작성하였다. 1969년에 중산간지의 7개 지역 및 옛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정밀토양조사결과 17개의 토양통과 26개의 토양구 그리고 92개 토양상으로 분류하였다. 1974년, 1975년에 걸쳐 추자군도를 포함한 정밀조사를 완료하여 63개의 토양통, 71개의 토양구, 169개의 토양상으로 구분하였다. 그후 5개년 발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추가 조사 결과 3개의 토양통, 4개의 토양구, 9개의 토양상을 추가로 세분하여 제주도 토양을 66개의 토양통, 75개의 토양구, 178개의 토양상으로 분류하였다.¹⁴⁵⁾ 우리나라 전체 토양통은 총 378개로 분류되는데 그 중에 17.4%가 제주에 존재한다. 그만큼 제주의 토양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제주도에는 속칭 뜬땅으로 알려진 화산회토가 본도의 남부와 동북부 그리고 오름에 분포한 반면에 육지부 토양과 유사한 속칭 관땅으로 알려진 암갈색토와 적황색토가 본도의 북부와 북서부에 분포한다. 그 외 논으로 이용되고 있는 회색토가 다소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화산회토는 제주도 외에 경북 울릉군의 성인봉 인근이며 현무암에 기인된 용암류대지 토양은 경기도 연천군의 한탄강변에 다소 분포한다.¹⁴⁶⁾

뜬땅 화산회토는 농업측면에서 볼 때 토양용적밀도가 낮고 삼상분포에서¹⁴⁷⁾ 고상이 적어 가볍고 수분 보수력은 크나 내부 배수가 빠르며 분석(噴石) 및 석력(石礫) 함량이 많고 가소성이 적으며 건조 시 응집력이 감소되어 풍침식 및 수침식이 우려됨으로 표토의 피복, 답압(踏壓), 심경(深耕) 및 객토(客土)가 고려되어야 한다.¹⁴⁸⁾ 어느 정도 배수가 좋은 지 다음 사진을 보면 이해가 빠를 수 있다.

144) 토양통은 그 토양이 제일 먼저 발견된 지역의 지명, 산이나 강의 이름을 따서 붙인다.

145)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토양원색도감』, 일신옵셋인쇄사, 2000, 11쪽.

146)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위의 책, 2000, 14쪽.

147) 삼상분포는 흙의 구성 요소인 공기, 물, 양분으로 나뉘서 그 분포를 따지는 것을 말한다. 공기는 기상, 물은 액상, 알갱이와 유기물 즉 양분은 고상이라고 한다.

148)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위의 책, 2000, 15쪽.



그림 3 구좌통

그림3 구좌통은 제주도 동북부 조천읍 인근의 용암류 대지에 분포한다. 속칭 뜬 땅으로 알려져 있다. 토심이 20cm 내외로 매우 얇은 토양이다. 표토는 농암갈색 바위가 있는 미사질식양토이며 기층은 암황갈색 미사질양토 그리고 기층 하부는 현무암 암반층이다.¹⁴⁹⁾ 기층 하부에 흙이 없고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물을 머금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완전히 배수를 해서 비가 오고 날이 조금 좋아도 바로 가뭄 현상이 일어나는 결과를 낳는다.

토양은 기후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주도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대륙 동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계절 변화

가 뚜렷한 동안 기후의¹⁵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기의 변화가 뚜렷하며,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제주도 겨울이 짧고 여름이 긴 편이다. 겨울철에는 강한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으며, 여름철에는 남서·남동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섬의 중앙에 한라산이 있어서 지역별로 기후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면에 따른 기후 차는 환경과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쳐 다양한 지리적 경관들을 관찰할 수 있다. 쿠펜의 기후 구분에 의하면 제주의 기후는 산간 지방을 제외한 지역이 겨울철에도 온화하고 강수량이 비교적 고르게 내리는 아열대 습윤(Cfa) 기후구에 해당한다.

제주의 연평균 기온은 15.5°C이고, 가장 따뜻한 달인 8월의 평균 기온은 26.5°C이며, 가장 추운 달인 1월의 평균 기온은 5.6°C이다. 옛 제주시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 고산의 연평균 기온은 15.5°C이고, 최난월 8월의 평균 기온은 26.1°C이며, 최

149)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위의 책, 2000, 48쪽.

150) 대륙 동안 기후는 대륙의 동쪽에서 탁월하게 나타나는 기후로서, 여름과 겨울 각기 다른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후, 즉 계절풍 기후를 말한다. 따라서 기온의 연교차가 크기 때문에 한서의 차가 크고 건계와 우계가 뚜렷하다.

한월인 1월의 평균 기온은 6.3°C이다. 고산이 제주보다 겨울철 기온이 높은 이유는 바람이 강하여 냉각이 덜 일어나지만 고산보다 바람이 약한 제주는 냉각이 더 활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변에 흐르는 해류도 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제주도의 연강수량은 1,000~1,800mm 정도로 우리나라의 최대 다우지이다. 옛 제주시의 연평균 강수량은 1,456.9mm로 서귀포의 1,850.8mm, 성산포의 1,840.9m보다는 적다. 그러나 고산은 1,094.7mm로 제주보다 매우 적은 양을 보여 지역 간 강수의 분포 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예로부터 풍다(風多) 지역으로 유명하다. 연중 바람 부는 날의 빈도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강풍의 빈도 또한 많다. 제주의 연평균 풍속은 3.8m/s이지만 고산은 6.9m/s이다. 서귀포의 3.1m/s, 성산포의 3.1m/s에 비하면 한라산 북서사면이 훨씬 바람이 강하다. 고산에서는 최대 풍속이 13.9m/s를 넘는 날이 80일을 초과할 만큼 바람이 강하다. 그런 날이 제주는 14.5일이며, 서귀포는 2.8일, 성산포는 0.9일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역별 토양과 기후의 차이를 지역별 농업 형태의 차이로 나타낸다. 제주도는 토양의 성질에 의해 전작문화권(田作文化圈)에 속한다. 토양이 가볍고 수분을 머금고 있지 않고 대부분 투수하기 때문에 논농사 짓기가 어렵다. 그리고 밭농사에서 배수 걱정이 없어 파종 방법은 살파에 의존한다. 심지 않기 때문에 농사법이 타지역과 다를 수 밖에 없다.

1-2. 제주도 농사의 특징

제주의 밭농사는 크게 여름 농사와 겨울 농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여름 농사는 조를 비롯한 콩, 고구마, 팥 등 여러 가지 작물을 하고, 겨울 농사는 보통 보리농사를 말한다.

제주도 농사방법 중에 천연비료로 밭의 지력을 높이는 방법이 다양한데 동부지역은 돛거름, 쇠거름, 재거름, 바령, 보토 등으로 돛거름은 돼지우리에서 얻어진 돼지거름을 말하고, 쇠거름은 외양간에서 얻어진 소의 배설물을 말하며, 재거름은 난방용 아궁이와 부엌 아궁이 등에서 얻어진 재를 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바령은 소나 말을 낮에는 산야에 풀어놓고 밤에 빈 밭에 가두어 소나 말의 배설물로 밭의

지력을 높이기 하는 방법이다. 보토는 잔디나 흙을 보충하여 밭의 지력을 회복시키는 방법이다. 서부지역은 돛거름, 거름콩, 재거름 등이 있다. 거름콩은 쉬는 밭에 하지 무렵에 콩을 갈아 7~8월에 콩을 갈아 엮어 땅속에서 콩을 썩혀 밭의 지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제주도에서 밭의 지력을 높이는 방법이 동부지역에서 더 다양한 모습을 한다. 그만큼 제주도 동부지역 농경지의 생산력이 서부지역보다 열악했기 때문이다.¹⁵¹⁾

제주도 동부지역인 경우는 밭을 해발고도에 따라 가름밭-중난전-난전으로 나눈다. 가름밭은 마을 안에 있는 농경지를 말하고, 중난전은 마을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는 농경지를 말한다. 난전은 마을에서 많이 벗어난 곳에 있는 농경지이다. 질밭은 토질이 질척질척한 질흙 밭이라는 말이다. 반면 서부지역은 토질의 조건에 따라 질밭-머흙밭-뜯머흙-뜯밭으로 분류한다. 머흙은 자갈한 돌멩이 즉 자갈을 말하는데 머흙밭은 머흙과 질흙으로 이루어진 밭을 말한다. 뜯머흙밭은 뜯 즉 질흙과는 반대로 화산회토가 많이 섞여 부석부석한 흙으로 자갈과 뜯흙이 같이 이루어진 밭을 말한다. 뜯밭은 회산회토로 보통 소의 월동 사료를 재배하는 밭이다. 제주도 동부지역은 토질의 조건이 단순하여 밭의 위치로 분류하는 것이고, 서부지역은 토질의 조건이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 목축과 농경을 이용하여 토질의 비옥도를 높이기 위한 목전법(牧田法)인 바령은 제주도 동부지역에서는 전승되고 있지만, 서부지역에서는 전승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¹⁵²⁾ 그만큼 서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비옥한 토질이라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조의 파종은 음력 6월 초하루를 전후해서 이루어진다. 조파종은 보리농사 끝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수가 많다. 파종 전에 두어 번 밭갈이가 이루어진다. 그 이후 파종을 한다. 급하면 별도의 밭갈이 없이 바로 조 파종을 할 때도 더러 있다. 파종한 후에 우마(牛馬)를 이용하여 밭을 밟기도 하고, 돌로 만든 돌테와¹⁵³⁾ 나무로 만든 낭테를¹⁵⁴⁾ 사람 또는 마소에 매어 끌며 땅을 밟는다. 토양이 가벼워

151) 고광민, 『제주 생활사』, 제주: 한그루, 2018, 48쪽~53쪽 요약.

152) 고광민, 『제주 생활사』, 제주: 한그루, 2018, 59쪽.

153) 돌테는 제주에서 쓰던 농기구로, 파종 뒤에 땅을 다져주는 농기구의 하나이다. 원기둥 형태로 원기둥을 눕혀 양쪽에 보조기구를 달고 굴려서 땅을 다지는 것이다. 원기둥은 모양내서 돌출있는 부분과 돌출이 없는 부분으로 만들어 돌테를 굴렸을 때 땅을 다지는 효과를 높였다. 보통 돌테의 통의 직경은 20cm, 길이는 60~80cm 정도이고 주로 현무암으로 만들었다.

154) 낭테는 돌테와 그 기능은 동일하며, 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이 다르다. 나무로 만들다보니 돌출모양이 돌테에 비해 많이 두드러진다. 수명은 반영구적인 돌테에 비해 매우 짧다. 약 3년 정도 사용

바람에 날려 버리니 씨앗을 땅에 잘 붙어 있게 하기 위함이다.¹⁵⁵⁾

조 파종을 하고 20일이 지나면 5센티미터쯤 자란다. 이때부터 발매기가 시작된다. 조모종은 발아가 잘 된 것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모종이 촘촘히 난 곳의 것을 뽑아다 들판에 심고 방을 고른다. 한 조리 쪽으로 조 모종의 방(房)을 마련해 준다. 이런 일을 두고 방골름이라 한다. 첫 발매기의 방골름은 김매는 일도 없진 않으나, 모종의 방을 찾아주는 일이 우선이다. 그래서 첫 발매기를 두고 씨스꿈검질, 방골름검질, 거리세움검질이라고 한다.¹⁵⁶⁾ 초벌매기를 할 때 조 싹이 너무 작으면 쉼는 작업만 하는데 이런 쉼는 작업은 두벌, 세벌매기까지도 이어진다. 두벌매기 할 때 비가 와야 조 싹을 빈 곳에 옮겨심기가 수월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잡초도 뽑는다. 두벌매기부터는 김매는 작업이 복잡해진다. 조 싹을 쉼기도 하고, 빈 곳에 옮겨 심기도 하고, 잡초를 뽑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작업을 수행해야 해서 밭에 오랜 시간 있어야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후 15일 간격으로 모두 3~4회에 걸쳐 발매기가 이어진다. 파종 이후 두 달 가량 8월까지 발매기가 이루어진다. 조 수확은 상강(霜降) 전에 거두어들인다. 낮으로 베어 밭에서 말린 다음 집으로 운반한다. 일정한 장소에 놀(가리)을 만들어 저장한다.¹⁵⁷⁾

조 농사가 끝나갈 때쯤 보리농사를 시작한다. 상강과 입동 사이에 보리 파종을 하는데 보리농사는 겨울 농사이다. 일반적으로 그냥 파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리씨를 거름과 섞어 파종을 한다. 비료가 없던 시절의 농사법이다. 일년을 모은 거름을 마당 밖으로 내쳐 물을 빼고 썩힌 후 보리씨와 섞어서 파종을 한다. 이후 입춘이 지나 보리싹이 어느 정도 나면 발매기를 한다. 발매기를 많이 하는 경우 두 번 정도 하고 망종이 되기 전에 수확을 한다.¹⁵⁸⁾

검질매는 작업은 일년 내내 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그중 조 농사 때가 가장 힘든 노동이고 장시간을 밭에 있어야 한다. 조 농사를 할 때 다른 여름 작물도 같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발매기 작업은 매일 해야 하는 고된 노동이 된다. 이러한 사정이 <검질매는소리>의 유형을 많이 만들어낸 것이다.

할 수 있다고 한다.

155) 현장조사 내용이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하귀2리에서 농사법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2022년 6월, 제보자 이경성.

156)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서울:대원사, 2004, 99쪽.

157) 현장조사: 2023년 5월 고대성.

158) 현장조사: 2023년 4월 이경성.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지역적 분포를 지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유형별 <검질매는소리> 분포 양상

<검질매는소리>는 제주도 전체에 고르게 분포한다. 사데소리의 균등하고 균질적 분포가 이어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다. 이 소리의 제주 전역의 지역 유형적 성격을 강조하여도 틀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데소리의 전체 분포와 특정한 사데소리 하위의 지역 유형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애월읍과 표선면의 사례에서 면밀하게 나타난다. 그러한 점을 환기하면, 제주도 <검질매는소리>는 단순하지 않음이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그림 6은 <검질매는소리>에 대한 조사자료를 근거 삼아 정리한 총괄적인 지도에 해당한다. 제주시에 소리가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서귀포시에는 단조로운 소리 분포만이 보인다.

조천읍, 구좌읍, 성산읍, 우도면, 표선면, 남원읍, 옛 서귀포시, 안덕면, 대정읍, 한경면, 한림읍, 애월읍, 옛 제주시로 제주 전 지역에 '사데소리'가 전승되고 조천읍,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옛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아웨기소리'가 전승되고 있다. '사데소리'와 '아웨기소리'가 함께 전승되는 지역은 옛 제주시, 조천읍, 구좌읍, 성산읍, 옛 서귀포시이다.

'발매는흥애기소리'는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제주시에서 전승되고 있다.

전승 지역 범위가 협소한 <검질매는 소리>는 '막바지사데소리', '추침사데소리', , 공유민요, 기타민요이다. '막바지사데소리'는 조천읍, 성산읍, 남원읍에 전승되고, '더럼소리'는 남원읍에서만 전승되는 모습이다. '추침사데소리'는 안덕면, 애월읍에서 전승되는 것으로 보인다. '용천검'이 표선면에서만 전승되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담벌소리'가 성산읍 삼달리, 표선면 성읍리, 옛 제주시에서 전승되어지고 있다.

지역적 전승 양상은 제주도의 자연환경, 인문적 지리환경을 고루 조건을 따져야 하고 읍면 단위로 같은 지역에서 전승 양상이 달리 보이는 조천읍 선흘리와 표선

면 가시리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산복과 산남을 넘어나 드는 길목이라 같은 지역에서 다른 전승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사회역사적 배경이 제주민의 억척스러운 자립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삶이 제주민요에 그대로 녹아 있다.

옛 제주시에서도 서쪽지역의 애월읍 같은 데서 집중적으로 소리가 분포되어 있으며, 옛 제주시, 조천읍, 구좌읍 등에도 소리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옛 서귀포시에서는 표선면이나 남원읍, 성산읍 등지에서도 소리가 다양하게 등장하며, 특화된 소리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제주도 서쪽에 해당하는 제주시 한경면, 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 등에서도 각별한 소리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포도의 핵심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소리의 분포가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밭의 토질이나 크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 소지가 있다. 그 가운데서도 들이 넓고 사람들의 수가 많은 곳에 다양한 소리가 발달하고, 여러가지 소리의 단계적 발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리 전체의 다양성은 옛 제주시와 제주시의 서쪽과 동쪽이 많은 것을 확인하게 된다. 소리는 토양, 인구, 사람의 조직이 긴밀하게 연계되는 것을 알게 한다. 사람이 일을 하고, 그 일에 일감하여 다양한 소리와 예술적 창조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제주도 민요의 노동요 가운데 <검질매는소리>가 꽃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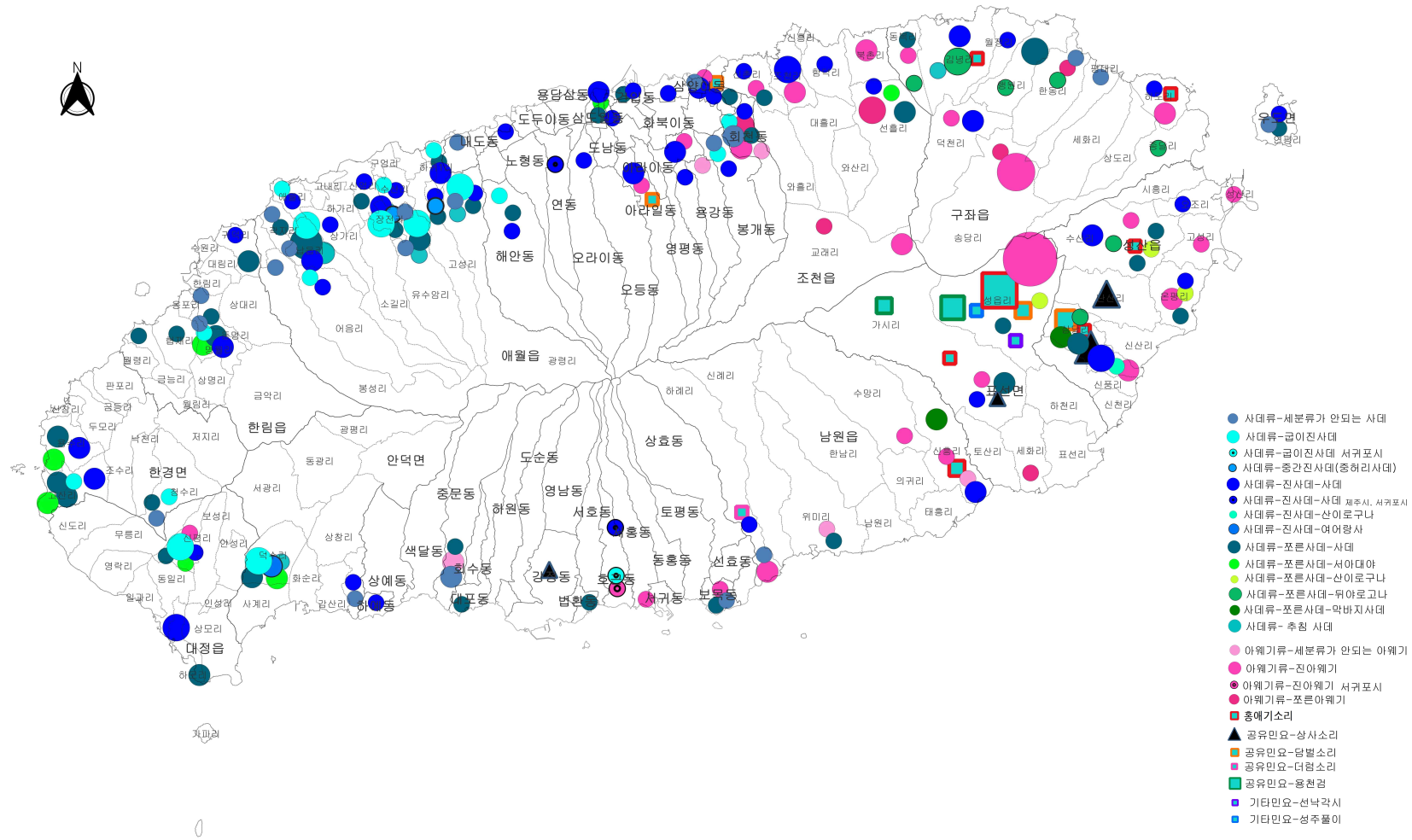


그림 4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전체 분포도

2-1. 사데류

사데류는 크게 진사데소리, 짝른사데소리, 추침사데소리로 나뉜다. 진사데소리와 짝른사데소리가 제주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다음은 사데류 분포지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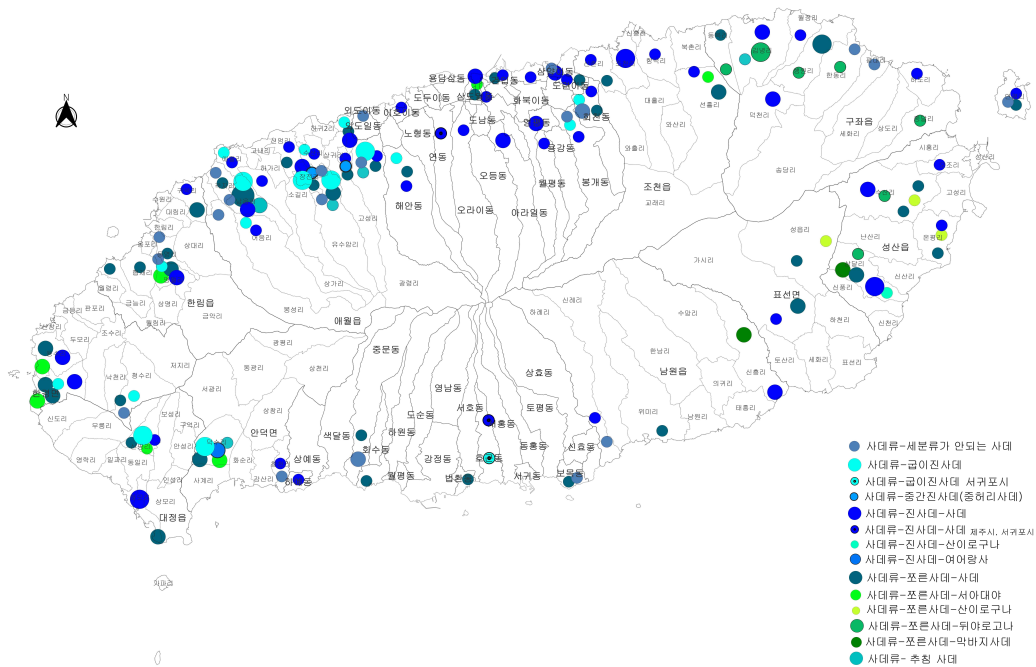


그림 5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사데류 전체 분포도

사데류 분포는 읍면단위로 보면 모든 지역에 존재한다. 애월읍 지역이 가장 다양한 사데류가 분포되어 있다. 굽이진사데, 중간진사데, 진사데-사데, 추침사데 이렇게 홑소리도 사데에 집중되어 있다. 사데류 분포 양상은 제주도 서쪽 지역으로 옛 제주시를 포함하여 애월읍, 한경면, 대정읍이 다양한 사데류가 분포하고 있고 제주도 동쪽 지역인 조천읍,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은 진사데와 짝른사데소리가 주종을 이룬다.

(1) 진사데-굽이진사데소리

굽이진사데소리는 주로 뜻이 없는 여음구로 구성되어 있다. 사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긴 여음 끝에 한마디 정도이다. 소리는 매우 길고 시김새는 매우 화려하다. <검질매는소리> 중 가장 긴소리이다. 소리가 정형화가 되지 않은 모습에서 가장 원시성을 가지고 있다. 굽이진사데소리 분포 지역은 옛 제주시,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옛 서귀포시 지역으로 제주도 서쪽 지역에 분포한다. 다음은 굽이진사데소리 분포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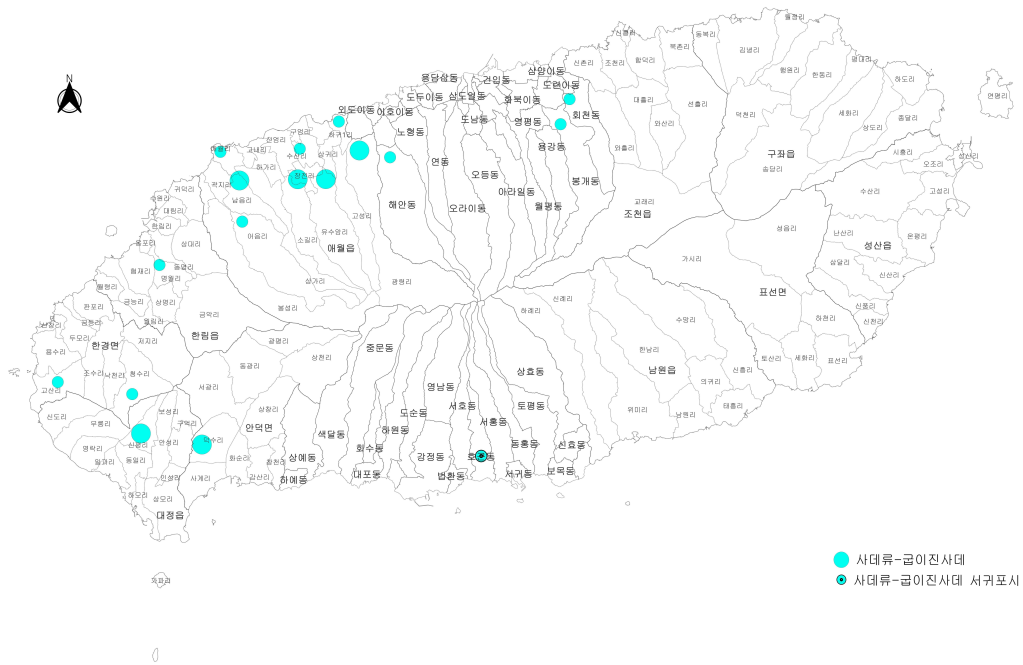


그림 6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진사데-굽이진사데소리 분포도

굽이진사데소리가 제주도 동쪽지역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분포 양상을 띄고 있다. 이는 제주도 서쪽과 동쪽의 농사법이 달라서이다.

동부지역에 비해 서부지역의 농경지도 넓고 토질이 보다 조금 더 나으니 농사가 그나마 잘 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부지역의 이런 사정이 굽이진사데소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을 것이고 동부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다.

<검질매는소리> 굽이진사데소리가 전도에 퍼져 전승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상 농사일에 그 민요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 민요는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가는 것이다.

(2) 진사데소리-사데와 짝른사데소리-사데

제주도 전역에 분포한 사데류 <검질매는소리>는 진사데소리-사데와 짝른사데소리-사데이다. 분포 지도를 보면 이 두 민요의 분포양상이 아주 흡사한 모습이다.

이 두 개의 민요가 빠르기만 달리하여 짝을 이루어 불려졌다. 기록에서도 진사데소리를 하고 나면 짝른사데소리를 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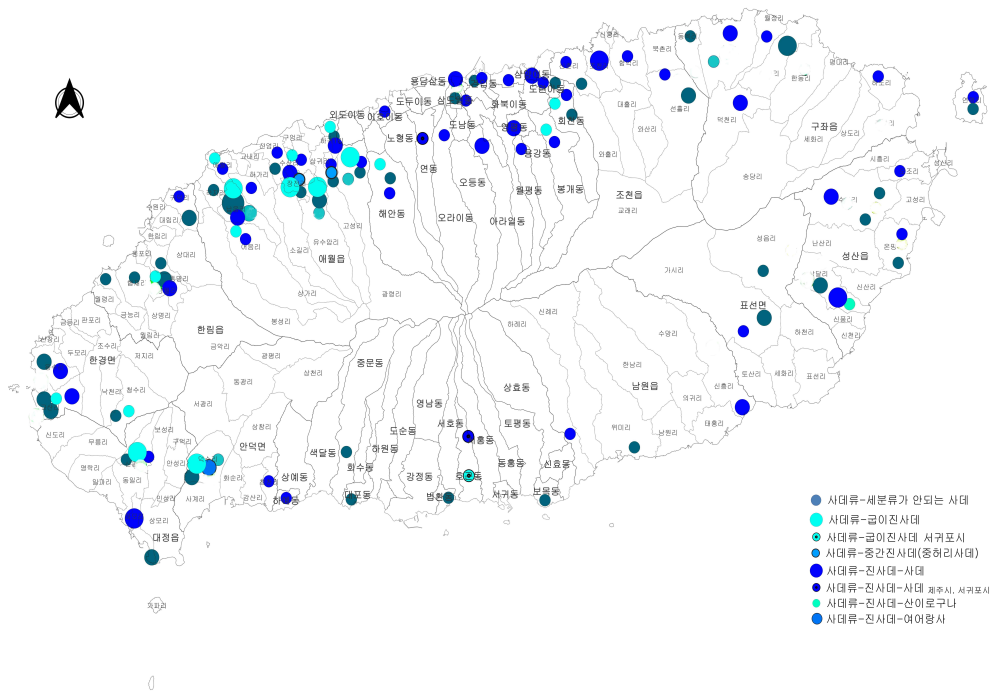


그림 7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사데-진사데소리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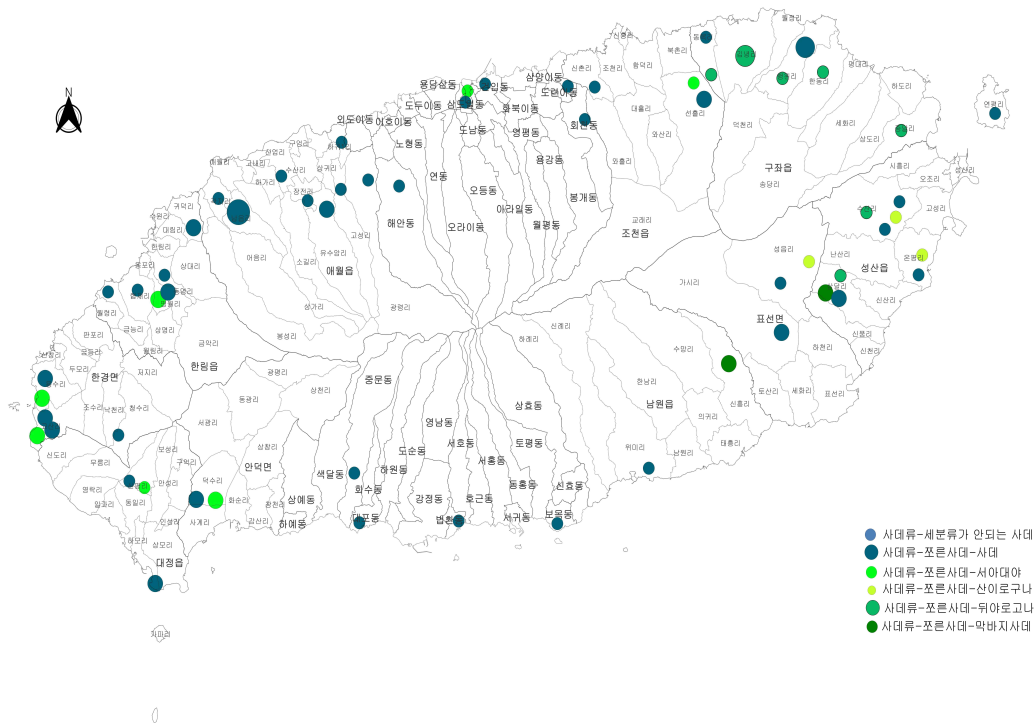


그림 8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사대-뜨른사대소리 분포도

(3) 사대류-뜨른사대-뒤야로구나

사대류-뜨른사대-뒤야로구나의 훗소리는 ‘영허야 뒤야로구나’이다. 분포지역은 구좌읍과 성산읍으로 한정적이다. 앞에 설명하였듯이 훗소리 앞 두마디는 멜후리는 소리 훗소리 앞 두마디와 동일하고 훗소리 뒤 두마디는 진사대-사대의 훗소리 뒤 두마디 ‘사데로구나’와 동일한 음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11은 사대류-뜨른사대-뒤야로구나 분포도이다.

제주도에서는 옛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조천읍 함덕리·애월읍 광지리·한림읍 협재리, 옛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표선면 표선리·성산읍 신양리 등이 멸치잡이로 유명했다고 한다. 조천읍 함덕리에는 멸치잡이 작업을 위한 어로공동체 조직인 그물잡이 ‘팔선진’이 있을 만큼 멸치잡이 성행하였다. 어로작업의 풍어를 기원하기 위한 ‘팔선진 멜굿’, ‘팔선진 멜코스’, ‘그물코스’ 등도 성행하였다. 멸치잡이가 성

행하면서 ‘멜후리는소리’가 유행하였을 것이고 멜후리는소리의 훗소리가 <검질매는 소리>의 훗소리로 차용되는 것은 어로공동체가 농업공동체와 동일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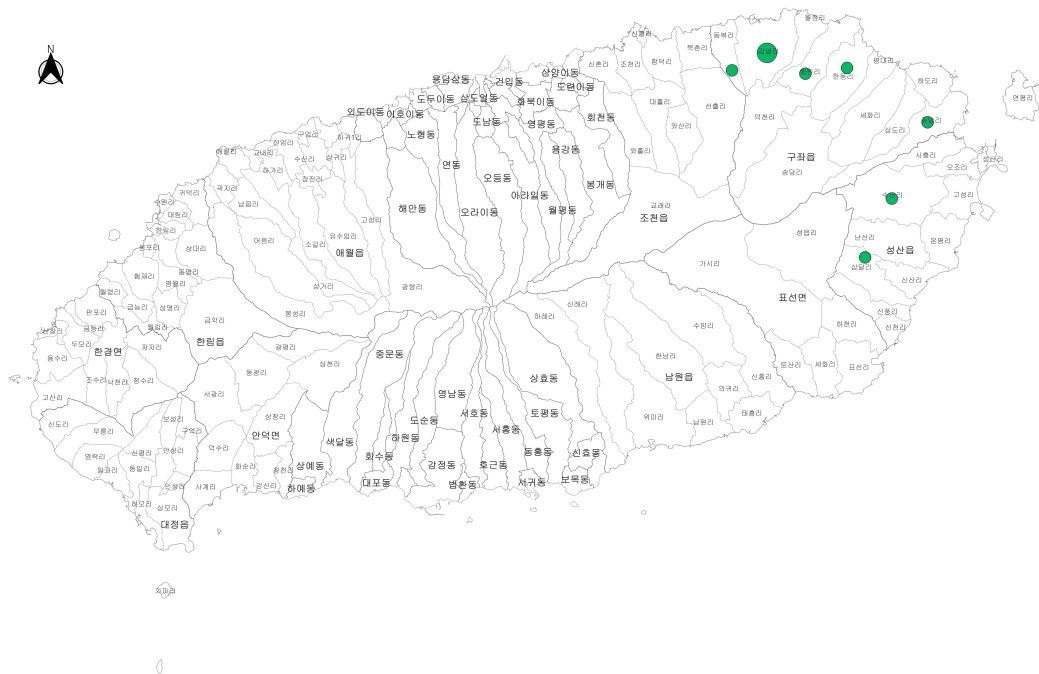


그림 9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사대류-쯔른사데-뒤야로고나 분포도

여기서 문제는 제주도 전역에 ‘멜후리는소리’가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현재 로써는 구좌읍과 애월읍에서만 ‘멜치 후리는 노래’가 발견되었는데 서로 그 모습이 다르다. 애월읍 ‘멜후리는소리’는 훗소리가 사대류-뒤야로구나는 구좌읍 ‘멜후리는 소리’의 영향이다. 애월읍 곽지리 ‘멜치 후리는 노래’에는 훗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구좌읍 ‘멜후리는소리’에는 ‘멜후리는소리’ 이후 이어서 ‘서우제소리’가 붙여진다. 이는 ‘그물코스’의 영향으로 보인다. 사대류-뒤야로구나는 구좌읍 지역에서 형성되어 점차 그 세력을 넓히다가 멈춰있는 분포 양상이다.

(4) 사대류-쯔른사데-막바지사데

사데류-쫄른사데-막바지사데는 사데류 중에서 가장 빠른 소리이다. 장단이 형성된 것으로 봤을 때는 늦게 형성된 소리일 가능성이 높다. 분포 지역은 조천읍 선흘리, 성산읍 삼달리, 남원읍 하례리로 매우 협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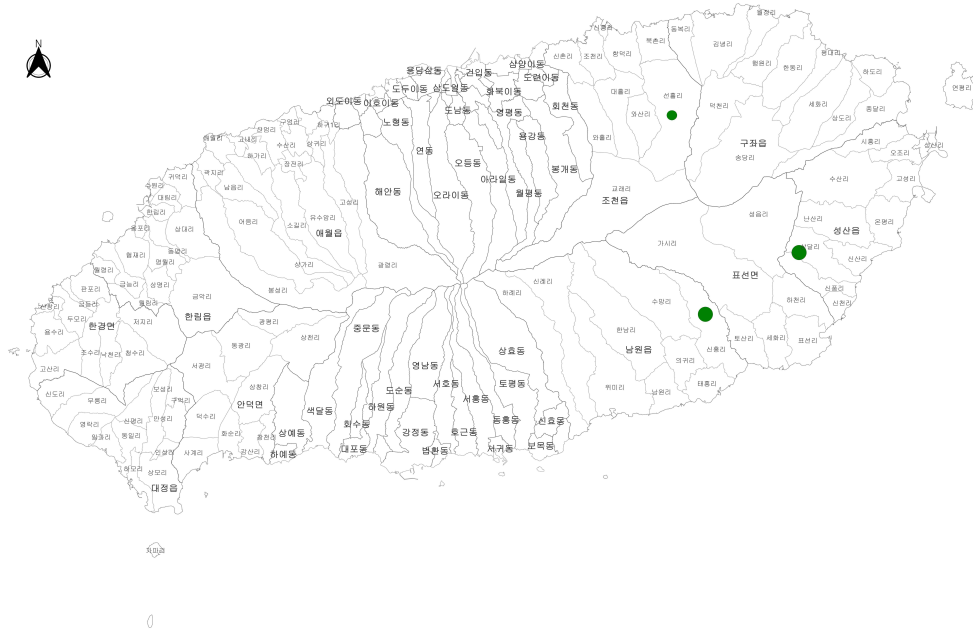


그림 10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사데류-쫄른사데-막바지사데소리 분포도

(5) 사데류-추침사데소리

사데류-추침사데소리는 <검질매는소리> 중 가장 독특한 민요이다. 엮음소리 형식이고 유희성이 뛰어나며 독립적으로는 부르지 않는다. 주로 진사데소리와 함께 불려지는데 굽이진사데소리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나타낸다. 분포 지역은 안덕면 덕수리, 애월읍 납읍리, 애월읍 장전리, 애월읍 금덕리, 애월읍 광령리이다. 애월읍은 굽이진사데소리가 많이 분포 지역이기도 하다.

안덕면 덕수리 지역에서 나타나는 추침사데소리는 진사데-여어랑사에서 ‘얼싸 넘어간다’와 같은 추임새 모양으로 나타난다. 사설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추침사데소리의 의미로 봤을 때 이런 모습도 추침사데로 추정된다.

추침사데소리는 많은 곳에서 불려졌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소리의 특징이 유희성이 강하다보니 부르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유희성, 놀이성은 잘 표현하지 못하면 안한만 못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편찬을 받기 일수라 이 소리가 빠르게 소멸됐거나 숨어버리는 현상으로 분포 지역이 협소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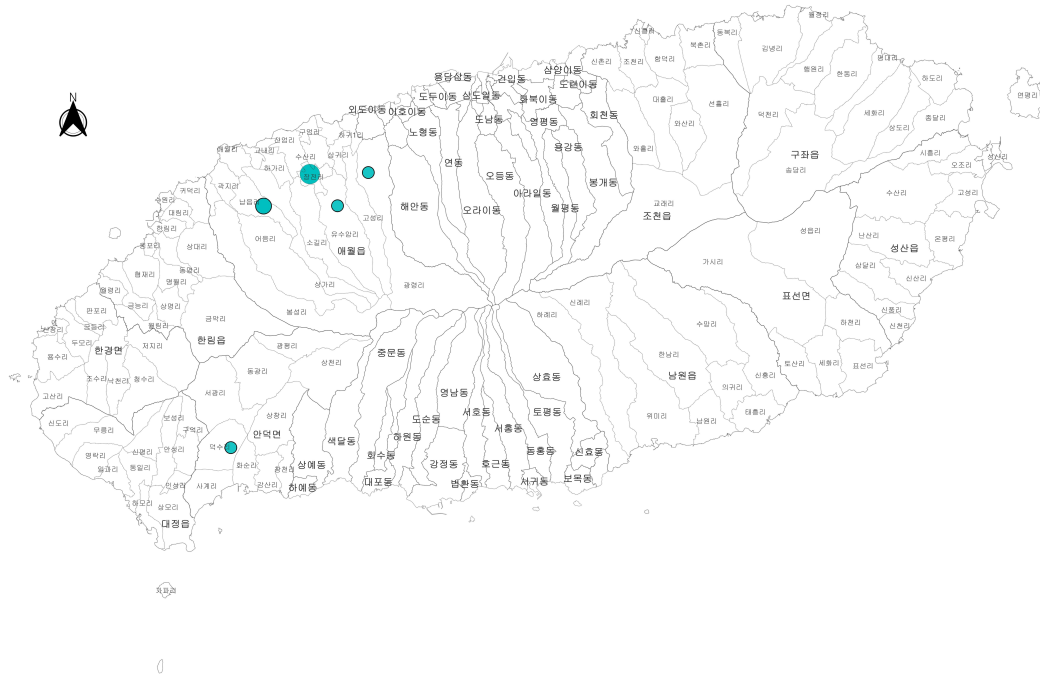


그림 11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사데류-추침사데소리 분포도

2-2. 아웨기류

아웨기류는 진아웨기와 짝른아웨기로 나뉜다. 아웨기류 전체 분포 양상은 제주도 동지역에 치우쳐 분포한다. 아웨기류의 중심이 구좌읍 송당리와 표선면 성읍리에서 많이 조사되었고, 이어 옛 제주시와 옛 서귀포시, 조천읍 조천리·북촌리, 구좌읍 하도리, 성산읍 온평리, 삼달리로 송당리와 성읍리를 중심으로 방사형 분포되어 있다.

아웨기소리의 특징은 사데소리 선소리와 서우제소리 훗소리의 결합으로 이루어

져 있는데 훗소리의 음구조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아웨기류는 진아웨기소리와 짝른아웨기소리로 2개의 유형이 존재한다. 보통 진아웨기소리를 ‘아웨기소리’라고 하고 짝른아웨기소리는 ‘짝른아웨기소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진아웨기소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진아웨기소리와 짝른아웨기소리는 그 짝을 이루어 분포되어 있다. 이는 서우제소리의 영향이기도 하고, 진사데소리-사데와 짝른사데소리-사데가 짝을 이뤄 분포한 것과 동일한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제주도 <검질매는소리>의 특성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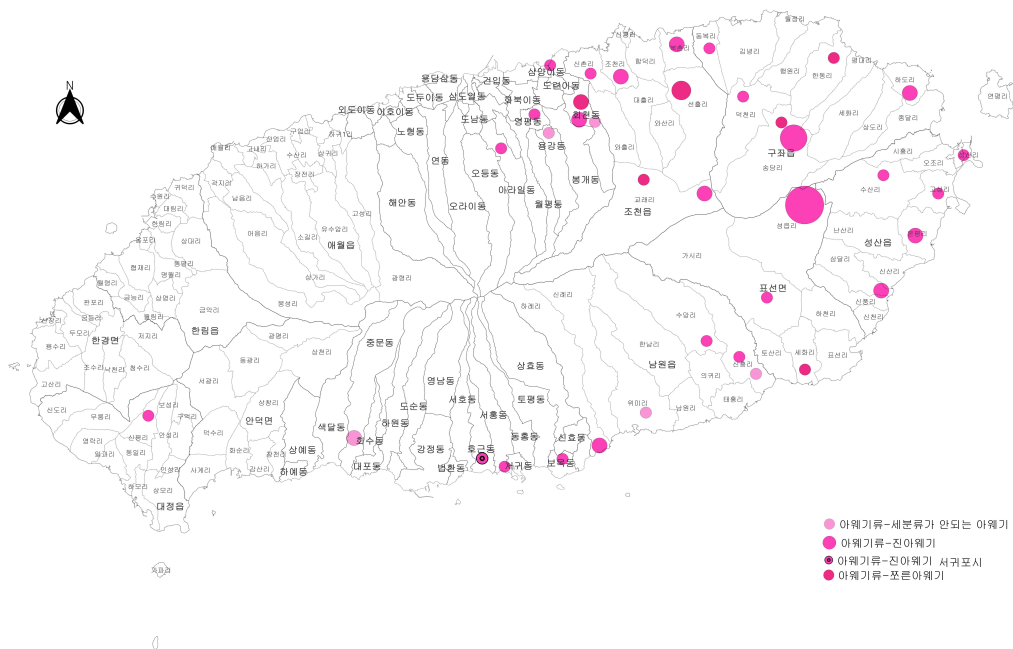


그림 12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아웨기류 분포도

2-3. 발매는흥애기소리

발매는흥애기소리는 분포지역은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옛 제주시이다. 흥애기소리로 본다면 그 분포지역은 제주도 전역이 될 것이다. 흥애기소리는 매우 긴 소리와 도깨질소리처럼 매우 짧은 소리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 중에

밭매는흥애기소리는 매우 긴 소리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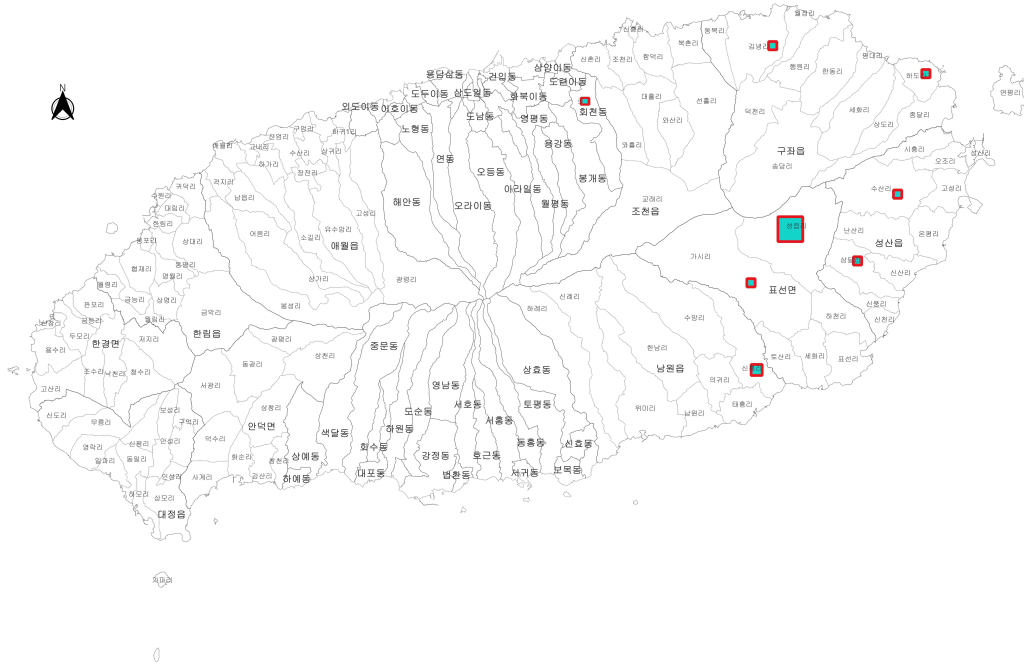


그림 13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밭매는흥애기소리 분포도

밭매는흥애기소리 분포 양상은 아웨기류 분포 양상과 흡사하다. 아웨기소리가 우선적으로 불리는 지역에 굽이진사데소리가 불리지 않아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2-4 공유민요

공유민요는 상사소리, 담불소리, 더럼소리, 용천검으로 제주도 동쪽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공유민요는 밭매는 소리만으로 봐서는 안되고 본래의 기능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 지도 봐야 한다. 상사소리는 옛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창민요로도 불렸다고 한다. 더럼소리는 밭매는흥애기소리와 비슷한 양상으로 다양한 노동현장에서 불린다. 용천검은 옛 제주시에서 창민요로 분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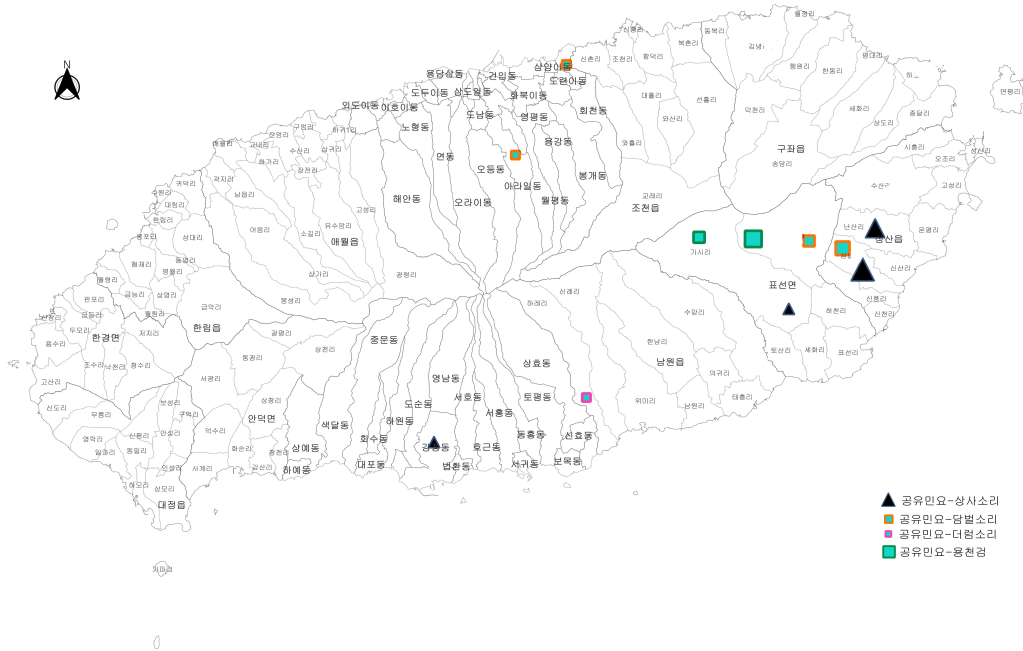


그림 14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공유민요 분포도

2-5 공유민요-상사소리

공유민요 상사소리가 다른 공유민요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하고 있어 별도로 분석하겠다. 앞서 밝혔지만 상사소리는 노동요로만 불리는 것은 아니다. 제주지역에서 모심기로도¹⁵⁹⁾ 불리고, 창민요로도¹⁶⁰⁾ 불리고, 발매는소리로도 불린다. 제주지역에서도 상사소리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상사소리의 이러한 성격은 비단 제주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상사소리와 동일한 민요는 아니지만 육지부 상사소리도 이미 전국적인 분포 양상을 가지고 있다. 육지부 상사소리는 크게 3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첫째는 논매는소리에서의 상사소리, 둘째는 모심는소리에서의 상사소리, 셋째는 그 외 기타 다양한 현장에서의 상사소리이다. 논매는소리만 빼면 전국단위든 제주지역이든 그 모습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159) 『나요당』, 221쪽.

160) 『나요당』, 428쪽.

전국 상사소리 분포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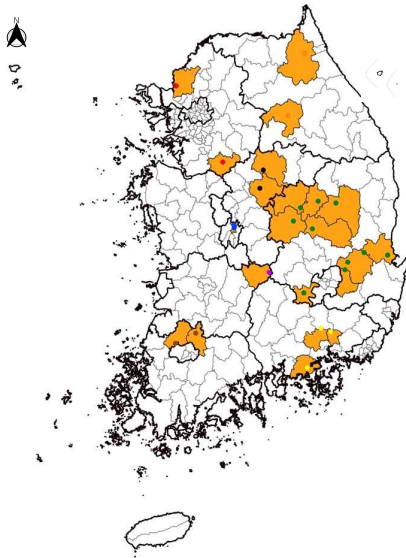


그림 15 전국 논매는상사소리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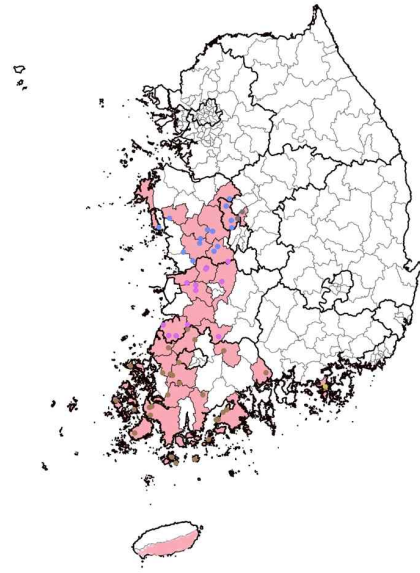


그림 16 전국 모심는상사소리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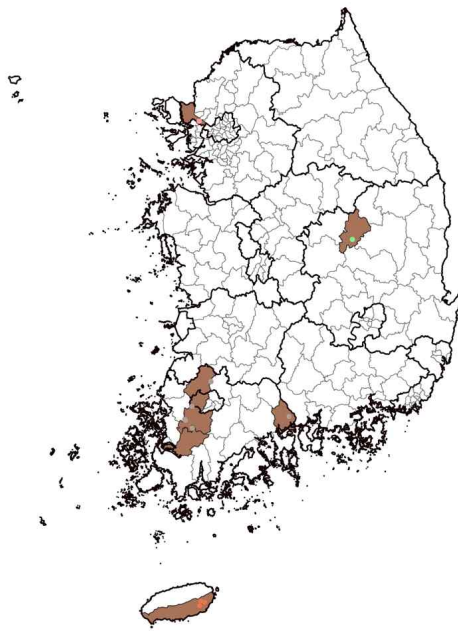


그림 17 전국 기타류 상사소리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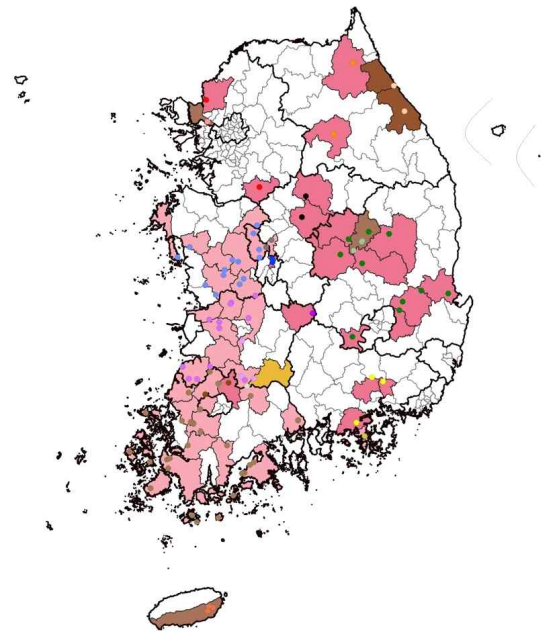


그림 18 전국 상사소리 분포도

논매는소리 상사소리는 경상북도, 충청도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퍼져있는 모습이다. 그런 반면 모심는소리 상사소리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모심는소리 상사소리는 충청도, 전라도로 집중하여 제주도까지 분포하여 우리나라 서쪽으로 치우쳐 분포한 양상이다. 기타류 상사소리는 먼저 제주도에서는 발매는 소리로 존재하고, 경기도에서는 회달이소리, 전라남도 모찌는소리, 나무등짐소리, 집터다지는소리 등으로 나타난다.

상사소리는 육지부 타지역에서는 발매는 소리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상사소리는 논매는소리로 먼저 존재하고 이후 모심는소리로 전파되고 다시 기타류로 전파되었다고 추정된다. 벼농사가 농법이 직파에서 이앙법으로 바뀌면서 모심는 소리가 필요하게 된 것이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김현선은 ‘상사소리’는 가장 폭 넓은 소리로 상사소리 하나만을 통해서도 전국적인 이 소리의 지역유형과 변이유형의 분포도가 그려질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단 가장 유념해야 할 사안이 <모심는소리>의 ‘상사소리’와 <논매는소리>의 ‘상사소리’ 등을 근본적으로 갈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소리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사소리’의 음절이 온전하게 유지되지 않고 달라지는 ‘사지소리’와 이 소리를 특별하게 변형시켜서 달라지게 하는 ‘상사소리’의 파생형 등 역시 묵과할 수 없는 다양한 변종을 만들어내게 된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해서 소리의 근본적인 변이를 파악하고 지도로 구현하는 것에 의의를 부여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경기도 남부 끝에서 출발하여 이 소리가 호남에 이르게 되면 여러 면모를 드러내는 점이 확인된다고 하였다.¹⁶¹⁾ 지역유형의 분포지도는 그려지게 된다면 최종적인 도달점은 동일한 기능의 특정 국면에서 이 소리들이 기능하는 총체가 무엇이고, 결과적으로 민요의 엄격한 분류의 틀이 무엇이고, 이 민요 분류의 관건이 결과적으로 타당성과 신뢰도가 높은 민요지도의 작업 준거가 되는 점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한 성과를 염두에 두고 이 분류 작업과 함께 지역유형의 분포도는 일정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¹⁶²⁾ 민요를 이해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

161) 김현선, 앞의 논문, 2011, 306쪽.

162) 김현선, 위의 논문, 2011, 307쪽.

V. <검질매는소리>의 인문지리적 성격

민요는 인간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삶의 실태, 의욕, 정서가 집약되어 반영하며, 그 지역의 지리·역사·민속·산업·신앙·경제 등을 비롯한 사회구조와 사고체계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노동요는 일하면서 그 고됨을 잊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생업과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삶의 도구이며, 민요 중에서도 가장 원시적이며 본원적인 노래가 노동요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¹⁶³⁾ <검질매는소리>의 인문지리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제주도 민요 중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검질매는소리>의 분포 양상은 사데류와 아웨이류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사데류는 제주 서쪽에서 우선적으로 불려지는 유형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다른 유형들에 자신의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는 모습이 강하다. 그러면서도 전도로 전파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아웨이류는 제주 동쪽에서 우선적으로 불려지는 유형으로 다양한 유형들에 자신의 자리를 내주는 듯 하면서 제주 전도로 그 세력을 넓히는 양상이다. 이러한 형상의 인문지리적 성격을 크게 몇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는 제주도 자연환경적 성격으로 동서의 검질매는소리의 선호도가 다르다는 점이고, 둘째는 역사지리적 성격으로 옛 행정구역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제주도 내 다른 문화와의 교류로 무속과의 관계를 들 수 있고, 넷째는 <검질매는소리>의 개방성이다.

1. 자연환경에 따른 동서의 다름

제주도 자연환경에 대해 앞서도 설명을 하였지만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쪽지역과 서쪽지역의 토양이 다른 점이 <검질매는소리> 유형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토양은 속칭 제주에서 ‘뜯땅’이라고 부르는 화산회토와 ‘뒹땅’이라고 부

163) 양영자, 앞의 책, 2007, 92쪽.

르는 비화산회토로 이루어져 있다. 제주도 자체가 화산섬이기 때문이다. 화산회토와 비화산회토는 모두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토양인데 그 성질이 조금 다르다. 화산회토는 화산활동 시 분출된 화산재가 그대로 쌓여 생긴 것이고, 비화산회토는 조면암과 현무암질의 용암이 분출하면서 형성된 토양 모재가 130만 년여 동안 풍화된 토양이 후기 화산활동에 의해 분출된 화산회토에 덮이지 않고 그대로 남아 노출된 것을 말한다.¹⁶⁴⁾

화산회토는 비가 오다 그치면 금방 부서부석 말라 건조해져 버리기 때문에 ‘뜬땅’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화산회토는 제주도 전체 면적의 80%를 차지한다. 화산회토는 흑색토라 부를 수 있으나 세분하면 농암갈색토, 흑색토, 갈색삼림토의 3종류로 나누기도 한다. 농암갈색토는 제주시 구좌읍을 제외한 조천읍부터 한경면까지의 중산간지대와 우도면 일대에 분포한다. 제주도 남부 지역에서는 해안지대와 중산간지대 전역에 걸쳐 분포하므로 제주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토양이다. 흑색토는 제주시 구좌읍의 중산간지대에 주로 분포한다. 흑색토는 대부분 초지로 이용되고 있다. 검은색 화산회토는 인산이 부족하여 농사를 짓기 힘든 곳이다. 화학비료가 없을 때는 보리농사도 짓지 못할 정도로 척박했던 토양이다. 갈색삼림토는 표고 700m 이상 산악지대에 분포한다. 배수가 양호하며 자갈이 섞인 농암갈색의 미사질 식양토양으로 자연 비옥도는 낮은 편으로 대부분 임지로 이용되고 있다. 비화산회토는 다소나마 점토질이 있어서 ‘된땅’이라 부르며 대체로 갈색토양을 이룬다. 분포는 한라산 북서부, 그것도 해발 200m 이하 해안 지대에 주로 분포한다.¹⁶⁵⁾

164) 송성대, 『제주인의 해민정신 개정증보판-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도서출판각, 2019, 370쪽.

165) 송성대, 위의 책, 37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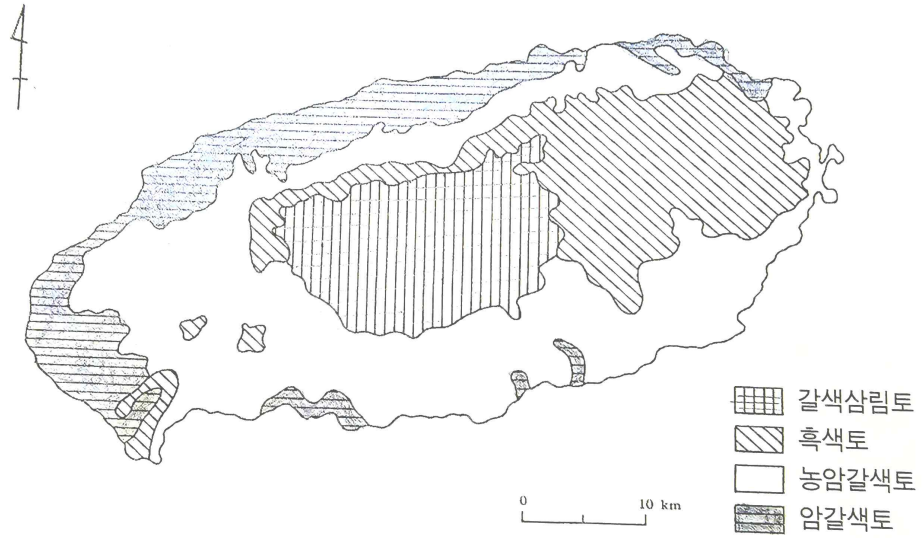


그림 19 제주도 토양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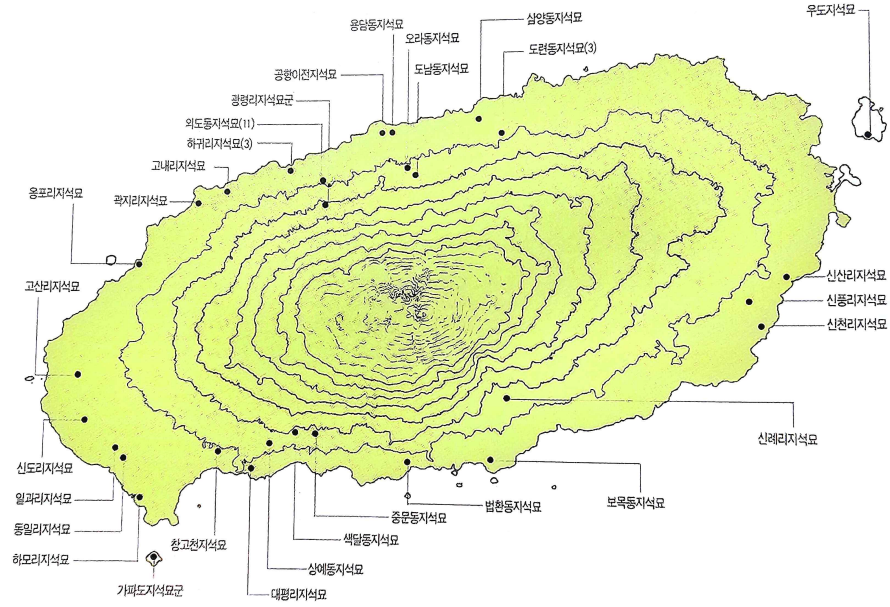


그림 20 제주도 지석묘 분포도

화산회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연 비옥도가 높아 대부분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흑색 토양이 아닌 생산력이 높은 암갈색 토양에서만 유적지가 발견되고 고인돌이 세워진 것을 보면, 이 토양대에는 고대 이래 사람들이 주거주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⁶⁶⁾

그림 14 토양분포도와¹⁶⁷⁾ 그림 15 지식묘분포도의¹⁶⁸⁾ 분포 양상은 사데류 분포 양상과 매우 흡사한 모습인 것을 알 수 있다.

2. 제주의 옛 행정구역의 모습

사데류 분포 양상은 자연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역사지리적 환경으로 고려시대 행정구역과도 유사하다. 고려시대 행정구역을 명확하게 제시한 자료는 없지만 이원진의 『탐라지』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목 [건치연혁] 충렬왕 원년(1275) 을해(乙亥)에는 원나라가 다시 탐라로 호칭하였다. …(중략)… 21년(1295) 을미(乙未)에는 제주로 고치고 목사(牧使)와 판관(判官)을 두었다. 26년(1300) 경자(庚子)에 동·서도현(東西道縣)을 설치하였다.-현촌(縣村)은 곧 귀일(貴日)·고내(高內)·애월(涯月)·곽지(郭支)·귀덕(歸德)·명월(明月)·신촌(新村)·함덕(咸德)·김녕(金寧)·호촌(狐村)·홍로(洪爐)·예래(猯來)·산방(山房)·차귀(遮歸) 등이다. 대촌(大村)에는 호장(戶長)3인, 성상(城上)1인, 중촌(中村)에는 호장3인, 소촌(小村)에는 1인을 두었다. 생각하건대, 구설(舊說)에 “신라에서 고후를 봉할 때 촌(村)을 두었고, 고려 의종 때에 또 나누어서 현(縣)을 두었다가, 원종 때에 삼별초를 평정하고 합하여 1주(州)로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또 현촌을 설치하였다.”고 하니, 이치가 혹 그럴듯하나, 서로 현촌이 된 연대는 상세하지 아니하다.-169)

166) 송성대, 위의 책, 371쪽.

167) 제주사정립사업추진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탐라사.2-분야별 연구서』, 제주:제주사정립사업추진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2010, 54쪽.

168) 제주사정립사업추진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탐라사.1-개설서』, 제주:제주사정립사업추진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2010, 48쪽.

169) 이원진, 윤희 김찬흡 외, 『역주 탐라지』, 서울: 푸른역사, 2002, 15쪽~17쪽.

고려행정구역은 동·서도현(東西道縣)을 설치하였다.-현촌(縣村)은 곧 귀일(貴日)·고내(高內)·애월(涯月)·곽지(郭支)·귀덕(歸德)·명월(明月)·신촌(新村)·함덕(咸德)·김녕(金寧)·호촌(狐村)·홍로(洪爐)·예래(猊來)·산방(山房)·차귀(遮歸)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를 지도로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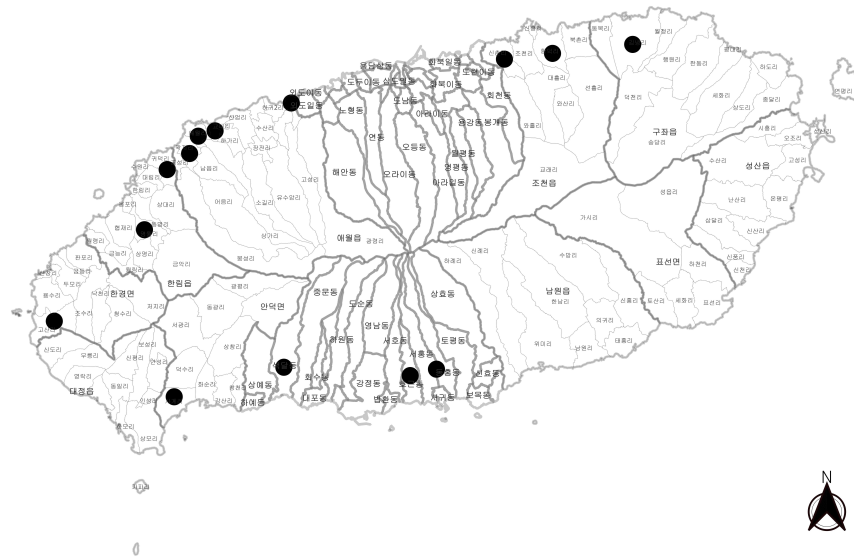


그림 21 고려시대 옛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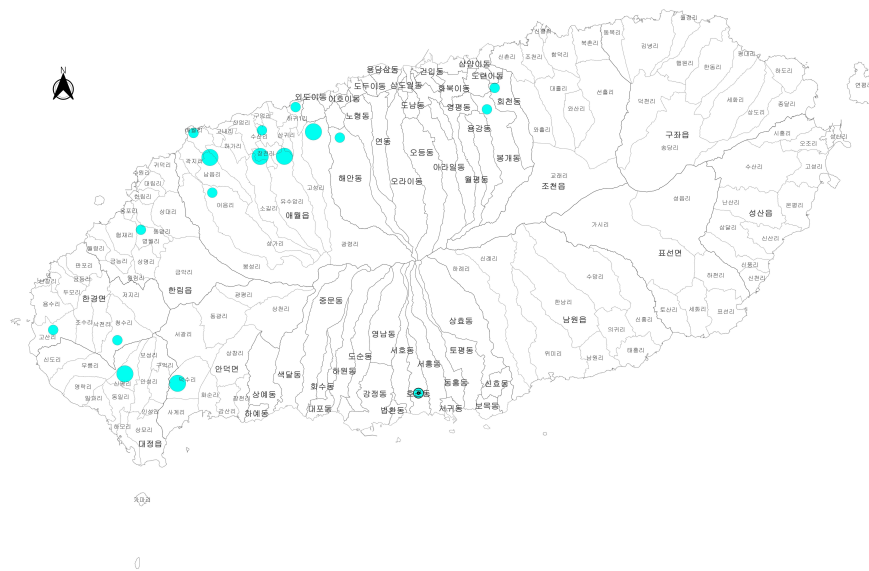


그림 22 사대류-진사데-굽이진사데 분포도

굽이진사데소리가 분포 지역이 옛 고려시대 현촌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 시사하는 것은 굽이진사데소리가 매우 오랫동안 제주에서 <검질매는소리>로 불려졌다는 것이다. 제주도 <검질매는소리>는 사데류는 서쪽에서 시작됐을 것이라 추정되며, 서쪽에서 동쪽 그 세력 넓혀 가고 있는 양상이다. 그것은 다르게 보면 인구의 이동으로 볼 수 있다. 사데류 중 굽이진사데소리 동쪽으로 전파되지 않는 모습은 아마 토양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쪽의 흥애기소리가 굽이진사데소리의 자리를 메워주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는 기존 사데류의 대응 현상으로 보인다.

제주도 동쪽은 아웨기소리 우선적으로 불려지는 지역인데 이는 조선시대 행정 구역과의 관계에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듯 하다. 조선 태종 16년에 한라산 북쪽 전체를 제주목으로 한라산 남쪽을 서쪽 대정현, 동쪽 정의현으로 나눴다.

정의현 [건치연혁] 본래는 제주의 동도(東道)였는데, 조선 태종 16년(1416) 병신(丙申)에 안무사 오식(吳湜)의 건의에 따라 한라산 남쪽 지역의 넓이 200여 리의 땅을 나누어, 동쪽을 정의(旌義)로 삼고 서쪽을 대정(大靜)으로 삼아 모두 현(縣)을 설치하고 현감(縣監)을 두었다.¹⁷⁰⁾

【고적】

옛 정의현(古旌義縣) : 현 동쪽 27일에 있다. 원나라 목자 하치가 여기서 제주의 만호를 살해하였다. 오식이 삼읍을 나눌 때, 정의현은 우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북소리, 뿔피리소리가 나고 큰바람이 자주 몰아쳐 곡식이 익지 않으며, 왜적이 자주 침범하였다. 세종 5년(1423) 안무사 정간(鄭幹)이 건의하여 이를 듣고 진사리(晉舍里:지금의 성읍리)로 현청을 옮기니, 지금의 소재지이다.¹⁷¹⁾

정의현의 현청은 원래 성산을 고성리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재해, 왜구 침략 등으로 현청을 진사리 지금의 성읍리로 옮기게 된다. 대정현이나 제주목이 정

170) 이원진, 위의 책, 222쪽.

171) 이원진, 위의 책, 241쪽.

의현처럼 현청 자리를 새로 옮겼다는 기록은 없다. 정의현만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것이다. 현청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새롭게 짓는 현청 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투입되고 많은 물자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비단 제주도의 인구, 물자만이 아니라 육지부에서도 많은 인구, 물자들이 정의현 진사리로 유입되었을 것이다. 제주의 다양한 민요들이 정의현에 공존하게 되는 양상을 띠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

조선초기 제주도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조선 건국에서 세종 시기까지는 계속해서 육지로부터 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원나라 유민들도 대거 유입되었고, 건국 과정에서 유배당한 자들은 물론 정치적으로 망명하는 소외된 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고, 양, 부 등 몇몇 성씨를 제외한 김, 이, 박 등 많은 주요 성씨들이 이때부터 제주에 입도, 정착하게 되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¹⁷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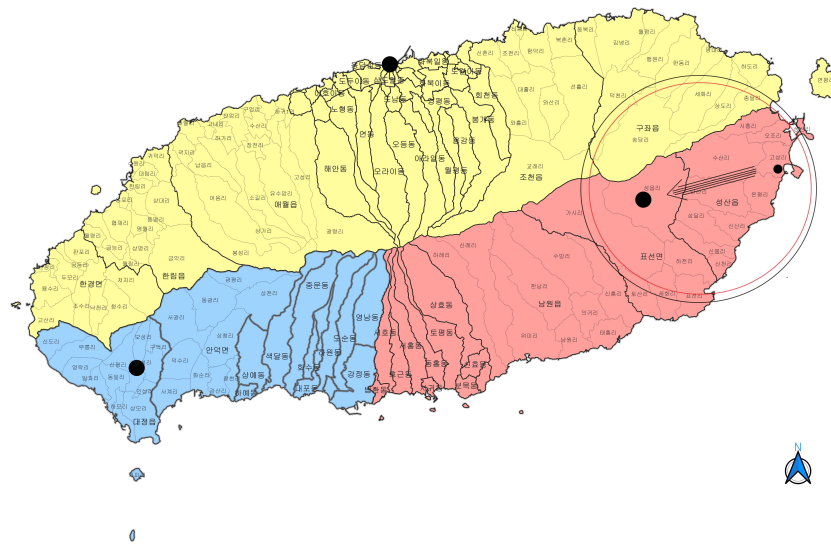


그림 23 조선시대 옛 행정구역 - 정의현 현청 이동

172) 조성윤,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 탐라문화 제2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5, 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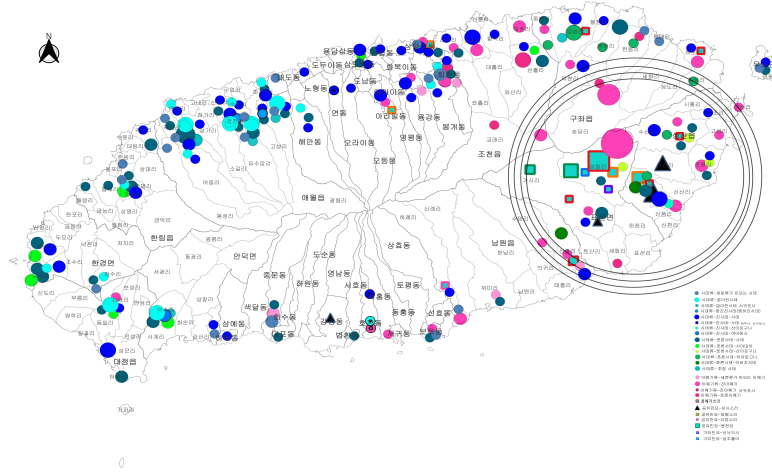


그림 24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전체 분포도 - 정의현 중심

성산읍, 표선면 일대의 <검질매는소리>는 사데류-진사데-사데, 짝른사데-사데, 짝른사데-뒤야로구나, 짝른사데-막바지사데, 아웨기류-진아웨기, 아웨기류-짝른아웨기, 흥애기소리, 더럼소리, 담벌소리, 상사소리, 용천검, 성주소리, 선낙각시이다. 사데류-진사데-굽이진사데와 사데류-진사데-중간사데, 사데류-추침사데를 뺀 모든 유형이 존재한다.

민요의 변천에 관한 기록을 보면 1920년대부터 신문과 잡지에 민요에 관한 기사가 활발하게 실리게 된다. 이 중에서 우이동인(牛耳洞人)에 의해서 1928년에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중외일보에 「민요연구」가 49회 (1928.8.5~10.24), 「동요연구」가 14회 (1928.11.13~12.6)가 연재된 것이다.¹⁷³⁾ 다음 그림 19는¹⁷⁴⁾ 1928년 8월13일 기사내용이다.

173) 박선애, 「한국 근대 민요론 연구-우이동인의 민요론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30집』,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74쪽,
 174) 국립중앙도서관 검색키워드 '중외일보' (<https://viewer.nl.go.kr/main.wviewer#> 검색일 2023. 07.13.)



그림 25 중외일보 1928.08.12 기사

민요는 문자로 기록하여 둔 것이면 어느 시대까지든지 유전(遺傳)하여지지만 문자로도 기록되지 않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口傳)하여 온 민요는 어떤 시대에 와서는 소멸되기도 하고 어떤 시대에 발생되기도 한다는 것은 필자가 말하지 않아도 제군(諸君)이 더 잘 알 것이다. 거금(距今) 60여년 전에 조선십삼도에 산재하여 있던 민요가 경성에 집중한 일이 있었나니 그것은 제군이 잘 아는 대원군이 경복궁부흥공사를 할 당시에 조선팔도에서 역사(役事)할 인부를 끌어 온 까닭으로 그때 역사할 각 도인(道人)이 대(隊)를 편성하여 가지고 피로를 위안하노라고 노래를 부르며 일을 하였는고로 그 노래들이 일시는 경성에 대유행하였다. 그리하여 그 민요의 출생지에서는 소멸된 것이라도 경성에 남아 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그때에 무리하게도 각 도 인민에게 혹사고역을 시켰는고로 역사하던 인민들은 대원군에게 원정(怨情)을 품고 “을축갑자초삼일(乙丑甲子初三日)에 경복궁을 평지맨글자”란 의미의 노래를 불러서 지금까지 유전(遺傳)하여 온다. 그리고 그때의 경복궁타령도 지금까지 유전하여 왔다.

이 경복궁공사가 완성된 후년에 고종황제(李太王)께서 특히 민요의 취미가 많으심으로 민요를 장려하여 궁중에 일시는 민요의 향락장이 된 감이 부소(不少)하였다. 그로 인연하여 아리랑 등 민요 외 많은 신민요를 산생하게 하셨다. 이리하여 경복궁 건축 공사 당시를 위시하여 조선민요가 많이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고 민요발달의 원인이 또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은 조선에 화류계이다. 즉 기생으로 말미

압음이 많다. 어느 곳 기생이든지 아리랑이라든가 성주풀이라든가 춘향가 등 민요를 알지 못하면 상당한 기생으로 인정하여 주지 않는다고 민요를 모르면 기생 자격이 없으므로 해서 기생될려는 여자는 노래 잘 하는 사람에게 민요를 배우게 된다. 아직 경성에는 기생학교가 없지만 평양만 가도 기생학교가 삼사개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곳에서는 물론 민요를 배운다. 민요만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민요를 중심 삼아 배우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조선민요는 많은 발달을 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이삼년 전부터 향토문학에 뜻을 둔 동지들 사이에서 각지에 산재한 민요를 수집하며 민요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이 차차 많아가는 현상이다. 그리고 또 은거하였던 명창들이 출현하는 것이라든지 몇몇 잡지사에서 민요 모집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일이 늘어감을 따라서 조선에 민요는 현재 발전과정을 과정하고 있다.¹⁷⁵⁾

위 기사 내용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경북궁공사로 인해 전국에 있는 일꾼들이 모이게 되고 고된 노동으로 지친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민요가 불려져 서울에 다양한 민요가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양상은 경기민요를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기생들의 역할도 한 몫을 했다고 한다. 이런 유사한 상황이 정의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제주도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은 아마 제주목일 것이다. 하지만 제주목은 가장 빨리 현대화가 되어 제주도에서 민요가 가장 빨리 사라진 곳이라 판단된다.

3. 무속신앙을 품고 있는 <검질매는소리>

<검질매는소리> 중 ‘아웨기소리’와 ‘담불소리’는 무가와 관련이 깊은 민요이다. 아웨기소리는 굿판에서 부르던 노래가 민간에 전파되어 선율과 리듬을 변화시키고 <검질매는소리>의 사설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노래로 탈바꿈된 민요이다. ‘담벌소

175) 박선애, 「한국 근대 민요론 연구-우이동인의 민요론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30집』,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90쪽~91쪽, 재인용. (인용문은 글의 의미에 지장이 없도록 가능한 한 현대어에 맞게 수정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신문기사에는 민요 가사가 있는데 본문에는 생략되었다.)

리'는 변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질매는소리>로도 불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도 민요의 개방적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민요가 무가를 모방하고, 무가가 민요에 직접 투사되는 특징을 가진다. 무가의 신명난 모습이 민요로 전이되는 것은 제주도 <검질매는소리>가 제주 사람의 성격과도 일치한다.

제주도 민요와 제주도 무속의례가 연계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주도 굿의 정신세계가 살펴져야 할 사정이 있다.

무속의례에서 전승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자면 제주 무속의례에는 '석살림'이란 제차가 있다. 석살림은 큰굿의 제차(祭'次) 이름이다. 현용준은 추물공연 대목에서 신에게 음식을 대접한 후 신을 즐겁게 놀리고 기원하는 의식이라고 밝히고 있다. 심방은 노래와 춤으로써 향촉(香燭)을 올리고 주잔(酒盞)을 권하고 심방뿐 아니라 기자(祈者)나 구경꾼들도 모두 즐거이 춤을 추어 놀며 기원하는 재차라고 한다.¹⁷⁶⁾ 이런 석살림에서 불려지는 노래가 서우제소리이다. 현용준은 이어 서우제소리는 한 집안 또는 씨족(氏族) 수호신인 조상을 놀릴 때 부르는 노래의 곡명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⁷⁷⁾

또한 '영감놀이'라는 무속의례에서도 불려지고 있다. 영감은 도깨비를 존칭한 말이다. 도깨비인 영감을 잘 놀려 원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의례이다. 영감을 잘 놀리지 못하면 단골에게 빙의하여 병에 들게 한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서우제소리는 환자를 치유하는 추는굿에서도 많이 불려지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제주도 추는굿』에 보면 서우제소리가 굿이 진행되는 동안 모두 24회나 불려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추는굿에서 하나의 제차는 '개잔개수 - 서우제소리 - 도랑춤 - 주잔권잔 - 휴식'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서우제소리는 일정한 내용의 사설을 노래하고, 환자는 그 노래의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으로 병을 치유하는 것이다.¹⁷⁸⁾ 물론 지금은 의학의 발달로 이러한 추는굿을 자주 접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간간이 행해지는 이런 무속의례에서 서우제소리는 반주와 춤을 꼭 동반하여 행해진다.

176)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881쪽.

177) 현용준, 위의 책, 881쪽.

178)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주도 추는굿』, 도서출판 피아, 2006, 29쪽.

한편 민요에서 서우제소리는 유희요와 노동요에서 전승되는 것을 여러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가장유희요로서 서우제소리는 무속의례의 서우제소리 성격에서 나타나는 신놀림과 치병의 성격이 보다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서 신명을 돈을 때 항상 자연스럽게 불러졌다. 서우제소리를 부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신명나게 춤을 추고 노래하며 놀았다고 한다. 서우제소리는 한마디로 즐거움을 표현하는 노래이다.

더불어 서우제소리는 어업 노동인 멸치 잡는 현장에서 노동 유희요로서 불려진다. ‘멜 후리는 소리’와 함께 전승되고 있다. 멸치 잡는 노동이 모두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고 자연스럽게 공동체 연대강화를 위해 서우제소리를 불렀다. 실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르지는 않지만, 노동현장에서 전승되어지고 있다.

실제 노동을 하면서 불려진 경우로는 농업 노동요인 <검질매는소리>에서 전승되고 있다. 그런데 서우제소리 자체가 그대로 전승되는 것은 아니다. 즉 메기는 소리는 ‘사데소리’이고, 받는소리만 서우제소리의 받는소리로 부르고 있다. 이를 ‘아웨이소리’라고 한다. 노동의 강도에 따라 장단의 빠르기가 달라지는데, 느리게 부르는 것은 ‘진 아웨이’, 빠르게 부르는 것은 ‘쫓른 아웨이’로 나뉜다. 전승되는 지역은 조천읍 선흘리, 구좌읍 송당리, 성산읍 온평리, 표선면 가시리 등 제주의 동서 지역에서 많이 불려지고 있다. 다만 옛 서귀포시 대포동에서는 아웨이소리라는 이름이 아닌 서우제소리 이름으로 밭 매는 소리에 차용하여 불려지고 있다.

노동 현장에 노래가 불려지는 이유는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한 것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힘들고 지치지만 노래하며 그것을 잊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기에 불려진다고 볼 수 있다. 여름에 비가 많아 잡초가 무성해지면 한 밭에 네 번 이상 밭 매는 작업을 하는 상황도 있다. 밭이 넓은 경우에는 많게는 사십 여 명 정도 이상 동원되어 일을 한다. 이런 경우 제주에서는 육지의 두레와 유사한 품앗이, 수눌음으로 마을 공동체의 연대를 통해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어업요 중 멸치 잡는 소리에서 서우제소리는 유희요로서 주로 노동을 끝내고 나서 불려진다. 멸치 잡는 일은 마을에서 배가 세 척이나 동원되어 작업하는 규모가 큰 노동 중에 하나이다. 마을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 멸치 잡은 것을 환영하며 축제적인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이 멸치는 딱히 어느 한 개인이 소유가 아니

고 마을 전체가 주인인 셈이다. 마을 전체 공동의 작업으로 멀치를 건지는 노동을 하고 나서 서우제소리로 어업의 풍요를 기원하고 어업활동 중에 무사안녕을 기원하며 노래한다.

민요의 장단 길이는 노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동 시간 혹은 노동의 방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단의 길이를 달리 하여 민요는 불려진다. 아웨기 역시 그런 노동의 시간과 방법 등에 따라 장단의 길이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진 아웨기는 주로 일의 시작점에서부터 일이 어느 정도 익숙해 졌을 때까지 불려지며, 쫓른 아웨기는 일을 마무리 할 때 불려진다.

일을 시작할 때는 손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느린 민요를 부르며 일에 익숙해지게 한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느리게 불러서는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기에 조금 빠른 장단으로 불러 일에 속도를 높인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쫓른아웨기를 부른다. 말하자면 진아웨기는 밭을 본격적으로 맬 때 불려지고, 쫓른아웨기는 밭 가장자리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주로 불려진다. 밭작물과는 상관이 없으니 빠른 장단으로 불러 아무렇게나 일을 해도 잘못 될 일은 없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사설을 통해 노동의 순서나 방법을 전승하며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함께 하고 있다.

이렇듯 서우제소리는 제주에서 가장 유행한 민요 중에 하나이다. 마을과 더불어 생업 공동체를 강화하고 서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하는 서우제소리가 <검질매는소리>로 불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멜후리는소리에서 비롯된 ‘뒤야로구나’ 역시 서우제소리가 아웨기소리로 변이되면서 같이 견인된 것으로 보인다.

4. <검질매는소리>의 개방성

민요의 기본적인 성격 중 폐쇄성과 개방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검질매는소리>에서 폐쇄성이 짙은 유형은 사데류 중 진사데류이다. 하지만 진사데류를 빼고 생각하면 개방성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민요와의 수용적 관계

는 타지역에서 유입된 ‘상사소리’, ‘용천검’, ‘성주소리’ 등이다. 타노동요와의 관계에서는 집줄 놓는 소리에서 진사데소리-여어랑사와의 유사성이 있고 흑병에 부수는소리에서 발매는 더럼소리가 있다. 흥애기소리는 광범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도리깨질소리에서부터 출발하는 흥애기소리, 나무켜는노래, 밭가는노래, 톱질소리, 진 토긱파는소리 등이다.

민요는 창자의 성별에 따라 남요(男謠)와 부요(婦謠) 그리고 남녀공용요(男女共用謠)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민요의 기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남성이 주로 하는 노동에서 불려지는 민요는 당연 남요로 분류되고, 여성이 주로 하는 노동에서 불려지는 민요는 부요로 분류된다. 그리고 남녀공용요가 있다.

여어랑사, 흥애기, 더럼소리는 남성요라고 할 수 있다. 발매기 노동은 여성이 주로 하는 노동이다. 그런 사정으로 볼 때 <검질매는소리>는 여성요인 셈인데 발매는 노동에 남성이 투입되면서 <검질매는소리>에 남성요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검질매는소리>는 7레 7는소리, 남방아소리처럼 집안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몇 안되는 사람들로 많아야 4명 정도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검질매는소리>는 개방된 공간에서 많으면 20~40명까지 함께 노동을 하기때문에 공개된 장소와 공개된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소리를 하는 구연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잘 부르기 위해, 더 즐겁게 위해, 혹은 노동의 효율성 등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민요가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VI. 결론

본 연구는 제주도 민요 중 밭농사에서 불리는 밭매는 소리인 <검질매는소리> 분포, 유형, 변이 연구를 통해 하나의 기능을 가진 민요가 다양한 문화를 품고 있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민요는 누구든지 부를 수 있고 그 일차적인 전승자는 농민이다. 노동현장에서 민요가 어떻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또한 다양한 기능을 수반하고 있는지를 이번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제주도 <검질매는소리>의 훗소리를 오이코타입의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훗소리 구성을 의미가 없는 말로 된 여음과 의미가 있는 말로 된 사설의 결합 양상을 놓고 제주도 <검질매는소리>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사데류

(1) 진사데소리

- ① 굽이진사데소리 (식굽이, 닉굽이 통합)
- ② 중간진사데소리(중허리사데)
- ③ 진사데소리 - 사데
 - 산이로구나
 - 여어랑사

(2) 짝른사데소리

- ① 짝른사데 - 사데
 - 서하데야
 - 산이로구나
- ② 뒤야로고나
- ③ 막바지사데소리

(3) 추침사데소리

▶ 아웨기류

(1) 진아웨기소리

(2) 짝큰아웁기소리

▶ 발매는흥애기소리

▶ 공유민요

(1) 상사소리(상사디야요)

(2) 담별소리

(3) 더럼소리

(4) 용천검

▶ 기타민요

(1) 성주소리

(2) 선낙각시

사데류는 <진사데소리>, <짝큰사데소리>, <추침사데소리>로 크게 셋으로 분류하였다. <진사데소리>는 <굽이진사데>, <중간진사데>, <진사데>로 나누고 굽이진사데소리는 식굽이, 닉굽이로도 나뉘어 진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 특징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통합하여 분류하였다. 중간진사데소리는 중간사데, 중허리사데 등으로 불리졌던 것인데 그 길이는 굽이진사데소리와 진사데소리 중간쯤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간사데>라고 하면 <진사데>와 <짝큰사데>의 중간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 <중간진사데>로 편의상 명칭하였다. <진사데>와 <짝큰사데>는 현장에서 불리는 명칭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짝큰사데소리는 <짝큰사데>, <뒤야로구나>, <막바지사데>로 분류하였다. <뒤야로구나>는 훗소리 여음구는 <멜후리는소리> 훗소리 앞부분 여음구과 <짝큰사데-사데> 뒷부분 여음구를 결합한 형태로 <검질매는소리> 훗소리 변이 유형이다. 이것은 아웁기소리와 유사한 모습이다. 아웁기소리는 서우제소리의 훗소리와 <검질매는소리> 선소리의 결합으로 민요의 변이 유형이다. <발매는흥애기소리>는 그 형태와 양상이 다양하여 별도로 분류하였다. 공유민요는 한 민요가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반하는 것들인데 노동요인 상사소리, 더럼소리, 무가에서도 불리는 담별소리, 창민요인 용천검으로 모두 변이 형태가 아니고 온전한 모습으로 <검질매는소리>에서 불려졌다. 흥애기와 더럼소리는 그 기능이 매우 다양하고 분포 양상도 광범위하다. 기타민요로 선낙각시, 성주소리는 음원을 확인할 수가 없어 어떤 소리인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다. 공유민요는 변이 과정이 아직 일

어나지 않은 형태로 민요의 전승이 멈추지 않았다면 어떻게 변이되었을 지는 모르는 것이다.

각 유형별 민요지도를 만들어 제주 지역에서의 분포 양상을 분석하였다. 제주 지역에서의 검질매는 소리 분포 양상은 사데류는 서쪽 애월읍, 한림읍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전도로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였고 아웨기류는 표선면, 성산읍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전도로 퍼져나갔는데 주로 해안가 마을에 많이 분포하였다.

기타류인 경우는 표선면 성읍리를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전도로 퍼져 나가는 양상은 보이지 않았다.

민요의 분포는 행정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사데류와 아웨기류는 고려시대 행정까지 거슬러 올라가 비교해 볼 수 있고, 기타류의 모습은 조선시대 정의현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검질매는소리> 분포 양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주도 토양에 따라 농사법이 달라 민요도 같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쪽이 동쪽보다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고 토양에 수분함량은 많고 기후는 동쪽에 비해 비가 덜 오는 것이 오히려 농작물에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비옥하고 넓은 농지가 다양한 사데류 유형을 만들었다. 그 반면 동쪽은 토양에 수분 함량이 적고 비가 자주와 오히려 메마른 땅을 만들어 농작물에 좋지 않은 영향으로 작용한다.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은 작아 구좌읍 김녕에서는 송당까지 올라가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이 아웨기류, 기타류 등 다양한 <검질매는소리> 유형을 만들어낸 것이다. 동쪽에는 굽이진사데처럼 긴 사데소리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사데류는 제주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경상북도 예천군에 사데소리가 있다.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지금 현재로써는 알 수 없다. 단지 가설을 세울 수는 있을 것이다. 사데소리가 매우 발달하던 시기가 있었고 그것이 전국을 거쳐 제주도로 전파되었다가 전국의 사데소리는 상사소리에 밀려나 점차 사라지고 내륙지방인 경상북도 예천군에만 남게 되었고 제주도에서는 매우 발달하게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이런 현상은 <검질매는소리> 상사소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제주도 내에서만 봐도 서우제소리가 <검질매는소리> 아웨기로 변이되어 발달하게 되는 모습 모

두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지 않을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민요에는 크게 남성요와 여성요가 존재한다. <검질매는소리>는 여성요에 해당한다. 그런데 노동현장에 발매는 자리에 남성이 투입되면서 남성요인 민요들이 같이 유입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진사데-여어랑사, 흥애기소리가 그 대표적인 소리이다.

노동의 형태로 전혀 상관없을 것만 같은 ‘토불미소리’와 훗소리를 공유하는 짝른 사데소리-서아데야도 발견하였다. ‘토불미소리’가 남성요인지 여성요인지 확실히 구분할 없지만 훗소리를 공유하는 것은 사실이다.

육지부 타지역의 발매는 소리의 사사민요의 형태가 조금이나마 남아 있는 기타 류-‘선낙각시’ 발견하였다. 처첩간의 갈등을 다룬 내용으로 서사민요에서는 매우 흔한 이야기 내용이다.

민요는 자연발생설, 유입설 등 민요의 발생설에 대하여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문제는 민요가 그 지역에 어떻게 뿌리 내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자연발생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제주도 <검질매는소리>는 이미 타지역과는 별개의 민요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남느냐를 명확히 보여주는 실증이다.

이 논문에서 내린 결론을 서술한다. 첫째 <검질매는소리>는 제주도의 정체성을 한껏 드러내는데, 아주 적절한 대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각박한 화산 토질에 맞서서 검질과의 악전고투한 도전이 만들어낸 위대한 창조물이다. 밭이라고 하는 공간의 어려움을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면서 여기에 제주도 사람의 특유한 기질과 인문학적 소양을 담아 노동의 고난을 소리의 절창으로 바꾸었다. <검질매는소리>의 창조는 검질과 밭, 인간의 결합체여서 풍부하고 다양한 소리를 창조하였음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둘째, <검질매는소리>는 소리의 양상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분포권과 함께 지역 유형이라는 각별한 양상을 만들어냈다. 제주도의 <검질매는소리> 전체 양상이 북군과 남군의 전반적 구분에 입각하여 동쪽과 서쪽이라는 특이한 양상을 빚어냈다. 북쪽과 동쪽, 서쪽과 남쪽이라는 특별한 양상이 발생했는데, 하나의 큰 섬에 다양한 소리의 지역 유형이 등장하는 것은 제주도 <검질매는소리>에 입각하고 있으며,

가시적으로 증명된다. 다른 한편에서 심층적 원리가 있으니 그것은 밭의 크기와 넓이, 토질의 척박함과 풍부함에 의해서 결정된다. 북서쪽은 밭이 넓고 기름지기 때문에 사데소리가 다양하게 갖추어진다. 동시에 북동쪽은 무풍이 있는 소리가 채택되어 다양화 되었다. 동쪽에는 <아웨기소리>, <담벌소리>, <용천검>, <홍애기>, <더럼소리> 등 발달하였다.

셋째, <검질매는소리>는 제주도의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를 매개하는 적절한 대상이 된다. 소리의 장단이나 창조가 지리의 속성과 무관하지 않음이 드러난다. 분포도의 전반적 개황과 지리적 분포는 많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자연지리, 인문지리를 포함한 전자문화지도 개념이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준거 자료를 삼아서 분포의 성격을 논하였다. <사데소리>는 특별하게 ‘굽이진사데’, ‘진사데-쫄른사데’, ‘뒤야로구나’,의 분포도를 논하니 작업방식, 지질, 역사적 성격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아웨기소리>는 각별한 예증이다. <상사소리>는 특별하다. 역사적 기원에서 소리의 제반 양상을 논해야 한다.

조동일은 민요 연구의 학문적 성격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고 하였고, 이를 민요학으로 불러야 한다고 하였다. 민요 연구가 민요학으로 나아가려면 문학, 민속학, 음악학으로 두루 함께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민요 연구는 그 실상을 다루어야 하는데 민요는 노래로 구비 전승되어지는 것이다. 전승해서 부르는 사람이 있어야 성립되고,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존재한다고 하였다. 창자의 구연은 민요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리고 노래는 사설, 기능, 가락을 갖춘 노래이므로 창자, 구연 상황, 사설, 기능, 가락의 관점을 두루 고찰하여야 민요 연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한 연구자가 이 모든 것을 동시 연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 이 모든 부분을 다 연구하지 못한 미비한 점이 한계라 생각한다. 앞으로 연구 과제는 제주민요와 타지역 민요의 비교 연구, 민요학으로써의 민요연구 등이 남는다.

참고문헌

<연구자료>

- 김영돈, 『濟州의 民謠』, 도서출판 신아문화사, 1993.
- _____, 『제주도 민요연구 - 상권 자료편』, 서울:민속원, 200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한국구비문학대계 9-1』, 서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한국구비문학대계 9-2』, 서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서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허남춘·강정식·강소전·송정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한국구비문학대계 9-4』, 서울:역락, 2014.
- 허남춘·강정식·강소전·송정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한국구비문학대계 9-5』, 서울:역락, 2017.
- 허남춘·강정식·강소전·송정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한국구비문학대계 9-6』, 서울:역락, 2017.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국어교육과, 『학술조사보고서-안덕면 덕수리·애월읍 고내리-』 제7집, 동양출판사, 1982.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국어교육과, 『학술조사보고서-애월읍 광지리·애월읍 광명리-』 제8집, 동광인쇄사, 198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예술연구실, 『한국의 민속음악:제주도민요편』, 城南: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백록어문』 창간호, 경신인쇄주식회사, 1986.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백록어문』 제5집, 경신인쇄사, 1988.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백록어문』 제6집, 경신인쇄사, 1989.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회, 『백록어문』 제7집, 경신인쇄사, 1990.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회, 『백록어문』 제8집, 대영인쇄사, 1991.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회, 『백록어문』 제9집, 경신인쇄사, 1992.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회, 『백록어문』 제10집, 경신인쇄사, 1994.

-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1집,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5.
-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2집,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6.
-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3집,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7.
-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4집,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8.
-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5집, 도서출판 세림, 1999.
-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6집, 도서출판 세림, 2000.
-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7집, 경신인쇄사, 2001.
-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18·19집, 도서출판 역락, 2004.
-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0·21집, 성민출판사, 2005.
-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3집, 민속원, 2007.
- 백록어문학회, 『백록어문』, 제24집, 민속원, 2008.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濟州島部落誌Ⅰ』,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濟州島部落誌Ⅱ』,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濟州島部落誌Ⅲ』,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濟州島部落誌Ⅳ』,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1.
- 문화방송 라디오국,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서울:문화방송라디오국, 1992.
- 문화방송 라디오국, 『한국민요대전:경상남도민요해설집』, 서울:문화방송라디오국, 1994.
- 문화방송 라디오국, 『한국민요대전:충청남도민요해설집』, 서울:문화방송라디오국, 1995.
- 문화방송 라디오국, 『한국민요대전:충청북도민요해설집』, 서울:문화방송라디오국, 1995.
- 문화방송 라디오국, 『한국민요대전:경상북도민요해설집』, 서울:문화방송라디오국, 1995.
- 문화방송 라디오국, 『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서울:문화방송라디오국, 1995.
- 문화방송 라디오국, 『한국민요대전:전라남도민요해설집』, 서울:문화방송라디오국, 1995.
- 문화방송 라디오국, 『한국민요대전:경기도민요해설집』, 서울:문화방송라디오국, 1996.
- 문화방송 라디오국, 『한국민요대전:강원도민요해설집』, 서울:문화방송라디오국, 1996.
- 제주시, 『濟州의 郷土民謠-濟州市 編』, 제주:濟州市, 2000.
- 이소라,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총서 38 『나요당 기증 제주민요 자료집』, 제주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2018.
- 영락국민학교, 『영락학구 향토지』, 제주: 영락국민학교, 1987.
- 우도지편찬위원회, 『牛島誌』, 제주: 우도지편찬위원회, 1996.

- 건입동마을회, 『建入洞誌』, 제주: 건입동마을회, 2001.
- 건입동마을회, 『建入洞誌』, 제주: 건입동마을회, 2008.
- 삼양동지 편찬위원회, 『三陽洞誌』, 제주: 삼양동지 편찬위원회, 2008.
- 아라동편찬위원회, 『我羅洞誌』, 제주: 아라동지편찬위원회, 2008.
-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東明鄉土誌』, 제주: 동명향토지 편찬위원회, 2009.
- 유수암리지 편찬위원회, 『流水岩里誌:제주 유수암 마을. 2010』, 제주:애월읍 유수암리, 2010.
- 제주 동회천향토지 발간위원회, 『새미=Saemi:제주 동회천향토지』, 제주:제주 동회천향토지 발간위원회, 2013.
- 성읍마을회, 『성읍마을』, 제주: 성읍마을회, 2015.
- 수망리지 편찬위원회, 『水望里誌』, 제주: 수망리마을회, 2017.
- 성산읍 수산1·2리 마을회, 『改訂增補版 水山里誌』, 수산초등학교 총동문회 도서편찬위원회, 2021.

<단행본>

- 고광민, 『제주 생활사』, 제주: 한그루, 2018.
- ____,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서울:대원사, 2004.
-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주도 추는곳』, 도서출판 피아, 2006.
- 김영돈, 『濟州島民謠研究(下)-理論篇』, 민속원, 2002.
- 변성구, 탐라문화학술총서 5집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도서출판민속원, 2007.
- 송성대, 『제주인의 해민정신 개정증보판-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도서출판각, 2019.
- 양영자, 탐라문화학술총서 6집 『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 도서출판민속원, 2007.
- ____, 『제주학으로서 제주민요』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총서 31, 민속원, 2017.
- 양주들노래보존회, 2007년 문화관광부 전통예술 복원 및 시연 사업 『경기도 양주시 토박이 소리꾼의 소리』, 양주들노래보존회, 2007.
- 이원진, 율김 김찬흡 외, 『역주 탐라지』, 서울: 푸른역사, 2002.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토양월색도감』, 일신옵셋인쇄사, 2000.
- 제주사정립사업추진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탐라사.1-개설서』, 제주:제주사정립사업추진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2010.

_____, 『탐라사.2-분야별 연구서』, 제주:제주사정립사업
추진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2010.

진성기, 『南國의 民謠-濟州島民謠集-』, 제주민속연구소, 예월인쇄, 199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논문>

강등학, 「<모심는 소리>와 <논매는 소리>의 전국적 관도 및 농요의 권역에 관한 연구」, 『한
국민속학 제38호』, 한국민속학회, 2003.

_____, 「민요 후렴의 현장론적 이해」, 『한국민속학』 26권, 한국민속학회, 1994.

강성균, 「제주도 김매는 노래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986.

김영돈, 「제주도의 노동요」, 『한국문화인류학』 제8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76.

김장수·장동호, 「경남지방 논매기소리의 공간적 분포특성 연구: 상사 류를 중심으로」, 2020.

_____, 「경상지방 논매기소리 '상사 류'의 분포와 문화전파」, 2022.

_____, 「전남지방 논매기소리의 공간적 분포특성 및 문화지역: 아리시고나 류, 산아
지소리, 절로소리, 세화자(세월이)소리를 중심으로」, 2021.

김현선, 「논농사 민요의 지역적 분포와 상관관계」, 『민속학연구 제3호』, 국립민속박물관,
1996.

_____, 「제주민요 『곶역사데』의 기능과 의의」, 미발표 프린트물.

_____, 「한국민요의 문화지도 착상과 예비적 시론 -경기민요 <논매는소리>를 예증으로 삼
아-」, 『비교민속학 제46집』, 비교민속학회, 2011.

문경환·임한철·현해남, 「기후요인에 의한 제주도 토양분포」, 『한국토양비료학회지』 제42권 5
호, 한국토양비료학회, 2009.

박선애, 「한국 근대 민요론 연구-우이동인의 민요론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30집』,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박현수·장동호, 「지형요소를 활용한 충북 논매기소리의 전파 특성 분석: 짚은방아 및 상사류
를 사례로」, 2016.

변성규, 「제주민요의 후렴」, 『민요론집』 제2호, 민요학회, 1993.

서해숙, 「한국 터주신앙의 쌀 봉안의례와 문화권역」, 『지방사와 지방문화』 12권 2호, 역사

- 문화학회, 2009.
- 송정희, 「제주도 굿 제차 중 석살림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양영자, 「제주도 <사데소리>의 존재양상과 의미」, 『한국민요학』 제20호, 한국민요학회, 2007,
- 위눈솔·장동호, 「지형요소를 기반으로 한 전북지역 논매기소리의 공간분포 특성 연구」, 2016.
- 유재진·장동호, 「충청남도 남동부에서 나타나는 논매기소리의 분포와 전파에 관한 연구」, 2014.
- _____, 「충청남도 논매기소리의 공간적 분포와 전파에 미친 차령산맥 선구조의 영향: 느린 얼카덩어리 류 얼카덩어리 잘 넘어간다 류를 중심으로」, 2015.
- 윤혜연·임은진·박현수, 「경남지방 논매기소리의 공간적 분포와 문화권 구분에 관한 연구」, 2020.
- 윤혜연·장동호, 「경상남·북도 논매기소리 공간분포와 전파 특성에 관한 연구-지형요소를 중심으로」, 2022.
- _____, 「지형요소를 활용한 전라도 논매기소리의 공간분포와 전파에 관한 연구: 아리시고 류, 산아지 곡, 방계 류를 사례로」, 2021.
- 이기태, 「道 경계지역 문화요소의 분포와 문화권역-동제의 대상신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3권 1호, 역사문화학회, 2010.
- 이예슬·장동호, 「전남지역 문화권 구분에 따른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공간분포 특성 분석」, 2021.
- 이혜란, 「설화권역 설정 및 오이코타입-‘212-1 <명당 잡아준 명풍수>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59권, 한국구비문학회, 2020.
- _____, 「아래자(夜來者)설화의 설화권역 구분 및 특성」, 『어문론총』 84권, 한국문학언어학회, 2020.
- 장동호·임은진, 「경북지역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문화지역 구분에 따른 공간분포 특성 분석」, 2022.
- 장동호·차상인, 「논매기소리의 전자문화지도 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2014.
- 조성윤,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 탐라문화 제2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5

한승훈, 「제주도 김매는 노래의 분포양상과 전승실태」, 『민요론집』 제2호, 민속원, 1993.

허용호, 「마을곳의 시기와 형식을 기반으로 한 문화지도 그리기-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13집, 한국무속학회, 2006.

Elena Bradunas, "If You Kill a Snake, the Sun Will Cry-Folktale Type 425M: A Study in Oicotype and Folk Belief," *Lituanus* 21 (1975)

Lauri Honko, "The Formation of Oicotypes," *Folklore on Two Continents: Essay in Honor of Linda Dégh* (Bloomington: Trickster Press, 1980)

Linda-May Ballard, "The Formation of the Oicotype: A Case Study," *Fabula* 24 (1983)

Eli Yassif, "유대인 오이코타입에서 이스라엘 오이코타입까지: '서약을 하지 않은 남자' 이야기," *Fabula* 27 (1986)

Timothy Cochrane, "The Concept of Ecotypes in American Folklore," *Jour*

<누리집>

<https://gubi.aks.ac.kr/web/> 2023.04.14. 검색일.

<https://sok.riksarkivet.se/sbl/Mobil/Artikel/35041> 2023.04.12. 검색일.

국립중앙도서관 검색키워드 '중외일보' (<https://viewer.nl.go.kr/main.wvewer#> 2023.07.13. 검색일.

자유 오픈 소스 지리정보 시스템은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다. <https://qgis.org/ko/site/> 2023.05.07. 검색일.

지역N문화 <https://ncms.nculture.org/song/story/4800> 2023.05.07 검색일.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6274> 2023.0716 검색일.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863> 2023.05.07 검색일.

<Abstract>

A Study of the Types and Distribution of Geomjilmaeneunsori in Jeju

Jeongheui Song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s folk songs referred to as Geomjilmaeneunsori are classified into songs in the *Sadeh* class, songs in the *Aweghi* class, Hongaeghisori, shared folk songs, and other folk songs, with the first two distributed throughout the island.

This study attempts to enunciate the distribution, types, and variation of Geomjilmaeneunsori – Jeju's folk songs that are sung for weeding in dry-field farming – through which it is demonstrated that folk songs serving a single function encompass diverse cultural aspects. Jeju's Geomjilmaeneunsori feature various types. Based on the oicotype and *hutsori* [the overword that follows *seonsori* or the leading solo] the songs contain, this paper largely classifies Geomjilmaeneunsori into songs in the Sadeh class, songs in the Aweghi class, shared folk songs, and other folk songs. The classification was followed by the subdivision of the folk songs with their lengths and tempos as the criteria, sorting the songs in the Sadeh class into Jinsadehsori, Jjoreunsadehsori, and Chuchimsadeh-

sori, and the shared folk songs into Hongaeghisor, Sangsatori, Deoreomsori, Dambeolsori, and Yongcheongeom. The other folk songs are very finitely distributed, featuring only two types, Seongjusori and Seonnakgakshi. The lyrics of Geomjilmaeneunsori very distinctively re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work songs. In terms of themes, working conditions are the most frequent, followed by worldly affairs, love affairs, and livelihoods. A representative first verse is “Apmeongehneun deureonaora / Duitmeongehrang nagunagara / Sadehbuleong ughimeonggaja” [lyrics that describe the working conditions in the field]. In the subsequent verses, workers continue to sing about their working conditions or shift the theme to their personal affairs, love affairs, or worldly affairs. In terms of the distribution of Geomjilmaeneunsori in Jeju, the regional types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ir aspects. The Sadeh class prevails in the western region of Jeju, while the Aweghi class is predominant in the east. Specifically, the present districts of Pyoseon-myeon and Seongsan-eup, which belonged to the administrative district of Jeonguihyeon in the Joseon period, feature the most diverse types. This paper elucidates the types of Geomjilmaeneunsori through the mapping of its regional distribution. In the human geographical sense, farming practices vary in the eastern and the western regions of Jeju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ir natural conditions. The west contains land with non-volcanic soil, while the land in the east is largely comprised of volcanic ash soil. This difference shapes the distribution of Geomjilmaeneunsori in Jeju. From the perspectives of history and geography, Gubijinsadehsori in the Sadeh class are considered closed in that their lyrics fail to go beyond the scope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in the Goryeo era, while the songs in the Aweghi class, the shared folk songs, and the other folk songs describe the administrative district in the subsequent era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course of interacting

with other cultures within Jeju, the folk song titled “Aweghisori” was created, particularly regarding the relationship with shamanism. Aweghisori’s *seonsori* features Sadehsori and its *hutsori* is identical to Seoujesori, a verse included in Jeju’s shamanic ritual named Seoksallim. This is how Aweghisori was constituted. Other than the said variation, Dambulsori sung during Seoksallim is also a type of Geomjilmaeneunsori. The open aspects of Geomjilmaeneunsori signify the crossover with other functional folk songs as proved in the acceptance of other agricultural work songs, the variants of fisheries work songs resulting from interactive relationships, the acceptance of work songs from other regions on the Korean mainland, and the acceptance of Changminyong [popular folk songs]. In terms of other agricultural work songs, Hongaeghisori and Deoreomsori are sung as Geomjilmaeneunsori, with their formats intact. The consecution of “Sadeh class-Jjoreunsadeh-*duiyaroguna*” represents the combination of the beginning part of *hutsori* in Melhurineunsori and the ending part of *hutsori* in Jjoreunsadehsori. A folk song from the Korean mainland, titled “Sangsasori,” was adopted to be sung for weeding in dry-field farming and is now considered a type of Geomjilmaeneunsori. Yongcheongeom, a Changminyong, is also renamed Banmaeneunyongcheongeom and sung with no variation of the original melody and lyrics. The other folk songs adopted into Geomjilmaeneunsori include Seongjusori and Seonnakgakshi, of which the characteristics remain unidentified.

The conclusiv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Geomjilmaeneunsori are deemed to be one of the most appropriate media through which the identity of Jeju is well-represented. Second, Geomjilmaeneunsori generated features of distinctive distribution and regional types based on the patterns of the songs. Third, Geomjilmaeneunsori serve as an appropriate medium that connects Jeju’s physical and

human geographies.

Keywords: Jeju, Geomgilmaeneunsori, Banmaeneunsori, Gimmaeneunsori, Sadehsori, Jinsadehsori, Jjoreunsadehsori, Makbajisadehsori, Chuchimsadehsori, Aweghisor, Jinaweghisor, Jjoreunaweghisor, Sangsasori, Hongaeghisor, Deoreomsori, Dambulsori, Yongcheongeom, Seongjusori, Seonnakgakshi, dry-field farming, volcanic ash soil, *tteunttang*, *dwenttang*, shared folk songs, oicotype, *hutsori*